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14-01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이 2010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묶어 펴낸 것이다. 수록 논문 네 편의 필자와 제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현식(서울대학교 교수)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남북한이 당면한 언어 문제와 재외동포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규범 정비 및 표준 한국어 문법 구축 필요성 등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국어학계의 과제로 표준 한국어 수립 목표를 제시하였다.

(2) 김미선(일본 민족학박물관 연구원) “재일 한국인의 언어 상황”

한국어와 일본어가 혼용되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의 이중 언어 상황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세대에 따라 한국어가 주로 사용되던 혼용 상황에서 일본어가 주가 되고 한국어가 외래어처럼 사용되는 상황으로의 변화를 살펴보고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남북한 언어가 서열화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3) 강정희(한남대학교 교수) “재일 한국인 사회의 언어 변화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제주 방언 사용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를 보전하는 집단은 이민 1세이며, 이민 2~3세 집단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인지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변화의 심리적 요인으로 재일 한국인들 사이의 동질감과 결속력 약화, 민족적 열등감을 제시하였다. 남한으로부터 젊은 이민자들의 유입과 일본 내 한류의 영향으로 앞으로 재일 한국인 사회의 한국어 사용 실태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4) 송재목(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시켜 온 민족학교의 교과 과정을 점검하였다. 민족학교는 해방 직후에는 총련의 영향으로 주체사상 교육 등을 주로 해 왔으나, 1983년 이후로는 한국어가 제2언어라는 현실을 전제로 재일동포들의 일본 내 적응을 위한 교과 과정으로 변화하였다. 교과서 편찬에서 재일동포 교육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어: 남북 언어 통합, 재일 한국인, 표준 한국어, 민족학교

학술회의 일정

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회식 - 인사말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 축 사 (김종호 오사카 한국문화원장)
10:10~10:50	발표 1 (민현식 서울대 교수) -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10:50~11:30	발표 2 (김미선 일본 민족학박물관 연구원) - 재일 한국인의 언어 상황
11:30~13:20	점심 식사
13:20~14:00	발표 3 (강정희 한남대 교수) - 재일 한국인 사회의 언어 변화
14:40~15:00	발표 4 (송재목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민족어(국어)를 중심으로
15:00~17:20	종합 토론 - 좌장: 조남호 - 주제 발표자 4인 - 토론자: 고명균(간사이대학), 김덕룡(전 조선대학), 박재영(수필가), 정희원(국립국어원), 허용(한국외대, 덴리대 방문 교수)
17:20~17:30	폐회식
18:00~20:00	만 찬

● 국문 초록	ii
● 머리말	vi
●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민현식	1
● 제일 한국인의 언어 상황 김미선	45
● 제일 한국인 사회의 언어 변화 강정희	63
●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송재목	81
● 종합 토론 녹취록	103
● 영문 초록	147

남과 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단된 지 어언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언어 차이가 적지 않게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국어원은 개원 초부터 남북통일에 대비한 언어 연구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국어사전이나 신문, 문학 작품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서로 달라진 언어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남북 언어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남과 북의 학자들이 직접 만나 주요 문제를 토론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이 늘어남에 따라 새터민들의 언어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재일 한국인 사회의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 남북 언어 통합과의 관련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재일 한국인들의 언어는 남한어와 북한어의 영향을 함께 받아서 독자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온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일동포 사회의 언어 현황과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면 다가올 남북통일에 대비한 언어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들의 언어를 모두 아우른 통합 한국어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10년 10월, 재일동포들의 삶의 터전인 오사카에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온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날의 발표 논문과 토론의 기록을 담은 것으로, 언어 통합에 관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재외동포 사회의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체계적인 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 논문을 보고서에 다시 싣도록 허락해 주신 민현식, 강정희, 김미선, 송재목 네 분 선생님과, 토론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 통합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3월 10일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남북 언어 통합과 재외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 '표준 한국어'의 수립을 위하여 -

민 현 식 |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남북 및 재외동포 언어의 현재와 미래 - ‘표준 한국어’의 수립을 위하여 -

민 현 식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1. 머리말

한민족은 단일 언어 민족으로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근현대 수난의 시기에는 일제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치욕을 겪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속에서 남북한 7300만 동포 외에 해외에는 700만 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어찌 보면 한민족이야말로 가장 세계화한 민족이 되었다. 중국인(5500만), 유대인(900만), 이탈리아인(900만) 등에 이은 이민대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동포 사회에서도 분단과 분열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어 미국, 일본 내에서조차 친북, 반북의 갈등을 벌이고 있음은 한민족의 분열적 국민성에 대해 전 민족적 회개가 아직도 미흡함을 보여 준다. 이념으로 인한 분열 외에도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한 분열을 남북이 한반도 안에서 그대로 연출해 왔는데 이 분열 양상이 그대로 해외동포 사회에서도 연출되고 있음은 통일의 갈 길이 아직도 멀고 전 민족적 각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최근에는 해외 참정권 부여 제도가 실시되면서 국내에서의 정치 분규, 이념 대립이 그대로 해외에서도 재현되어 동포 사회의 분열도 우려할 만하다고 한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남북통일’과 ‘재외동포 통합’의 과제를 국가 과제로 안고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남북 해외 한민족의 통합이라는 민족 통합의 축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지상 과제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으니 한반도가 더 이상 단일민족의 신화 국가가 아니라 120만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 나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어느새 다문

화 사회로 변하여 정부 시책에 외국인, 이주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상당한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남북통일’과 ‘해외동포 통합’ 외에 ‘다문화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남북 통합과 규범 통일 문제

전 세계에 한민족은 700만이 흩어져 있다. 그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여 언어문화적으로나 사회언어학적으로나 언어 습득 연구로나 아주 좋은 연구 소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런 연구를 본 궤도에 올려놓고 있지 못하다. 최근까지 남북 언어 연구는 김민수(1985), 고영근 편(1989) 이래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남북 학자 간 학술회의도 2001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적극 추진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남북 공동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008년 7월 10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를 북한이 사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북한이 사과를 거부하고,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 도발까지 일으켜 남북 교류가 중단됨으로써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현재 담보 상태이다. 이런 중에 한국사회언어학회·국립국어원 공동 학술대회가 <남북 언어 통합 연구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중앙대학교에서 거행되어(2009년 11월 7일) 남북한 언어 연구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차재은(2009)을 통해 잘 이루어진 바 있다.

그동안 남북 언어의 통일을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일찍이 김민수(1985)에서는 남북 언어 통합 방안으로 정서법의 통일과 개선, 국어사전 편찬과 규범문법 정비, 방언과 지명의 조사 연구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민수(1998)에서는 남북의 규범이 다른 것은 상호주의로 절충하고 절충할 수 없으면 복수로 수용하자는 두 가지 통합 원칙을 제시하였다. 김민수 편(2002)에서는 절충과 복수안 방식 외에 제3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고영근(1989)에서는 북한 간행물 및 방송의 공개, 통일 맞춤법 제정, 어휘사전 편찬, 규범문법 수립, 대조사전 편찬, 훈민정음, 주시경, 향가 해독 등의 연구를 제안했고, 고영근(1994)에서는 ‘개화기 이래의 민족어 수호 운동은 남북한 어문정책의 직접적 뿌리’라고 강조하고 남쪽의 국어순화 운동과 북쪽의 문화어 운동을 통합하여 우리말 순화 운동을 거족적으로 제안하였다. 남북의 모든 어휘를 망라하여 사전에 등록하는 편찬 사업을 제안했는데 현재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이런 제안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남기심(2002)에서는 남북 언어 차이는 방언적 차이라서 이질화로 보지 말자고 하고 자연과학, 기술 분야와 같은 비정치 분야 서적을 교류하고 말다듬기를 공동으로 하되, 말다듬기 작업은 국립국

어원에서 주관할 것과 방언사전 편찬 등을 제안하였다.

차재은(200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북한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 남측이 수행할 것:

언어학자들의 전문적 연구, 국가적 연구기관의 설립, 복수로 수용(표준어 정책), 북한 전문 도서관 건립, 대조사전 편찬, 상대 언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북한 간행물 및 방송 전면 공개, 북한 주민의 생활 용어 분석, 우리말 순화 운동, 상호주의에 입각한 절충,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 통제, 남북통일의 관점에서 맞춤법 개정/통일 전까지 개정 금지, 남한의 언어정책 통일, 제3안(구안으로 규범 통일), 민간 차원의 어문정책 토론회, 범민족 기구 출범, 통일 언어 전문가 양성, 통일 언어정책 평가자문 기관 설치,

② 북측이 수행할 것: 언어관 및 언어정책 수정

③ 남북 공동으로 수행할 것: 통합 어휘사전 편찬, 맞춤법 통일(시안), 남북 학자 간 접촉과 교류, 남북한 연구소 교류, 비정치적 분야의 학술 교류, 남북 공동 위원회(협의 기구) 구성, 언어학자의 정기 모임, 남북 공동 연구, 한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규범문법의 편찬, 공동 말다듬기(순화어와 다듬은 말의 결합, 일어 잔재 청산 포함), 공동 방언사전 편찬

위 상당수는 진행 중이고 특히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이런 노력의 결과 이루어지고 있다. 위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교육용의 규범 통일이다. 국가가 한국어를 국내외에서 국가 공통어로 가르칠 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통일된 언어 규범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질 체계에 살아온 남북한의 통일이나 모국어를 부모로부터 배워온 재외동포 세대의 한국어 학습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 통일’이므로 규범 통일은 선결 과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규정 통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교육 과제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는 ‘표준 한국어, 통일 한국어, 국제 한국어, 세계 한국어’¹⁾ 등 어떤 이름을 쓰든 세계적 표준 한국어의 통일과 설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나 미래로서나 한국어의 통일은 어떤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가?

1) 영어에서는 이미 다양한 영어 변종이 각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으므로 세계 영어(World English)의 개념이 나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식 영어만 편향되게 배움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황적륜(2000) 참고.

2.1. 표준 한국어의 지역 기준

표준 한국어의 설정을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하는가? 한반도 안에서 남북 간에 표준어와 문화어의 두 축이 대립되어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결정될 사항임은 분명하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치열한 이념전, 심리전(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남북 간에 한국어의 표준은 ‘서울말이다’, ‘평양말이다’라는 결정은 현재로서는 현재의 이념 대결 전쟁의 종식이 어떻게 나느냐에 달려 있거니와 대한민국으로서는 서울말이 만국 한국어의 표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표준 한국어 설정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아도 무정책의 정책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므로 국력을 배경으로 자연히 결정되기도 한다. 지난 20년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드러나므로 중국 조선족이 친북 정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는 서울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내 조선어과도 조중 우호로 북한과 교류하고 북한 편을 들면서도 배워야 할 한국어로는 평양말이 아니라 서울말을 택하고 있는 데서 언어의 경제적 논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통일 한국어는 정치 경제적 우위가 점할 수밖에 없다. 맞춤법, 표준어 선정,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와 같은 4법 규범 통일도 이러한 표준 한국어 설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2.2. 표기법 개정 논의의 공론화

한국은 그동안 민간단체인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의 규범 체제를 국어의 근간 규범 체제로 써 왔고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건국 이래 정부가 제정한 규범으로 지속해 왔다. 그러다 1980년대에 와서 ‘외래어 표기법’(198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 2000 개정)을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도 정부가 건국 후 최초로 제정 공포하고 이 체제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규범을 얼마나 국민이 준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규범 준수 능력은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글 맞춤법은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문맹률은 낮지만 까다로운 표기 혼동어들에 대한 오류는 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줄고(1995, 1996, 2001)에서는 맞춤법 측정 평균치가 50%에서 30%로 급감한 적이 있는데 최근 줄고(2009-)에서는 중학 1년생의 받아쓰기 측정에서 형편없이 낮은 어법 능력을 보여 주고 있어 규범 준수가 우려할 만한 상태이다. 이는 한글이 쉽다는 통념 때문에 규범도 쉬운 것으로 오해를 낳고 규범 교육과 규범 평가를 경시하는 국어 교육의 잘못된 풍토에서 기인한다.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 준수율은 더 낮은 편이라 국민 대다수가 이들 규범이 있는지도 모른다. 지식인들은 물론 언론인들, 공무원들조차 규정을 몰라 제대로 지키는

이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국어 규범은 모두가 제구실을 100%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규범 준수율이 높지 않은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다. 표기 규범이란 것이 어차피 알쏭달쏭한 혼동 표기 사례가 일정하게 있는 법이고 학자들끼리도 논란을 늘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100% 준수를 기대할 수 없고, 규범이 어렵거나 자세히 배워 익히지 않았거나 학자들이 만든 규범 안 자체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의 역할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 존재함과 같고 그럼에도 법이 필요하듯 언어 규범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가 보는 바로는 국가기관과 언론 출판 기관만이라도 어문규범에 따라 일관되게 공공언어(교과서, 공문서, 도로 간판, 언론 출판물 등)를 규범에 따라 지켜 주기만 해도 국민이 규범을 따르게 만드는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까다롭거나 세세한 규범 사항은 국민이 지키지 않는 것을 교육 계몽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제로 띄어쓰기 규정의 붙여쓰기 허용 복수 규정이나 표준어 규정의 복수 표준어 규정은 공공언어에서 원칙 준수의 사례만 보여 줄 뿐 일반에게는 규범에 원칙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 규범 교육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즉 복수 허용 규정은 일반에게 규범 준수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교육적, 강제적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처럼 세부 규정에서 복수 규정이 큰 구속력을 보여 주지 못함을 생각하면 남북 간에 표기 이질성이 보이고 재외동포들의 표기법 준수가 떨어짐은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다. 남쪽 규범도 제구실을 100% 만족스럽게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는 규범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복수 허용 규정이라도 그 원칙 사항을 교과서 같은 공공언어가 모범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에 그에 영향 받은 모범 국민은 존재하므로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정부 국가가 아닌 한 공공언어가 모범을 보여 줄 수 있는 원칙이 존재함은 늘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범 제정을 고민해야 하는 연구 집단은 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표준어 규범과 문화어 규범으로 남북 언어 규범이 다르게 존재함은 현재 한국어가 복수 표준어 규정을 가진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남쪽에서 복수 표준어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라고 보는 비판의 눈이 있더라도 원칙의 빛을 발하고 일정한 구속력을 교과서 등에서 보여 주며 존재 효과를 보여 주듯, 남북 언어의 소위 일부에 나타나는 이질성은 마치 남한에서 표준어 규정 26항의 복수 규정이 공존하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통일 한국어에서는 언중은 시장경제의 언어 동향에 따라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규범 준수의 방향이 공공언어 특히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따라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남북의 통일 한국어라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체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로 간다고 하면 남북 정부는 지방정부로 전락하고 상위 정부인 연방정부를

(4) 글자 이름

남북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홀자음 ‘ㄱ, ㄷ, ㅅ’의 이름과 겹자음 ‘ㄲ, ㄸ, ㅃ, ㅆ, ㅉ’의 이름이다. 한국의 글자 이름은 ‘기역, 디귚, 시읏, 쌍기역, 쌍디귚, 쌍비읍’ 등이다. 북한의 이름은 ‘기읍, 디읍, 시읏, 된기읍, 된비읍’ 등이다. 겨레말큰사전에서는 ‘ㄱ(기읍), ㄷ(디읍), ㅅ(시읏), ㄲ(쌍기읍), ㄸ(쌍디읍), ㅃ(쌍비읍), ㅆ(쌍시읏), ㅉ(쌍지읏)’으로 하였다. 이는 홀자음은 북한식대로 ‘이으’ 방식으로 통일하고 겹자음은 ‘된’ 대신 ‘쌍-’으로 하였다. (1)항처럼 남북이 상호 양보하여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 ‘훈몽자회(訓蒙字會)’ 방식의 ‘기역, 키읍, 디귚, 티읍, 시읏’과 같은 불균형 방식을 청산하였다는 점에서 발전적 사례라 할 만하다.

(5) 띄어쓰기

① 의존명사 띄어쓰기

한: 갈 바를 알 수 없다	한: 한 사람, 두 마리
조: 갈바를 알수 없다	조: 한사람, 두마리
겨: 갈 바를 알 수 없다	겨: 한사람, 두마리

이 경우도 한국처럼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명사는 북한식대로 붙여 상호 절충을 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도 한국의 띄어쓰기 원칙이나 북한의 붙여쓰기 원칙이나 그 어느 것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비칠까 우려된다. 원리 원칙이 없는, 원칙과 예외의 연합 병존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② 보조용언 띄어쓰기

한: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 버렸다
조: 가고있다, 읽게하였다, 오지않았다, 먹어버렸다
겨: 가고 있다, 읽게 하였다, 오지 않았다, 먹어버렸다

이 경우도 한국의 띄어쓰기 원칙, 북측의 붙여쓰기 원칙이 모두 일관성이 없어서 의존명사 띄어쓰기 합의안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방식이 되어 버렸다. ‘먹어버렸다’만 붙이는 방식은 유독 ‘-아’계 어미만 붙이는 것이라, 만약 시행된다면 한국 국민에게는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이 될 것이다.

③ 명사 연결체 띄어쓰기

한: 통일 대학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국가 건설 방향 설정
조: 통일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국가건설방향설정
겨: 통일대학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국가건설 방향설정

이 경우는 한국의 붙여 쓸 수 있다고 한 융통성 조항과 북한식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다음은 권재일(2008)에서 아직 남북 간에 절충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6) 사이시옷

한: 나뭇잎, 냇가, 낫병, 전셋집, 학꽃길, 장맛비, 북어국
조: 나무잎, 내가, 귀병, 전세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한국 제안: 나뭇잎, 냇가, 낫병, 전세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북한 제안: 나무잎, 냇가, 귀병, 전세집, 학교길, 장마비, 북어국

한국에서는 ‘등꽃길, 우웃값, 수돗물’처럼 3음절 이상에 과도한 사이시옷 표기가 늘어나 반발을 많이 사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1966)에서 발음 교육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폐지했다. ‘조선어 규범집’(1988)에서도 사이시옷 규정이 없지만, ‘셋별-새별(새로운 별)’, ‘비바람(비와 바람)-빛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처럼 의미상의 혼동이 있으면 이를 막고자 해당 단어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7)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권재일(2008)에서 밝히기를 남북 간에 ①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② 복수 표기를 인정하여 두 표기형을 올림말로 다 올리는 방안, ③ ‘ㄹ’ 두음과 ‘ㄴ’ 두음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었으나 절충이 어려웠다고 한다. 북측은 ④ 사회적인 충격이 큰, 빈도수가 높은 단어(약 120개)에만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①의 합리적인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토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8) 품사

품사 명칭 관련하여 문법 형태소는 ‘토’라는 범주로 단일화하고 ‘토’의 하위 범주는 따로 두지 않

는다고 한다. 다만, 뜻풀이에서 ‘조사’ 및 ‘체언토’는 ‘체언 뒤에 붙는 토’, ‘어미’ 및 ‘용언토’는 ‘용언 뒤에 붙는 토’로 뜻풀이한다고 한다.

(9) 외래어 표기

서로 같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단일화한다.

한국 것으로 앞 사례: 뉘앙스/뉴앙스, 마네킹/마네킨, 저널리즘/저널리즘, 라뒴/라디움, 매스컴/매스콤, 컨디션/콘디손

북한 것으로 뒤 사례: 러닝/런닝, 로봇/로보트, 알코올/알콜, 점퍼/잠바, 보닛/본네트

복수 표기로: 그룹/그루빠, 토마토/도마도, 에너지/에네르기, 컴퓨터/콤퓨터

이상과 같은 남북 어문규범 통합은 앞으로 어떻게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의 과정에서 곳곳에 논할 것이 많은데 이런 남북 간 연구 토론은 연구 역량을 위해서는 좋은 경험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규범 단일화를 서두르지 말고 이념적 어휘 성격의 명사류는 미루고 동사 사전, 형용사 사전, 부사 사전 등의 품사별 사전 기술만 먼저 추진하는 방안이 있으며 남북 방언 공동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거나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것부터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유용하리라 본다.

우리는 ‘언어는 변한다. 규범도 변한다. 규범은 국가 권위를 배경으로 할 때 힘을 받는다. 규범의 효용은 공공언어(교과서, 공문서, 언론 출판 자료, 공공 간판 등)에서 존속되면 성공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바뀌 말해 그런 기본적 공공성을 국가적 권위로 보장하지 못하면 규범 논의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거래말큰사전의 규범 통일 작업은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사업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므로 남북 사전 편찬의 과정에서 나올 규범 통일안은 대통령, 문화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가적 권한을 위임받을 때 힘을 받는다.

남북 간 기존 규범을 대체하기로 확실하게 남북 내부에서 남북 간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 부터라도 한국에서만이라도 규범 개정 작업 차원에서 규범 개정 논의가 공론화되고 이를 위해 북한 규범을 참고하고 남북 협의도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1991)이 정부의 지원으로 개정 작업을 해 오면서 그 도중에 1988년 어문 규정이 공포되었을 때 정부안을 따르지 않고 한글학회 자체 표기법으로 사전을 펴냈다가 그 사전이 사장(死藏)되었음은 정책과 현실의 판단에서 정책 연구자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남과 북은 사전을 편찬하는 기관과 주체가 다르므로 연구 역량이 상호보완적이다. 한국은 주로

개인이나 대학, 출판사가 주도하다 보니 보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상업주의를 고려하기 쉽고 사전의 연구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하여 과학원출판사에서 간행하므로 연구 성격이 집체적이고 국가 이념이 지배하며, 판매 부수에 구애되지 않아, 사전학적인 성취에 집중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편찬자 위주의 사전이 편찬되거나 지나치게 연구성 결과를 내보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홍종선 2009).

2.3. 표준어 규정 위헌 시비와 개정의 공론화

세계 표준 한국어를 설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표준어를 설정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표준어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정부의 표준어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준어 사정 원칙 총칙 1항(1988):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문화어²⁾란 말을 쓴다. 그런데 2006년에 표준어 규정이 시민단체로부터 위헌 소송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2009년 5월에 7:2로 합헌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흔하게 다루어 왔으면서 아직도 표준어 교육의 실체는 불분명하고 방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³⁾ 교육 과정에서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표준어 교육에 대한 실천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다민족(多民族), 다언어(多言語) 사회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표준어 교육이 그리 강조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기도 하여 2006년에는 표준어 규정 폐기를 위한 위헌

2) ① 조선어 철자법(1954) 총론 2항: 표준어는 조선 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이를 정한다.

②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려 나갈 데 대하여(1966):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표준어’로 하면 마치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략……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대로 고쳐 쓰는 것이 낫습니다.

③ <조선말 대사전>(1992) 문화어: 주권을 잡은 로동 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 계급의 지향과 생활 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사회주의 민족어의 전형으로서 전체 인민이 규범으로 삼는 문화적인 언어이다.

3) 표준어와 방언 간 의식 조사는 이정민(1981)에서 이루어진 바 있고, 표준어와 방언 교육에 대한 문체는 임철성(2001), 조규태(2003)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확인 소송이 ‘땃말두레학회’라는 시민단체(市民團體)의 학부모(學父母)들과 학생(學生)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표준어 규정의 “제 1 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방언 사용자들은 비교양인이라는 논리로 왜곡되므로 이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13일 변론을 거쳐 2009년 5월 28일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신문 보도 기사이다.

[현재, “표준말은 서울말” 합헌 결정]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교과서와 공문서를 표준어로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장 모 씨 등 123명이 낸 헌법 소원을 기각했다. 재판관 의견은 합헌 7, 위헌 2로 나타났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돼 있다.

현재 재판부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공문서 작성과 교과서 제작에 표준어를 사용하게 한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 재판관은 “‘서울말’이라는 기준만으로 표준어 범위를 정하고 표준어만 교과서와 공문서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지역말(사투리) 연구 모임인 ‘땃말두레’는 “국가 및 지자체가 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다.

- 조선일보 2009. 05. 28.

비록 7:2로 합헌 결정은 났으나 재판관 9인 중 2인은 표준어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는 것이 주목된다.⁴⁾ 비록 표준어 규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표준어와 방언을 명시적으로

4) 현재의 결정문을 요약한 부분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06헌마618. 사건명: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 확인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8조) 선고날짜: 2009-05-28 중독 결과: 각하, 기각.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녀들에게

구별하는 규정이 언어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앞으로 표준어 규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⁵⁾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발음과 표기의 혼동어들에 대해 규범을 정해 맞춤법 규정의 보완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표준어 교육에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국어 교육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므로 ‘세계 표준 한국어’를 보급한다고 할 때 표준어 개념과 내용은 새로운 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합헌(合憲) 결정(決定)에도 불구하고 2인의 위헌(違憲) 결정에 고무되어, 표준어 규정이 방언을 소멸시키고 방언을 비교양인(非敎養人)의 말, 품위 없는 말로 치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 문제의 비판론은 학계에서도 이태영(2006), 이상규(2007) 등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고 현재 심판 청구인 주장에서도 나타났으니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1912년 4월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고 한 것이 표준어 정책의 시초가 되어 반세기 동안 분단 시대를 통해 표준어와 문화어 체제로 남북 대립 상황도 낳고 있어 앞으로 통일 시대를 바라볼 때는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 정책을 폐기하고 용어도 ‘공통어(共通語)’로 바꾸어 공통어(共通語) 정책(政策)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일 시대를 대비해 남북 대결적인 표준어/문화어 개념에서 탈피하고 방언과 생활어들도 살려 써서 포괄적인 ‘공통어’ 중심의 다원주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한민족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서 공통어를 정한다”는 취지로 표준어 대신 ‘공통어’라는 용어를 쓰자고 주장하며 일제시대 이래 70여 년 지켜온 표준어 위

초·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거나,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문서를 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 청구인들은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 제1항과,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등이 청구인들의 행복추진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 5. 2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이하 ‘이 사건 표준어 규정’이라 한다),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중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부분, 같은 법 제18조 중 초·중등교육법상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 대상인 위 구 국어기본법 해당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라 한다)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결정문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 청구를 **각하**하고(전원 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7:2, 2인 재판관의 위헌 취지의 반대 의견)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5)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 제기는 새국어생활 2004년 봄호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주 정책을 공통어 정책으로 확대하여 통일·지방화 시대에 언중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공통어’로 바꾸면 언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서울말 중심 표준어 정책을 일제 치하의 산물로 보는 것도 오해가 아닌가 한다.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 4월 제정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경성어를 표준어로’ 한다고 한 것을 따라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로 했다면 이는 일제 정책에 순응한 것으로 곡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조선말대사전’을 만들고자 1929년 10월부터 준비 작업을 하고 맞춤법안, 표준어 규정을 만들면서 표준어의 개념도 서울말 중심으로 정하는 등의 항일 문화 구국 운동으로 준비해 온 것을 자칫 일제 통치 체제에 대한 순응과 계승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표준어 정책을 일제 통치의 산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한 논리이다.

일제가 경성어 표준말 개념을 설정한 것은 다민족 사회이었던 서구 근대국가들의 성립 발전 과정에서 국가 공용어를 정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어를 표준어로 설정함이 당연하였고 일본이 도쿄 방언을 표준어로 정하듯이 조선에도 적용한 것이라 하겠다.

문맹률이 높던 일제 하 상황에서 자주 독립의 교육을 장차 하려고 해도 민족 계몽을 위해 국어 교육은 시급하였고 이를 위해 한글 표기법 통일이 절실하여 주시경과 그의 정신을 이은 조선어학회가 표기법의 통일 제정을 추구하였으며 민간 차원에서 조선어학회가 하려던 것은 민족 근대화 과정에서 표준 문어 확립을 위해 정당한 것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공고화로서의 어문정책을 펼친 것이고 조선어학회는 민간 차원에서 조선의 독립 국가로서의 미래를 준비하며 민족 계몽의 언어정책을 민간 차원, 항일 독립운동 차원에서 벌인 것이다. 국가 체제에서 국민 소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표준 표기의 통일이 시급하여 그 통일된 표기법 체제로 사용할 가상의 이상적 언어를 인구가 많은 서울말 중심으로 결정하여 표준어라고 부른 것이다. 일제시대에 근대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는 어문 표기의 통일이 절실하였으므로 맞춤법을 만들고 어휘 표기 통일을 위해 표준어 정리 차원에서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표준어 규정도 아니고 단순히 사전 편찬용으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만들었던 것이 방언을 비하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

표준어 비판론자들은 표준어 정책이 방언 격하 정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표준어 정책에 대한 오해이다. 건전한 표준어 정책은 방언 보존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며, 방언의 발전 정책 역시 튼실한 표준어 정책 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의 표준어 정책은 방언 보존을 포함해 왔다. 일제 하에서 조선어학회원들이 방언 수집을 하여 ‘한글’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는 것이 이를 잘 보

여 준다.

표준어라는 용어 대신 쓰자고 제안된 ‘공통어’라는 용어는 아랍권의 아랍어, 남미권의 스페인어, 구 소비에트권의 러시아어처럼 문명 문화권을 묶는 통용어의 개념으로 보거나 다민족 언어 국가에서 지역적으로 대표 언어를 지역 공통어로 정하여 쓸 때 적합한 용어이다. 우리같이 단일 민족어에 대해 공통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설령 공통어라는 용어를 쓴다 해도 어차피 표준형은 정해야 하며 표준 없는 공통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교체 주장은 단순 대치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 ‘먼저(표준어) - 먼저, 먼침, 먼처, 먼침, 먼침’에서 공통어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갈구리(표준어) - 갈고리, 갈쿠리, 갈코리, 갈구지, 갈쿠지, 갈고랑이, 갈구랑이, 갈코장이, 갈쿠장이’에서는 공통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여기서도 결국 표준형을 정하는 일은 표준어라고 부를 때 정확히 힘을 얻으며, 이들에게 공통어라고 하여 공통형을 포착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표준 표기의 표준 문어를 확립하려면 표준어를 정하고 나서 전국으로 공통화하여 보급하는 것이 순리이다. 자칫 모호한 개념의 공통어 정책으로 인해 국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조선 어학회는 표준어 규정 사정 시에도 72명의 심의위원을 정하고 구성비도 반수에서 1명 많게 서울 출신을 배정하여 투표로 정하였으니 그 엄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권위 있는 민간 출판사나 대학의 사전을 권위 있게 인정하여 사전 출판 시 다양한 언어학자, 편집인 중심으로 논하여 어휘 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나치게 관 주도의 어문정책을 하고 있어 민간 자율 체제로 전환하고 어문 규정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어 어문 규정은 일제 하 구국 항일 문화 운동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고 한글 맞춤법을 배우기 쉽게 요약 정리한 기능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어차피 학교 교육에서 맞춤법을 가르쳐야 하므로 이 요약된 맞춤법 규정이나 표준어 규정으로 원리 교육을 하면 유용하므로 굳이 폐지할 것은 아니다.

사전을 민간 자율로 하더라도 각종 혼동어들이 표기, 발음, 의미 측면에서 나타나므로 이들은 협의체가 필요한데 민간이 그런 언어 통일을 주도할 힘이 나온다고 보기 어려워⁶⁾ 표기, 발음, 의미 기술에 대한 언어 사정만큼은 국가적 권위 있는 언어 사정 기구가 필요하고 그동안 국어심의회나 국립국어원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공통어 주장론에서는 표준어 개념이 지방어를 비하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오해이다. 표준어와 방

6) 두산, 금성 등 사전 전문 출판사들이 금년 봄 사전 편찬팀을 해체하여 이런 기능을 민간에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다. 민중서림도 사전 개정 작업을 보류중이라 한다. 인터넷에서 사전이 열람되므로 국어대사전은 매출이 1년에 500권도 안 된다고 한다. SBS 뉴스 2010.10.9.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사라지는 종이 사전> 뉴스 참고.

언은 공존 상생 개념으로 전혀 대립적인 것이 아닌데 방언권 화자들의 오해가 표준어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표준어 규정이 있지만 혼동 어휘의 표준 표기 공식 수준의 정책이 있지 서울말의 억양이나 표준 발음법까지 강요하는 표준어 정책을 시행한 적이 없다. 표준 문어 교육을 위한 혼동어의 표준 표기 제시 수준에 그쳤을 뿐이고, 표준어 교육을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학교들도 표준어 교육을 강조해 오지 않았다.

방언을 활용하지는 주장도 타당한 것이지만 표준어 규정 시대에도 방언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은 위축된 바가 없다. 그런데 방언을 발굴하여 활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향토 문학 작품, 생활어 속에 묻혀 있는 방언을 발굴 기술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일이지만 방언 학자가 귀하게 보는 만큼 언중이 모두 귀하게 방언의 어휘를 보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방언에 특유한 것은 그만큼 특정 방언에서만 특유하게 통용되므로 일반화시켜 표준어 목록에 올려도 다른 방언에서 통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 방언을 강제로 표준어나 공통어로 올려 강제 통용시키려는 것이 인위적이고 새로운 강요 현상이 될 수 있어 반발을 살 수 있다.⁷⁾

이상과 같은 표준어와 공통어 논쟁은 좀 더 치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혼동어들을 모아 과학적으로 사정하는 연구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려면 표준어 사정의 선정 기준이 명료히 나와야 하는데 현 규정을 개정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표준어 기준 선정에 대한 심화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방언 교육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⁸⁾ 구체적, 실천적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초등 5,6학년 때부터 표준어와 방언 교육을 요구한 교육 과정은 있지만 교과서에서 구현되는 것은 단편적이다. 방언 발음의 교정 지도, 방언 어휘 이해 교육, 방언 문법에서 지역별 높임법, 시제, 어미 등에 대한 이해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과 해결 탐구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가령, 각 지역 특유의 작가들을 찾아서 방언 작품들을 이해하거나 각 지역 방언의 친소 관계에 따른 높임법을 이해하고 각 지방의 고유 어휘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하오체, 하우체를 부모한테도 쓰는 방언권 화자가 있음을 생각할 때 이들 지역 주민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높임법 사용 실태가 그러한 만큼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것도 방언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7) 이상과 같은 ‘공통어’ 대안론에 대한 비판은 민현식(2008)에서 이미 밝힌 것을 여기서도 재인용하는 것이다.

8) 임칠성(2001), 조규태(2003) 등에서 논한 바 있다.

3. 남북 언어 통일의 시금석: 탈북민 언어 문제

3.1. 탈북민들의 실태와 언어 부적응의 문제

탈북 행렬은 1990년대부터 이어져 현재 2만 명 가까운 탈북 동포 시대가 열렸다.⁹⁾ 정부는 이들의 언어 적응 문제를 인식하여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들과 같은 다문화 문제로 접근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 탈북민들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람들이라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과 동일시 함은 그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¹⁰⁾ 탈북민들은 입국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부여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현재 탈북민들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탈북 주민 현황¹¹⁾]

□ 입국 현황('09 기준)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5,775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59	12,209
합계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7,984
여성 비율	7%	6%	23%	46%	55%	63%	67%	69%	75%	78%	78%	77%	68%

□ 연령별 유형(입국 시점 기준, '09.11. 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누계(명)	685	2,097	4,849	5,808	2,634	795	810	17,678
비율(%)	4	12	27	33	15	4	5	100

9) 탈북자 2만 시대가 열렸다. 8월 현재 1만9천569명으로 2007년 1만 명 돌파 후 3년 만에 두 배가 되었고 넷 중 셋은 여성이라고 한다. 국내 입국 탈북자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1138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2018명으로 2000명을 넘겼고, 2007년 2월 탈북자 1만 명 시대를 맞았다. 2008년에는 2809명, 2009년 2927명을 기록해 3000명 선을 육박하기도 했다. 탈북자 중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까지 50% 미만이었지만, 2007~2009년에는 77%로 증가했다. 또 20~30대의 탈북 여성이 전체 탈북 여성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 탈북자 2만 시대 '초읽기'(데일리 NK 2010.10.6일자 기사)

10) 탈북 동포들은 '새터민'이란 용어 사용도 반발한다. '북한 이탈 주민'이란 용어도 '이탈'은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의미가 있어 북한을 정상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용어가 되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여기서 '탈북 동포'나 '탈북민'이란 용어를 쓴다.

11)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 마당 참고

□ 지역별 거주 현황('09.11. 기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충남	대구	경북	충북
인원(명)	5,209 (30%)	4,232 (24%)	1,512 (9%)	715	598	545	524	482	475
지역	광주	대전	강원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인원	438	416	414	374	272	188	101	16,495명	

□ 재북 직업별 유형('09.11. 기준)

구분	무직 부양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및 공직원	계
누계(명)	8,602	6,955	360	385	162	664	550	17,678
비율(%)	48	40	2	2	1	4	3	100

□ 재북 학력별 입국 현황('09.11. 기준)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 이상	기타 (불상)	계
누계(명)	485	155	1,096	12,409	1,565	1,338	630	17,678
비율(%)	3	1	6	70	9	8	3	100

탈북민이 증가하면서 직업 훈련, 자격 취득, 취업 장려금, 학비 보조 등 탈북민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한국 사회 정착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탈북민 2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정착 과정 중 생활 형편을 묻는 질문에 탈북민 66%가 ‘어렵다’(48%) ‘매우 어렵다’(18%)라고 답했다. 개인 한 달 평균 수입은 77%가 최저 생계비(50만4344원)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구직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20%), ‘약간 그렇다’(43%)라는 응답으로 도합 63%로 높게 나타났다. 입국 초기에는 자신들을 받아준 정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탈북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우리는 당장 탈북민들이 잘 적응하도록 돕고 준비시켜 남북통일 시 예상되는 갈등을 미리 조사하여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겪는 부적응의 어려움에서 언어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탈북민들은 흔히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힘들었고, 중국에서는 공안에게 붙잡힐까봐 도망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여기 남한에서는 몰라서 힘들다.”며 남한에 대한 사회 문화적 지식의 부재로 인한 언어문화 충격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탈북민 언어 문제도 체제 적응 문제이므로 대체로는 한국 국민이 탈북 동포를 포용하는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탈북민이 적응하도록 언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한국 거주민들도 탈북민들을 포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남북 언어의 이질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동질성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탈북민 적응도 못 시키면서 거창한 남북통일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여기에 통일 비용 과다 공포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통일은 분단 비용 몇 백 배 이상의 축복을 한민족 남북 모두와 주변국에 가져올지언정 통일 비용 운운하며 과장된 공포감을 조성함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다.

금년에 국립국어원에서 탈북민 발음 교정 프로그램이 연구되어 공개되었는데 모음 발음의 교정 등이 잘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남북 언어 발음 차이를 ‘간장 공장 공장장은……’ 수준의 발음 교정만으로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수십 년 ‘오마니’로 하던 것을 ‘어머니’로 바꾸기가 쉽겠는가? 따라서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이 같이 어울리는 공동 대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발음 치료를 하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탈북민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받은 상처를 쓰다듬는 치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치료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남녘 형제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형제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방언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마음이 통하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듯이 마음을 트고 소통하는 노력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탈북민들도 표준어 학습 차원에서 다수의 언중과 소통하기 위해 품위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해 표준어 학습을 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3.2. 남북 불통 언어의 실상

남한과 북한의 표현 가운데는 그 뜻은 통하나,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 말을 끝낼 때 사용하는 어미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이어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북한과 차이가 나는 남한에서의 표현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2008)에

12) 데일리 NK 2010. 10. 6. 기사에서 인용

서 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한 바 있는데 표현이 이질적인 것에 주의를 요한다. 남북 어휘 차이는 남측에서도 복수 표준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탈북민들이 겪는 언어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상당한 수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정경일 2001, 문금현 2005, 2006 참고).

-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 두렵다. 전화 속에서 나올 외래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말 더듬는 증세 까지 생겼다.
- 아이가 중국에서 전화 온 것으로 인해서 아이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북한 출신인 줄 모르는데 들킬까 걱정이다.
- 옆집 사람이 우리를 탈북자라고 깎본다.

탈북 동포 문제를 초기에 연구한 정경일(2001)에 따르면, 언어 차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경험한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71.9%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신분 노출로 인한 인간관계의 악화, 동정적 인식, 금융 거래상의 불이익, 결혼 과정의 실패, 직장에서의 해고 등을 들었다.

같은 연구에서 정착 초기 남한 주민들의 말을 ‘전혀’ 또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 응답자가 44.8%에 달했으며, 그 원인으로 ‘생소한 단어’를 지적한 응답자가 33.9%, ‘발음과 억양’이 27.4%, ‘의미 차이’가 19.6%이었다. 이때 생소한 단어로는 외래어와 한자어, 다른 사회 문화 체제에 기인한 낯선 단어 등을 꼽았으며, 외래어 특히 영어로 인한 어려움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금현(2006)의 조사에서는 남한어 배우기가 어려운가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 26%, 별로 그렇지 않다 33%, 그렇지 않다 15%, 그렇다 15%, 매우 그렇다 11%로 나와 48%가 적응 가능한 것으로 답하였다. 탈북민들은 다음과 같은 언어 적응 문제에서 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1) 발음 억양 교정을 원한다.

탈북 동포의 발음 특성(북한어 발음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으’를 ‘우’처럼 발음한다. 즉 목공 도구 ‘끌’을 식품 ‘꿀’처럼 발음한다.

② ‘어’를 ‘오’로 발음한다. 즉 ‘어머니’를 ‘오마니’처럼 발음한다.

어머니-오마니 언 감자-온 감자 고라거리 불-벌 소리-서리 섬-숨

③ ‘이’를 ‘의’로 발음한다. 즉 ‘시장’을 ‘식장’처럼 발음한다.

④ 구개음화가 안 된다.

만이[마디], 발이[바티], 묻히다, 미닫이, 해돋이, 붙이다, 턱받이, 끝이, 곧이, 굳이

⑤ ㄹ 첨가가 표준어와 달리 나타난다. 즉 술잎[술립]을 [소립]으로 발음하고 절약[저략]을 [절략]

으로 발음한다.

ㄴ 첨가: 한여름, 꽃잎, 솜이불, 나랏일, 콩엿, 막일, 맨입, 업신여기대업씬녀기대, 베갯잇

ㄴ 비첨가: 첫인상, 권유, 힘 있다, 땅입자

⑥ 두음법칙이 남한과 다르다:

락성대, 로동, 력사, 룡꿈, 녀자, 녘원, 육체 로동, 지상 락원, 나렬, 규률, 독려, 식량

⑦ 북한 동포들은 대체로 높거나 빠르게 말한다. 남북한 간의 억양 차이 때문에 탈북민들 (함경도 출신 등)이 남한 사람들로 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함경 방언의 억양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억양이 반복되어 강하고 드센 인상을 준다. 더구나 함경 방언은 평안 방언이나 표준말에 비해 말 속도가 무척 빠르다. 이는 전체적인 발음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있지만,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한숨에 붙여 말하는 때문으로 남한 사람들로 부터 왜 화내는 말투, 짜증내는 말투로 얘기하느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2) 이질적 어휘 학습을 원한다.

문금현(2003)에서 남북 간 어휘의 이질적인 것을 연구한 바 있는데 ‘효도, 안녕, 우체국, 친정’ 등과 같은 쉬운 어휘를 모른다고 한다. 국립국어원(2008)에서 수집한 어휘 오해나 불통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아이 뭐 가지가지로 많이 하십니다.
- 일 없습니다.
- 무슨 말인지 알만 하지요?
- 안녕하시오?
- 지내시라요.
- 서울에는 가도 못 봤습니다. (북)
서울에는 못 가 봤습니다. (남)
서울에는 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남)
- 날씨가 더워나다 보니까 즐리다. (북)
날씨가 더워져서 즐리다. (남)
- 북한에서 이런 말을 세계 씩니다. (북)
북한에서 이런 말을 자주(많이) 씩니다. (남)
- 다리야 날 살려라. (북)

- 걸음아 날 살려라. (남)
 - 종잇장도 맞들면 가볍다. (북)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남)

남북에서는 같은 속담을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사돈 남 나무란다.
 (북) 알아들을 수 있게 빗대놓고 한 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이 응당 그렇다고 맞장구를 친다는 뜻으로 눈치가 무딘 사람을 비겨 이르는 말.
 (남) 자기도 같은 잘못을 했으면서 제 잘못은 제쳐 두고 남의 잘못만 나무란다는 말.

- 가는 날이 장날이라.
 (북) 우연한 기회에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을 만나게 된 경우를 비겨 이르는 말.
 (남)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일한 한자어를 남북이 다르게 읽는 경우가 있고(標識: 표자-표식 / 歪曲: 왜곡-외곡) 어휘가 달리 쓰이기도 한다(보증하다-담보하다; 가출-탈가). 말다듬기를 하여 바뀐 사례도 있다(각선미-다리매; 가로수-거리나무; 가발-덧머리).

의미가 달라진 경우도 있어 ‘바쁘다’는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도 쓰이며 ‘믿음’ 같은 단어는 북한에서 생소하다고 한다. ‘늪은이, 불구자’는 남쪽에서는 의미가 타락하여 가급적 쓰지 않고 ‘어르신, 장애인’으로 고쳐 쓰고 있으니 이런 경우는 학습하여 고치는 수밖에 없다. 다음 사례는 전혀 다른 뜻인데,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국립국어원 2008: 90-129).

뜻	북한말	남한말	뜻
자주 있다	드문하다	드물다	흔하지 않다
키나 목이 짧지 아니하고 시원스럽게 길다	설렁하다	썰렁하다	서늘한 기운이 있어 조금 추운 듯하다
가깝고 살뜰하다	참참하다	착착하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복잡하다
(아이가) 푹푹하다	꿀꿀하다	꿀꿀하다	마음이 우울하다
대충하다, 얼버무리다, 넘어가다	굵매다	굵뜨다	매우 느리다

(3) 문장, 담화 표현의 오해를 두려워한다

함경도 출신 탈북민의 경우, ‘합쇼’체와 구별되는 ‘해요’체의 대화 상황 선택에 대해 어려워한다. 높임법 ‘-사’를 많이 쓴 북한 주민에게는 이상하다고 한다. 남한에서 ‘식사하셨습니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식사했습니까?’라고 한다. 북한에서 함경북도 쪽은 특히 ‘-요’를 안 쓴다고 한다. 아랫사람들이라도 반말하기는 주의해야 하는데 북한인들은 이에 익숙하지 못하다. 탈북민들은 언제 ‘-하세요, -해요’ 해야 하는지 모르며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상대를 높이는 말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윗사람에게 사용되는 청유문 ‘-하십시오’가 남한에서는 동료나 동년배에게만 사용되고, 북한에서는 아랫사람에게 쓰는 명령문 ‘-해라’가 남한에서는 ‘-해’로 대응된다. 남녘 동포들에게서 ‘말투가 직설적’이라고 지적받으면 잘 이해 못하고 두려워한다고 한다.

탈북민들은 ‘길을 물어야 하는데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어찌지?, 면접시험을 볼 때 북한 말씨가 불리하게 작용하면 어찌나?’와 같은 걱정을 한다. 남한 사람들의 완곡한 거절, 간접 화행의 언어 방식을 탈북민들은 이중적 언어 행위로 생각하여 오해를 하게 된다. 반대로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이 직설적이라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며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양수경 2009). 문금현(2006)에서도 화행상의 오해가 많이 보고되었으니 탈북민들은 인사, 감사, 칭찬, 사과 화행이라든가 요청, 거절 화행에 서툴다. 북한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져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나 ‘죄송하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잘못했다’라는 말이 더 잘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은 탈북 동포들의 불안을 씻어주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탈북 동포들도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정착,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리적 위축감을 버리고, 나도 표준어를 배울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발음 교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면 된다. 더욱이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의 학교생활을 통해 쉽게 고쳐 나갈 수 있다.

정경일(2001)에 따르면, 남북한 언어 차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게 되기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56.8%가 2년 이내에 언어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금현(2006)에서는 정착 기간별로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에서 18개월, 19개월 이상의 네 그룹(총 피험자 30명)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언어 적응에 2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재외동포의 언어 문제

4.1. 재외동포의 개념과 재외 국민 교육 실태

1997년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면서 재외동포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국적 불문하고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하였다. 이는 ‘국적을 상관하지 않고 해외 거주하는 한민족’을 재외동포로 본다는 것이다(최기수 2010:17). 이에 속하는 사람은 한국 국적 재외 체류자나 외국 영주권자이고 외국 국적 한민족(2,3,4,5세), 즉 이주 동포로 현지 귀화자들이다.

진동섭(2006)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재외동포의 구분]

	1차 구분	2차 구분	소지 국적	영주 의사	일상 용어
재외동포	재외 국민	일시 체류자	한국	일시 체류	체류민
		영주권자	한국	영주	교포 또는 동포
	외국 국적 동포	시민권자	거주국	영주	

현재 한국은 재외동포가 170여 국가에서 700여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다(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통계 자료실 참고). 이들에게 모국어나 모어를 유지시켜 주는 재외 국민 교육은 다음 기관들에서 수행되고 있다.

- ① 국외 교육: [정규]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주말) 한글학교
현지 학교의 이중 언어 학급, 민족 학급, 방송 통신 교육, 계절 학교 등
- ② 국내 교육: 국제교육센터, 재외동포재단, 귀국자 적응 교육

재외 교육 기관으로 한국학교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과 교육기관 통계 참고).

- 한국학교: 15개국 30개 한국학교가 있고 11,000명이 재학 중이다(일본 4개교 72학급 2050명, 중국 10개교 238학급 5466명, 베트남 2개교 56학급 1379명, 인도네시아 1개교 41학급 1075명, 사우디 2개교 12학급 27명, 이란 1개교 6학급 27명 등)
- 한국교육원: 14개국 34개 한국교육원이 있다.
- 한글학교: 110개국 2100여개 한글학교에 12만 명이 재학 중이다.

재외동포가 700만이나 되는데 정규 교육 기관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을 합하여 60여 개인 것은 매우 빈약한 규모이다. 특정 국가에 편재된 점도 문제이다. 이들 교육 기관에 파견하는 공무원 수도 100여 명 수준이라 일본의 해외 파견 교육자가 1200여 명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규모이다. 우리가 해외 체류하며 살 때에 민족 자존심이 부족하고 단합이 어렵고 분열적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유대인과 중국인의 민족교육을 참고하여 민족 개조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해외 한국학교, 주말 한글학교의 당면 과제는 교육 목표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해외 한국학교(국제학교)의 교육 성격은 현지 교민들의 요구에 맞추면서 원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목표 인간형은 네 가지 정체성을 길러 주어야 한다. 세계인, 국가인(국민), 민족인, 지역인(향토인)으로서의 자아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여기에 다음 목표가 주어진다.

교육 목표

- 인간 교육: 세계인, 국가인(국민), 민족인, 지역인(향토인)
- 뿌리 교육: 민족 이해 교육, 정체성 교육
- 본국 연계 교육 과정 교육(모국어, 모어, 귀국 대비 적응 교육)
- 현지 연계 교육 과정 교육(현지어, 현지 적응 교육)
- 국제 교육: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적응 교육

영주권자 자녀에게는 뿌리 교육 차원에서 모국 이해, 현지 적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시 체류자라면 귀국 적응을 대비해 본국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지도자 육성을 위해 국제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 개방, 독창성을 기본으로 학습자 유형에 따라 위 목표가 탄력적으로 혼합되어야 하며, 교재 구성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한국학교의 요구 사항을 진동섭(2006:11 표8)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표 8〉 향후 교육 과정 운영 방향에 대한 요구

지역	본국연계 교육강화	현지적응 교육강화	모국어해 교육강화	국제학교 전환	기타	무응답	계
일본	21(16.3)	29(22.5)	34(26.4)	26(20.2)	8(6.2)	11(8.5)	129(100)
중국	22(25.3)	17(19.5)	5(5.7)	29(33.3)	7(8.0)	7(8.0)	87(100)
아주	21(18.9)	10(9.0)	12(10.8)	57(51.4)	3(2.7)	8(7.2)	111(100)
북미	-	1(100)	-	-	-	-	1(100)
CIS	2(7.1)	11(39.3)	6(21.4)	8(28.6)	-	1(3.6)	28(100)
중남미	-	-	-	6(100)	-	-	6(100)
아/중동	5(29.4)	-	6(35.3)	4(23.5)	1(5.9)	1(5.9)	17(100)
계	71(18.7)	68(17.9)	63(16.6)	130(34.3)	19(5.0)	28(7.4)	379(100)

이러한 교육 과정의 개발은 어느 한 가지 목표뿐만 고착할 수 없고 위 목표를 혼합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해도 그들이 현지어를 익혀 적응하려면 현지어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여 집중 이수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2학기 4분기제나 핀란드의 6주 7분기제, 7주 5분기제 같은 제도 개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 방송 통신 교육의 확대, 초중고용 표준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학교들은 시설 투자를 위해 재정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한국 정부의 파견 교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지 교사의 국내 교류, 학생들의 모국 연수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인턴 파견 실습 제도도 이루어져 젊은이들의 해외 진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KOICA 파견 등).

다음으로 한글학교의 학부모 요구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진동섭 2006:16 표13).

한글학교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갖추는 것이 과제이고 이들을 위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13〉 한글학교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본국 지원 내용 (단위: 명/괄호 안은 %)

지역	현지에 적합한 교재 공급	체계적인 교원연수	재정 지원	학생 모국 방문지원	무응답	계
일본	11 (50.0)	4 (18.2)	4 (18.2)	2 (9.1)	1 (4.5)	22 (100)
아주	-	1 (100)	-	-	-	1 (100)
북미	2 (28.6)	4 (57.1)	1 (14.3)	-	-	7 (100)
CIS	5 (50.0)	3 (30.0)	1 (10.0)	-	1 (10.0)	10 (100)
유럽	-	-	3 (100)	-	-	3 (100)
중남미	1 (33.3)	-	2 (66.7)	-	-	3 (100)
계	19 (41.3)	12 (26.1)	11 (23.9)	2 (4.3)	2 (4.3)	46 (100)

이민자 적응 유형을 통합, 동화, 분리, 소외의 네 유형으로 나눌 때(줄고 2009¹³) 재외동포는 귀화자나 영주권자, 단기 체류자 등 다양한데 그들에게 정체성 교육을 통해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지에 ‘소외, 고립’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중 언어자로서 살 수 있도록 ‘통합’ 유형의 이민을 지원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의 귀화 외국인 정책도 한민족 구성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듯, 재외동포 지원도 그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통해 한반도 통일 정세 조성에 기여하게 하고, 이중국적을 활용해 양국 간의 경제 교량 역할을 도모하고 한상(韓商) 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부모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익히면서 한국 문화, 한민족 문화의 국제화 및 두 문화를 융합시켜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 재일교포의 경우는 일제 때¹³⁾에 비해 줄었으나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특별 영주권자가 1만여 명씩 줄고 있는데 이는 귀화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재일교포 영주권자 수의 변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일반영주권자	31,955	34,624	37,121	39,807	42,960	45,184
특별영주권자	507,429	495,986	485,180	471,756	461,460	447,805
계	539,384	530,610	522,301	511,563	504,420	492,989

일본의 2005년 국세(國勢) 조사에서 총인구 127,767,994명인데 외국인인 2,011,555명으로 1.6% 비율이고 한국/조선인은 598,687명으로 외국인 수의 29.8%를 차지한다(최영호 2008:93).

4.2. 이주민(移住民)의 시대와 민족 정체성¹⁴⁾

고전적 접근의 민족 정체성 논의는 민족 계통론, 민족성론, 민속 생활론, 민족 종교론, 역사 의식론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할수록 다민족을 묶는 연결 고리는 ‘민족(民族)’ 중심 논의가 아니라 ‘국가(國家)’ 중심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개인의 정체성의 기준을 논하려면 다음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재외동포들에게나

13) 최영호(2008)에 따르면, 내무성 경보국 통계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재일 조선인은 다음의 변화를 보인다: 1911년 2,527명-1917년 14,502명-1924년 118,152명-1940년 1,190,444명.

일본 정부 국세(國勢) 조사는 이보다 많아 1930년 419,009명 1940년 1,241,315명으로 나온다. 1944년 말 재일 조선인은 1,936,844명이며 1939~1944년 5월까지 징병자 수는 88,241명이라 한다.

14) 이 부분은 주로 줄고(2010)에서 상론한 내용을 인용한다.

외국인들에게 문화 교육에서 고려할 교수 요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민족의 정체성 요소]

- (1) 언어적 정체성[언어관]: 한국어가 한민족 및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준다.
- (2) 민족적 정체성[민족관]: 단일 배달겨레 의식을 가리킨다. 삼국시대에는 분쟁으로 동족 의식은 없었으며,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민족의식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 (3) 의식주(衣食住) 생활 정체성[민속관]: 백의민족·한복 문화의 의생활, 쌀밥·김치·된장 같은 식생활, 온돌·기와집 같은 주생활(주거문화) 정체성을 가리킨다.
- (4) 국민성(국민 의식) 정체성[가치관]: 긍정적 국민성(교육열, 정(情), 체면, 자존심, 명분)과 부정적 국민성(분파주의, 사대주의, 무인(武人)/상인(商人) 천시, 관준민비(官尊民卑) 양반 문화, 혈연/지연/학연 집착 문화)가 있다.
- (5) 종교적 정체성[종교관]: 한국인의 종교 전통으로 유교(삼강오륜, 조상 숭배), 불교(극락왕생), 기독교와 천주교(인간 타락과 구원), 도교, 무속(사머니즘, 팔자(八字) 운명론) 문화가 대표적이다.
- (6) 역사적 정체성[역사관]: 역사적 사건(6.25 전쟁, 4.19 세대, 70년대 유신 세대, 80년대 5공화국 386세대, 6.29 세대 등)에 대한 체험 여부에 따라 민족, 세대, 계층, 지역, 성별, 계층간에 동질성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 (7) 국가적 정체성[역사관]: 이는 현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국가 구성원들의 의식으로 역사적 정통성과 동질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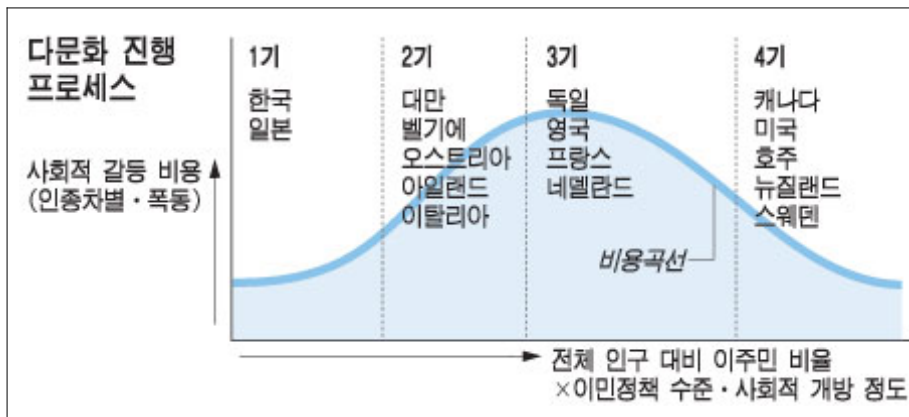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문화는 단일한 특성 안에 간혀 정체(停滯)되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 문화와 교류하며 나아갈 때 발전하고 다양해진다. 우리 민족은 각종 외침에 시달리면서도 대륙문화(大陸文化)인 중국의 한자 문화를 받아들여 반만 년 동안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고, 개화기 이래로는 해양문화(海洋文化)인 일본과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국을 오늘날 10위 안팎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개화기에 대원군이 쇄국정책으로 나아감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아직도 분단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때 개인이나 민족이나 소속 공동체의 폐쇄와 개방이 몰락과 번영의 운명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7년 8월로 한국 거주 외국인이 100만을 돌파하여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적인데 2010년 3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인 1,180,598명(합법 1,002,435명, 불법 178,163명)에 이르며 중국인이 56만 3천, 미국인이 12만 8천, 베트남인이 9만 2천, 일본인이 4만 5천여 명에 이른다.¹⁵⁾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 현상은 유학생의 경우 한국의 국력 성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는 결혼 시장과 국내 고용 시장의 왜곡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과거의 이민은 여성이 남편과 가족을 따라 이동하여 수동적이었는데 이제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이주민 유입 현상은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 노동 구조의 변화로 외국인이 유입되었다. 미국은 1988년에, 캐나다는 1989년에 2만 달러 소득을 넘기면서 이민이 급증하였으며 다른 나라들도 그러하다고 한다. 다음 도표는 이러한 소득 변화에 따라 이민자 문제, 사회적 갈등을 거친 나라들의 단계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제1기에 진입하여 앞으로 다문화 사회 문제를 격심하게 겪을 것이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¹⁶⁾



이주민들이 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이중 언어 문제가 발생한다. 제2언어 학습자가 이중 언어 환경에 적응하는 사회화 단계를 특별히 문화 적응화(문화 변용, 문화 접변, acculturation)라고 한다. 문화 적응화 이론에 따르면 문화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태도는 자기 문화와 타자 문화에 대한 인식의 태도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한다.

15)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www.immigration.go.kr 자료실의 ‘자주 찾는 통계’ 참고

16) 매일경제 2008. 2. 5일자 <소득 2만 달러 넘은 한국, 이젠 이민 수입국> 기사 참고

		나의 문화 정체성과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렇다	아니다
다른 민족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paration)	소외(주변화, 변방화) (Marginalization)

- ① 통합: 자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 민족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② 동화: 자기 민족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 민족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③ 분리: 자기 민족 정체성만 유지하면서 타 민족과의 관계는 부차적이다.
- ④ 소외: 자기 민족 정체성도 유지하지 못하고 타 민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① ‘통합’ 유형은 자기 민족성도 유지하고 거주국 국민으로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가장 이상적이다. 전 세계 900만 유대인이나 전 세계 5,500만 중국 화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의 모델도 이들 민족이라 하겠다. 전 세계 정통 유대인들은 모국 이스라엘에 전쟁이 생기면 자원해 참전하고 평시에도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선조의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군에 자원 입대하거나, 휴가 기간에 군대 단기 복무, 공동체 집단농장 체험 등을 함도 이런 유대인 특유의 민족 교육 덕분이다. 화교도 화교학교를 중심으로 민족 교육이 활발하다.

② ‘동화’ 유형은 미국의 용광로 정책(melting-pot model)처럼 이민자의 모국어를 소멸케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거주 국가로서는 긍정적이다. 전 세계의 대부분 이민자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동화를 겪는다.

③ ‘분리’ 유형은 분리 독립 운동이나 분쟁, 내전을 겪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1국 다민족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캐나다의 퀘벡주 분리주의 운동, 북아일랜드의 신교구 분쟁,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반군, 러시아 내 민족 분쟁 등 분리주의 운동 지역이 이에 속한다.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게토(ghetto)화 현상도 이에 해당한다.

④ ‘소외’ 유형은 자기 민족 정체성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타 민족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미국 내 인디언 보호 구역 거주민, 남미 인디언, 호주 원주민, 뉴질랜드 마오리족, 일본 아이누족, 기타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소멸되어 가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에 해당된다.¹⁷⁾

그런데 위의 유형 분류는 명료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즉 해외 유대인들도 모두 ‘통

17) 이상의 이민자들의 적응 여부 유형과 이민자 정책에 대한 상론은 졸고(2009) 참고

합' 유형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유대인들 중에도 역사적으로 히브리어와 정통 유대교를 지키지 않고 동화된 경우도 많다. 중국의 56개 민족어도 92%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을 제외한 8%의 소수 민족들에게서 공용어인 보통화(普通話)와 민족어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고(조선족, 몽골족 등), 분리 독립 운동으로 '분리' 유형을 보이는 경우(신장, 티베트)도 있으며, 만주족처럼 '동화'된 경우도 있다.

위 네 가지 유형을 제외 한인 사회에 적용하면, 재일·재중·재러·재미 동포들 중에는 적극적, 또는 자연적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지리적으로 집단 거주를 하고 있는 재중 동북3성 지역 동포들이 '통합' 유형에 속하는데, 최근 이 지역도 동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중앙 지역(북경, 상해 지역)으로의 이주로 점진적 '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재러 사할린 동포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의 집단 주거 지역, 재미 LA 지역 한인 일부에서도 '통합' 유형을 보이기도 하지만 '통합' 지역도 장기적으로는 동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라마다 이민자 정책도 다양하여 프랑스는 '용광로 동화주의' 내지는 '쌍방적 통합 모형'을 보이는데(설동훈 2009) 관용(tolérance)과 정교(政敎) 분리(分離)(laïcité) 정책으로 유명하여 외국인 천국인 프랑스도 결국은 프랑스 시민으로 만드는 동화 정책을 본질로 하고 있다. 개인별 동화이므로 장기적 민족 다양성 보장 정책은 아니다. 최근 이슬람의 종교적 권리 주장에 대해 프랑스가 이슬람의 요구를 거부하고 냉정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동화를 거부하는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통제라 볼 수 있다.¹⁸⁾

반면에 캐나다는 1968년에 영어, 불어 공용어법을 공포하고, 1970년대부터 모자이크(Mosaic) 정책으로 비유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88년에는 다문화주의 법령을 공포하였고, 정부가 이민

18) 유럽에서는 오늘날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인구 증가율이 백인계 원주민의 인구 증가율보다 서너 배는 높아 큰 갈등이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슬람계의 인구 증가율이 높아 리비아의 카다피는 “전 세계는 가만있어도 이슬람화한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이다. 다음 두 기사 참고

① 연합뉴스 2010. 2. 3. 보도 <프랑스 정부, 베일 금지 착수>. 프랑스 이민부는 프랑스인 부인에게 이슬람식 베일 착용을 강요한 모로코 출신의 무슬림 남성이 신청한 시민권 심사를 거부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2010년 2월 3일 보도했다. 이런 조치는, 의회의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에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프랑스에선 2004년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의 히잡(머리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

② 중앙일보 2009.12.3. <이슬람 침탈 금지에 유럽이 시킬 “더 이상 못 짓는다” 스위스서 국민 투표 통과>. 이슬람 사원의 침탈(미너렛)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한 법안이 11월 29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57.5% 찬성으로 통과된 이후 유럽에서 이슬람과 우파간의 종교 차별 논쟁이 뜨겁다. 벨기에 극우 정당인 블람스 벨랑(VB)과 네덜란드의 '자유를 위한 정당'도 스위스와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주장했다. 에벨리네 비드머 슬룸프 스위스 법무장관은 미너렛 금지안 통과가 “이슬람 근본주의 경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내 무슬림 인구는 5000만 명으로 2015년엔 1억 명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의 모국어 보존을 적극 지원 개입하여 분리주의 운동을 예방하는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방임하면서 캐나다처럼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민자들에게 표준 영어를 강요하는 동화주의 이민 정책인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민자와 흑인 문제, 이민 청소년층의 범죄화 등 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생겨 문화적 다원주의 관점에 따라 이민자의 언어문화를 보존해 주는 다문화 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샐러드 볼(Salad Bowl) 정책으로 비유한다. 1968년에 ‘이중 언어 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을 개정하여 이민자 언어와 문화를 보존해 주고 공존하게 함도 그런 이유이다. 샐러드 볼 정책은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하는 것으로 다인종 사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인종 분규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하여 용광로 정책과 샐러드 볼 정책을 절충한 스투 이론(Ethnic Stew Theory)을 내세우기도 한다. 스투 이론은 주성분이 녹는다는 점에서는 용광로 이론과 같으나 스투 각 성분이 각각의 맛을 낸다는 점에서 샐러드 볼 이론과 같다.

인위적 언어 말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므로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 정책에서 과거에는 동화주의를 펼치다가 오늘날에는 이민자 언어를 보존하는 태도로 전환하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도 장기적으로는 동화를 예상하되 강제적 용광로 정책보다는 단기적 통합을 고려하여 미국의 샐러드 볼 정책이나 절충적 스투 정책, 캐나다의 모자이크 정책, 프랑스의 동화 정책에서처럼 절충적인 ‘통합형 동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정체성을 단기적으로는 보존하는 정책을 취하되, 장기적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무한정 보장해 주면 그에 따른 민족적 요구가 커져 언어 교육, 시민 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민족 분규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통합’ 유형이 ‘분리’ 유형화하여 민족 분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예방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4.3. 한국의 이주민 유형과 정책 방향

오늘날 ‘다문화’라는 용어가 쓰이고 법률에도 등장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긍정하지만 이 용어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을 2류 국민처럼 대우하는 현상이 나타남은 정부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이에 일조한 때문이 아닌지 반성을 요한다. 특히 국제화가 덜 되고 이민족과 공생한 경험이 적으며 더 높은 선진 국민 교양이 요구되는 우리는 정부가 이주민들에 대해 조용히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므로 특정 계층을 차별할 수 있는 용어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용어나 ‘다문화 정책, 다문화 교육’과 같은 용어는 쓰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로 일부 현상이나 개념이나 써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구별해 지칭·호칭하는 합성어인 ‘다문화 가정, 다문화 부모, 다문화 자녀’ 같은 용어는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차별적 명명으로 기능하므로 사용을 삼가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이 와서 살게 되는 것이 다문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가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용어로 전략하게 되어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퍼뜨리는 것은 잘못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에서는 다양한 종족이 살다 보니 이런 용어로 국가 교육을 구상하고 설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multiculture’라는 용어를 학문적, 개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곳의 현실에는 맞는 용어이지만, 단일민족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는 용어로 보기 어려우므로 용어의 남용과 인종 차별화가 우려되어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 용어는 우리나라의 각 외국인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개념이 부정확한 용어이다. 외국인 부부 가정은 다문화가 아니고 단일 문화 가정이고, 이주 여성 가정은 2문화 가정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귀화도 생각하므로 다문화 가정으로 볼 수 없다.

우리는 이주민의 급증으로 이중 언어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중 언어 사용자를 배려하고 모국어 정체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주자는 한국어이든 외국 현지어이든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표준 한국어의 확립과 발전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속에서 국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해 한국어의 문법 기술이 정밀화해야 하고 모범적이고 표준적인 한국어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표준 한국어(Standard Korean) 또는 세계 한국어(World Korean)의 실체를 보여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 영어(World English)를 주창하는 것과도 상통하는 논리이다.¹⁹⁾

표준 한국어는 서울 표준어를 기반으로 함이 당연하지만 표준 한국어는 표준어를 기반으로 방언대조 문법을 구축하고 생활 언어 지도와 교육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기술이 정밀하게 이루어지면서 북한어, 재외동포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중동포어(동북 3성 조선어), 재러동포어(고려말), 재일동포어, 재미동포어 등의 다양한 모습이 국내 방언 조사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어 연구도 활성화하고 한국어의 미지의 모습도 밝힐

19) 황적륜(2000)에서는 영어 사용 국가가 많다 보니 영어의 변종이 많아지면서 세계 표준 영어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어도 재외 국민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변종이 형성되어 세계 표준 한국어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 있어야 한다.

‘표준 한국어’ 운동은 ‘표준 문법’ 수립과 관련된다. ‘표준 문법’ 수립이 이루어진 후 표준 문법의 교육 문법 방안이 나올 수 있고 구체적 교수 학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표준 문법이 있는가?

표준 문법은 누가 만드는가에 대해 아직 명료한 개념이 없다. 현재는 ‘고교 문법’ 교과서, ‘중학 생활국어’의 문법 단원이 규범문법의 실체이다. 그러나 국어 규범문법을 심화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고교 문법’ 이상으로 공식화한 것은 없다. 단지 1984년 고교 문법 통일을 기초한 연구자 남기삼·고영근(1985)의 ‘표준국어문법론’이란 교재가 교육 기관들에서 연구자들에게 표준 문법의 지위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이는 표준 문법이 민간 차원에서 권위가 붙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분류 체계에서 ‘-거라’ 불규칙 설정 문제, 부사형 어미 설정 문제는 논란이 있으며 국정 ‘고교 문법’(2001)에 와서는 이들 사항을 개정하였는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 옛날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거라’ 불규칙 문제를 보자.

최현배, 우리말본(1937, 1975: 344)

‘거라’ 벗어난 움직임이란 …… 시킴꼴의 씨끝이 ‘-아라’나 ‘-어라’가 아니요, ‘-거라’인 움직임을 이름이니라.

(ㄱ) 가다, 나가다, 돌아가다, 들어가다, 넘어가다, 물러가다, 장가가다, 시집가다, 엇나가다, 값나가다

(ㄴ) 나다, 축나다, 빛나다, 벌나다, 덧나다, 서슬나다, 탈나다, 혼나다

(ㄷ) 자다

그동안 최현배(1937, 1975)에 따라 학교문법은 ‘-거라’ 명령형을 ‘가다, 나다, 자다’ 등 일부 ㅏ 모음 어간의 용언에만 붙는 것이라 하면서 불규칙으로 해 왔고 대부분의 국어학 학문 문법서의 기술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위의 최현배의 기술은 비현실적 기술을 하고 있어 근본부터 문제를 보인다.²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라’가 위 ‘가다, 나다, 자다’ 류 용언 이외의 용언에도 일반화하여 ‘있거라, 보거라, 먹거

20) ‘우리말본’의 이 용례에는 용례 제시부터 문제가 있다. 동사 명령형으로 잘 쓰이지 않거나 불가능한 자동사류인 ‘엇나가다(자), 값나가다(자), 축나다(자), 벌나다(자), 덧나다(자), 혼나다(자)’나 관용구인 ‘서슬나다(구), 탈나다(구)’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가다’와 달리 행위 명령이 불가능하다.

라……’ 등은 물론 같은 ㅏ 말음 타동사인 ‘사거라, 타거라, 파거라’ 등도 잘 쓰인다. 심지어 ‘오너라’ 대신 ‘오거라’도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거라’는 보수적 문체의 명령형 어미로 인식되어 있다. 오늘날 이 어미를 쓰는 층은 노장년층이며 사극(史劇) 등에서도 ‘게 섰거라, 있거라, 앉거라, 듣거라, 먹거라……’처럼 자주 쓰여 ‘-거라’는 보수적 문체의 종결 어미로 보아야 한다. 청소년층에서는 쓰지도 않는 ‘-거라’를 ‘가다, 나다, 자다’ 류에만 써야 한다고 50년 전의 잘못된 기술을 존속한 채 교육을 함은 문제가 있다.

셋째, 위에 제시한 ‘거라’ 불규칙의 용례는 ㅏ 말음 자동사인데 ㅏ 말음 타동사인 ‘사다, 타다, 파다’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자동성이라는 문법 범주 기준과 ㅏ 말음 자동사에만 ‘-거라’를 쓰라는 음운 기준은 사실도 아니거니와 문법 기술이 매우 번거롭고 국어를 까다로운 문법 체계의 언어로 오해시키는 기술이다. 더욱이 언중의 의식과 무관함에서는 비현실적 문법 기술이라 하겠다.

넷째, 고어 자료에서도 이들 ‘-거라’가 세 유형에만 쓰인 것은 아니다. ‘더 좋아 게 잇거라 너 가는 더 무려 보자(정철 시조), 가마귀 검거라 말고(청구영언)’ 등에서처럼 ‘-거라’의 쓰임새는 위 세 유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위에서처럼 오늘날 ‘-거라’ 형태는 ‘가다, 나다, 자다’ 류에만 붙는 것이 아니고 ‘오다’를 뺀 모든 동사에 붙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기심·고영근(1985, 1993: 148)에서는 ‘-거라’ 명령이 확산되고 있음을 “구어체에서는 불규칙 활용형 ‘있거라, 서거라, 듣거라, 안거라’도 쓰이고 있다”고 그나마 열린 기술을 보이고 있지만 구어체 일부의 현상으로 보고 여전히 ‘거라’ 불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언어 현실을 보면 ‘-거라’ 활용형이 모든 동사에 붙어 쓰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 ‘-거라’가 붙는 모든 동사를 오히려 ‘거라’ 규칙동사로 보아야 하기에 이르렀다. 단지 ‘오다’ 동사만 ‘-거라’가 붙지 않고 ‘-너라’만 붙으므로 오히려 ‘오다’를 ‘거라 불규칙동사’로 보거나 또는 결과 용어를 써서 ‘너라 불규칙동사’로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라’ 불규칙의 예는 언어 현실과 문법 기술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사례로 언어 현실을 정확히 기술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

다음으로 부사형 어미도 통일 학교문법(1985)에서 부사형 어미를 없앤 어미 체계가 남기심·고영근(1985)에서 등장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85, 1993)

- ① 어말 어미
- ② 전성 어미 ┌ 명사형 어미
 └ 관형사형 어미
- ③ 연결 어미 ┌ 대등적 연결 어미
 ├ 종속적 연결 어미
 └ 보조적 연결 어미

이러한 부사형 어미 폐지에 대해 학교문법(2001)에서는 위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총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다음과 같은 체계를 보였다.

[부사형 어미 체계](고교 문법 2001)

국어의 어미

- ┌ 종결 어미
- └ 전성 어미
 - ┌ 명사형 어미
 - ├ 관형사형 어미
 - └ 부사형 어미

(ㄱ) 문장 수식 부사형 어미

- 대등적으로 수식(대등적 연결 어미): 비가 오고, 바람은 안 분다.
- 종속적으로 수식(종속적 연결 어미): 비가 와서, 길이 길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졌다.

(ㄴ) 단어 수식 부사형 어미

- 보조 용언 수식(보조적 연결 어미):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오게 된다.
- 일반 용언 수식: 비가 지루하게 내린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전형적 특징인 높임법 문제 같은 것은 한국어 교재마다 용어, 체계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아직도 교육 문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런 것에 대한 치밀한 기술도 필요하다. 국립국어원(2005: 221, 222)에서 높임법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일부 문제점이 보인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아주높임(합쇼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합니다
예사높임(하오체)	하오	하오	하(시)오	합시다	하오
예사낮춤(하계체)	하네	하나/하는가	하계	하세	하네
아주낮춤(해라체)	한다	하느냐	해라	하자	하는구나
두루높임(해요체)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두루낮춤(해체)	해	해	해	해	해

위에서 합쇼체라는 용어는 역시 대표 어형을 지칭하는 데 부적절하다. 남기삼·고영근(1993)에서 ‘-(하)시다’를 합쇼체의 청유형에 넣었던 것이 부적절하므로 하오체에 고쳐 넣은 것은 적절한 처리인데 여전히 하십시오체에 ‘-십시오’를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위자가 하십시오체 수준으로 높일 상대에게 ‘하십시오’를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십시오, 합시다’는 하오체 수준의 청유형으로 봄이 적절하다. 물론 ‘합시다’보다 더 높이고자 ‘-시’를 넣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십시오’를 하십시오체 수준까지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국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법 현상이 많아 정밀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들은 오히려 이런 현상을 자연스레 사용하고 있는 내국인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더 절실한 설명이 필요하다. 학문 문법에서 이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한국어 교사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는 - 이/가’, ‘-아서/어서, -니까, -므로’ 등과 같은 것도 이런 부류에 넣을 수도 있지만 통사미론적으로 이들은 정상적인 현상이라 오히려 이들보다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등과 같은 형용사 명령형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바라/바래, 놀라/놀래’ 등과 같은 쌍형 활용에서 나타나는 애 변칙 현상의 표준화 여부 문제, 다음과 같은 ‘-이/히’ 표기의 무원칙 문제, 복합어 띄어쓰기 문제 같은 것은 규범적 개선과 함께 한국어의 과학화를 위해서 정밀한 설명과 대책이 요구된다.

- (1) 동일 환경인 ㄱ 말음 밑에 ‘이/히’ 혼기의 무원칙
 - ㄱ) 그옥이, 깊숙이, 뺨뺨이, 수북이, 소북이, 자욱이, 시무룩이
 - ㄴ) 가득히, 머쓱히, 푹푹히, 넉넉히, 솔직히, 툭툭히
- (2) 복합어(합성어와 파생어)와 구(句) 띄어쓰기 문제
 - ㄱ) 명사구[좌측]와 합성명사[우측]의 구별: 동형어의 상이한 띄어쓰기

마당 가, 두만강 가 / 강가, 냇가, 수돗가
 가지 끝, 추녀 끝 / 손끝, 머리끝
 큰 별, 큰 사람 / 큰일, 큰길, 큰북, 큰비
 꽃 배달 전문 서비스 / 꽃가마, 꽃길, 꽃가게, 꽃잎, 꽃밭, 꽃씨
 가을 하늘, 가을 바다 / 가을바람, 가을비, 가을날
 우리 집, 우리 회사 /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

ㄴ) 접두 파생어와 관형사의 경우

<접두사 파생어의 예>	<관형사 구의 예>
구시대, 구학문, 구제도	구 도읍지, 구 총독부
매달, 매시간, 매한가지	매 회계연도, 매 경기
별소리, 별짓, 별천지, 별걱정	별 이상한 사람
본이름, 본바탕, 본때	본 사진, 본 안건
신세대, 신기록, 신인	신 교육과정, 신 개발지
*	전 세계, 전 직원, 전 노동력
헛소리, 헛걸음, 헛일, 헛되다	*
헛손질, 헛전화, 헛만남	*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전 세계 한국어 학자들과 한국어 교육자들은 힘을 합하여 한국어의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위해 힘을 모아서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니와 한국어 부문에서도 한국어 학자들과 한국어 교육 연구자, 한국어 교육자들이 연구 역량을 모을 때 한국어의 세계화도 가능할 것이다.

6.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어의 현안을 점검해 보았다. 남북 언어 문제와 재외동포 언어 문제를 생각할 때 국어학계나 한국어 교육계는 ‘(세계) 표준 한국어’ 수립을 큰 목표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선 표준 한국어 수립을 위해 규범 정비가 선결 과제이므로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진행 중인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규범 통일 논의를 점검해 보고 국어 규범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을 이 기회에 공론화하여 국어 규범 개정을 공식화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그 공론을 수 행함으로써 사전 편찬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장했다.

또한 표준어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7:2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관 2인은 위헌 판정을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에 표준어 규정 개폐 논의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표준어 용어를 공통 어로 대치하자는 주장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남북 언어 문제 관련하여서는 탈북민 언어 문제가 남북 언어 통일의 시금석인 만큼 탈북민 정착 에 민관(民官)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재외동포 언어 문제는 표준 한국어 수립의 일선 지대이므로 표준 문법 수립을 위해 아직도 문법 기술의 미비가 많음을 부사형 어미, 거라 불규칙, ‘-이/히’ 파생 부사의 표기 비일관성 문제 등으로 거론하고 규범과 문법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으로 국내외 한국어 학자들과 한국어 교육자들이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이론과 현 장을 두루 관찰하여 표준 한국어 문법을 구축하고 표준 한국어를 만방에 알리도록 하는 데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한국어를 영국의 영어 산업처럼 효자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날이 도래하리라 믿으며 논의를 마친다.

참고 문헌

고영근 편(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고영근(1994), 통일시대 어문 문제, 길벗.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 출판부.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2,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2008),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 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국립국어원.

권재일(2008), 남북 언어 통합과 ‘겨레말큰사전’ 편찬,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자료집

김덕룡(2009), 바람의 추억, 선인(조선학교의 전후사)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 연구, 고려대 출판부.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4, 녹진.

김민수 편(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 언어, 태학사.

김민수(1998), 민족어의 통일 문제, 인문과학논집 6-1,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민수 편(2002),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남기삼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문금현(2004), 남북한 어휘의 이질화 양상, 어문학 83, 한국어문화회.
- 문금현(2004), 남북한 어휘의 동질성과 이질성, 어문연구 3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 문금현 외(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문금현 외(2006),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1995,1996), 국어 오용 어법의 예방적 지도법 연구(1), 국어교육 89-9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민현식(2008), 표준어에 대한 이해와 오해, 말과 글 115집(여름호),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 민현식(2009ㄱ), 언어 습득 및 문화 관련 이론의 동향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 24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9ㄴ),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10), 國語文化의 正體性和 多樣性 문제: 多文化論에 대한 批判을 위하여, 세계한국어문학 3집, 세계한국어문화회.
- 박종갑 외(2007), 북한의 언어와 문학, 영남대학교 출판부.
- 사나다[眞田信治] 외 편(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大阪: 和泉書院
- 양수경(2009), 새터민 언어 적응 문제와 교육 방안,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 오효립(2006), 탈북자 300명 특별 리서치, 월간중앙 8월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 이상규(2007), 절멸 위기의 언어 보존을 위한 정책, 새국어생활 17-4, 국립국어원.
- 이정민(1981),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한글학회.
- 이주행(1998), 남북한의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쓰인 언어 비교 분석 연구, 국어교육 98, 한국어교육학회.
- 이중언어학회(1988),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지 4, 집문당.
- 이중언어학회(1993),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이중언어학지 10, 탑출판사.
- 이태영(2006), 지역언어의 중요성과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임철성(2001), 지역어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 전수태(2004), 남북한 어문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 정경일(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
- 정종남(1999), 남북한 한자어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연구원.
- 조규태(2003), 표준어 교육과 지역 언어교육, 한글 262, 한글학회.
- 조태린(2007),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 주경희(2007), 국어 교사와 표준어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 진동섭·윤여탁·모경환·홍창남(2006), 재외동포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비교교육학회.
- 차재은(2009),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의 현황,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 최기수(2010), 재외 한국학교 실태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최영호(2008), 재일교포 사회의 형성과 민족 정체성 변화의 역사, 한국사연구 140, 한국사연구회.
- 최은경(2010), 세계화 속의 영어와 역사 바로알기, 한국학술정보.
- 최현배(1937, 1975), 우리말본, 정음사.
- 홍종선(2009), 남과 북의 통합 국어사전 편찬과 민족어의 통일,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 황적륜(2000), 현대 영어 교육의 전망, 현대영어교육의 이해와 전망, 서울대 출판부.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재일 한국인의 언어 상황

김 미 선 | 일본 민족학박물관 연구원

재일 한국인의 언어 상황

김 미 선
일본 민족학박물관 연구원

1. 들어가기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자(이하, 재일 한국인)의 인구는 58만 명으로 외국인 구성비의 약 26%를 차지한다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 한국인의 일본 이주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그 후 100년에 가까운 이주의 역사를 지닌 재일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생활은, 단일민족 국민국가를 추구하는 일본 사회의 편협된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그다지 평탄하지만은 않았으며 그들의 일본 사회 적응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주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아가는 생활 전략으로는 일본 사회에 완전히 동화해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가는 방법과 자신이 조선 민족이라는 것을 커뮤니티와 일본 사회에 강조하며, 한국인 또는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양자택일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양자택일적인 삶의 방식은 일본 사회에 대한 열등감과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배반감 등 심리적인 갈등을 동반해 왔으며, 일본과 조국의 정치적 대립과 충돌이 표면화될 때마다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전후의 고도성장과 함께 1980년대에 들어 일본은 거대한 버블 경제를 경험했으며 그에 따라 각 나라와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노동 인구의 유입, 유학·취학 및 산업 연수생 등 여러 형태의 목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현재 전 인구의 약 2%에 달하는 약 220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

1) 2009년 3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등록자 수는 2,186,121명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수(680,518명)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한국·조선(578,496명), 브라질(267,456명), 필리핀(211,716명)순으로 이어진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공생이라는 새로운 이념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글로벌화로 인한 일본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 분위기와 정책적 움직임은 재일 한국인에게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과 일본 사회와의 관계는 언제나 동화와 대립이라는 양분된 논리의 틀에서 선택을 강요당해 왔으며, 공존이라는 관계가 이념적으로는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 사회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삶의 제공 방식에는 양자택일적인 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와 재일 한국인과의 관계는 그들의 언어 운용에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후 유년기 또는 청년기에 일본으로 건너와 현재 노년층에 접어든 재일 한국인1세(이하 1세)의 이중 언어 구사와 그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생활 언어인 일본어의 내용에는, 재일 한국인 사회의 언어 문제가 선명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재일 한국인의 언어 문제에 대해 1세의 언어 운용에 초점을 두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를 사용하며 성장한 2세 이후 세대의 언어 상황도 고려하여 재일 한국인의 전반적인 언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

2.1. 올드커머와 뉴커머

일본에 거주하는 약 58만 명의 재일 한국인은 일본으로 건너온 시기를 기준으로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대별할 수 있다. 인구별로 보면 식민지 시대를 전후로 건너온 1세와 그 가족, 자손들로 구성된 올드커머가 약 41만 5천 명, 1980년대 이후에 건너온 뉴커머가 약 16만 명에 이른다. 외국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올드커머의 경우 특별 영주자²⁾로 한정되어 있으나, 뉴커머는 일반 영주자, 유학·취학, 취로,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지니고 있다. 약 2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도 뉴커머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비율을 보면 약 70%가 올드커머이며 뉴커머가 약 30%가 된다.

올드커머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온 1세에서 4세 5세까지의 세대 구성을 보이며, 1세

2) 1991년에 시행된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에 근거해 일본 국적이 이탈된 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체류 자격으로 뉴커머를 제외한 조선, 한국 출신자 및 대만인과 그 자손들이 해당된다.

는 고령으로 그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2세 3세가 주된 활약 층이다. 한편 뉴커머는 80년대 이후부터 일본으로 건너오기 시작했으며 일본 거주 기간이 올드커머에 비해 비교적 짧으며, 유학, 취학, 배우자 등의 체류 자격으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젊은 층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2.2. 내일 시기와 언어 사용

커뮤니티의 언어 사용 면에서 재일 한국인은 일본어를 주된 생활언어로 하는 올드커머와 한국어를 주된 생활언어로 하는 뉴커머로 대별할 수가 있다. 올드커머의 경우 그 대부분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출신자로 오사카(大阪), 도쿄(東京), 효고(兵庫), 아이치(愛知) 등 각지에 걸쳐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오사카시 이쿠노쿠(生野區)와 같이 전 인구의 4분의 1을 재일 한국인이 차지해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진 곳도 있다.

언어 사용 면에서 올드커머는 한국어가 모어인 1세의 경우 일본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그 이후 세대는 일본어를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2세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지는 못해도 1세의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비대칭 이중 언어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3세 이후의 세대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어 사용자가 대부분이다. 한편 뉴커머의 경우 대부분이 1989년에 시행된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와 일본의 유학생 유입 정책 등을 계기로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이며 많은 수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이다.

올드커머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일본이 장래의 생활 터전이기도 한 영주 지향인 반면, 뉴커머는 현재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미래의 생활은 한국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겠다는 귀국 지향이 강하다. 거의 강제적으로 또는 생활고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올드커머와는 달리,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을 경험한 뉴커머에게 있어서 일본 생활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선택적인 것이다. 그 때문에 일본 사회에 대한 의식도 올드커머와 뉴커머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 사회의 일상적인 차별과 편견을 민족의식으로 저항해 온 올드커머와는 달리 뉴커머에게 있어서 민족의식은 생활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설령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민하지 않으며 개선을 위해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일본 생활이 일시적이며 귀국을 전제로 하는 삶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본 사회에 자신이 조선 민족임(이웃됨)을 철저하게 감추며 살아가는 올드커머에 비해 뉴커머는 자신을 강조하거나 감추어야 하는 의식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민족적인 삶을 과도하게 취하거나 과민하게 감추며 살아가는 올드커머가 한국어를 강조하거나 감추어야 하는

(이 부분은 후술하겠다) 이중적인 생활 전략과는 달리 뉴커머는 한국어를 감추어야겠다는 의식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의 모든 올드커머가 일본명(通名)을 사용하며 생활하는 반면 뉴커머의 경우, 일본인이거나 올드커머의 배우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일 한국인의 언어 사용 상황을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올드커머의 언어 사용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1세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는 3세 이후 세대에 이르기까지 세대교체와 함께 사용 언어도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교체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뉴커머는 이러한 언어 교체가 진행된 제일 한국인 커뮤니티 전체에 새로운 한국어를 유입하는 존재로도 볼 수가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일본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류 붐은 일본 사회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활성화시켰으며 제일 한국인 커뮤니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 제일 한국인 커뮤니티의 언어 사용 상황

	세대	모어	이해 언어	사용 언어
올드커머	1세	한국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일본어
	2세	일본어	한국어/일본어	일본어
	3세 이후 세대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뉴커머	1세	한국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일본어

3. 제일 한국인의 언어 교체에 관한 사회적 배경

3.1. 언어의 이동

1세들의 일본 이주는 식민지 시대의 정책적인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모리타(1996)에 의하면 해방 직전에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의 도향 목적은 일반 노동자·강제 연행·유학생으로, 주가 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 노동력의 이동은 언어의 이동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노동력이 생산되는 시기는 모어가 완성되는 10대 이후를 말하며, 이는 언어 형성기를 조국에서 보내고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일본으로 건너왔음을 뜻하기도 한다. 당시의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생활의 터전을 일본으로 바꿔야 했으며, 이는 동년대의 집단을 이룬 자들의 이동이기도 했다. 당시의 노동력 이동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한국어)와 생활 문화의 이동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많은 시기에는 200만이 넘는 이주 조선

인이 일본에서 고향의 관습을 유지하며 생활을 하였으며 일본 사회에 고향과 같은 한국어 커뮤니티가 재현되기도 하였다.

3.2. 언어 유지의 사회적 배경

이주자들의 언어 유지의 가능성 및 호스트 언어로의 흡수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호스트 사회의 언어정책, 두 언어의 경제적·정치적 우위 관계 등 사회적 배경에 의해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이주자들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밀집 상황, 세대교체 등도 당사자들의 언어 사용 상황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진 1] 어색한 우리말(조선학교)

당시의 이주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조선어가 사회적인 위상을 표명할 수 있는, 즉 세대를 걸쳐 유지해야만 하는 언어이기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열악한 환경이었음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다. 식민지 당시의 대동아 공통어를 의도하던 일본어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조선어를 열등한 방언적 존재로 인식시켜 일본어 습득이 강요된 시기였다.

1세대의 정착 당시의 회상 증언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이 자랑거리 중의 하나였으며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가정을 벗어나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로

요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식은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더 강했으며 2세들에게도 조선어보다 일본어 사용에 더 가치를 둔 언어 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심지어는 술선해서 조선어 사용을 금했던 것도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로 보아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점은, 현재 제일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영역을 찾아보기 힘들며, 민족 학교의 수업 시간이나, 민족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의식적인 사용 이외에는 거의 모든 생활이 일본어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결과적으로 알 수 있다.

3.3. 우리말의 현재

현재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재일 한국인 2세 이후의 세대에게 한국어, 즉 그들의 민족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은 가정과 민족학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체계적인 민족어 계승은 세대 교체로 인한 화자의 부재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실질적인 계승은 민족학교를 통한 교육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110개에 달하는 민족학교가 있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3세 4세 이후 세대로 조국을 접한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세대들이다. 민족학교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는 개설 당시의 귀국 준비라는 실질적인 목적에서 현재는, 한국(조선)인으로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교육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대부분 민족학교가 일본 문부과학성이 인가하는 정식 학교(1條校)가 아닌 ‘각종학교(各種學校)’의 지위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민족교육을 겸비한 언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즉 재정적인 어려움³⁾이 따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우리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총련의 민족학교(조선학교)는 독자적인 교육 과정으로 철저한 이중 언어 교육을 실행해 실질적인 성과⁴⁾를 거두고 있음에도 민족어 계승의 실질적인 성과 자체보다는, 성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나 부정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내용 대부분은 조선학교에서 사용되는(배운) 우리말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학교 안에서의 한정된 사용(학교형 이중 언어. 김덕룡1991)과 가정 내에서의 일본어 사용으로 인한 공적 언어와 사적 언어의 불균형, 일본어의 간섭에 의한 독특한 우리말의 사용 및 어휘의 불균형, 표현의 고정화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커뮤니티 내부⁵⁾ 및 교육을 담당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전형적인 예로 사진 1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오사카부 내의 한 조선학교의 복도에 게시된 우리말에 대한 주의 사항으로, ‘어색한 말을 고칩시다’ 라는 표제로 고쳐야 할 우리말의 구

3) 정식 학교(1條校)의 인가가 없는 조선학교의 경우 전반적인 학교 운영을 본국에서의 교육 원조비와 수업료, 기부금 등으로 운영해야 하는 재정면의 어려움이 있으며, 각 가정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 그 외 급식, 교내 시설 등 여러 면에 걸쳐 민족학교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필자는 조선학교에서의 수업 관찰과 조선학교 출신 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서, 조선학교 출신자들의 우리말은 일반 생활이나 지적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유창하게 구사되고 있으며 언어의 4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 균형적으로 습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총련 관계의 기간지인 조선신보사(朝鮮新報社)가 간행하는 ‘월간 [이어](月刊イオ)’ 2000년 4월호에서 ‘여기가 이상하다 재일 조선어(ここが変だよ在日朝鮮語)’라는 제목의 특집호에 재일 조선인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에 대한 발음, 억양, 회화, 표현 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나열, 이러한 특징은 재일 조선인만이 사용하는 ‘재일 조선어’라는 명칭을 부여, 규범에서 이탈된, 하루 속히 고쳐야 할 우리말 사용의 잘못된 점으로 강조한 바 있다.

체적인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내용 대부분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들이 민족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 1언어인 일본어의 문법 기반에 조선어의 어휘를 대입시켜 사용한 것으로, 제 2언어(조선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모어(일본어)의 간섭으로 이는 모어가 일본어인 한국어 학습자나 교사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민 언어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조선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우리말, 재일 조선인이 사용하는 우리말은, 커뮤니케이션 기능보다는 규범을 중시한 평가가 선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바르지 못한 말, 고쳐야 할 말’ 등 현실감이 결여된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눈에 띈다.

4. 1세의 언어

4.1. 한국어

전술한 바와 같이 모어를 습득한 후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는 1세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화자이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학교 경험이 거의 없으며 두 언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1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1세가 사용하는 모어인 한국어의 경우는 1세가 일본어로 건너왔을 당시의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음으로도 유명하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출신자가 다수를 이루는 1세의 생활 방식은 정착 초기부터 같은 고향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별 커뮤니티를 형성, 고향을 재현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오사카시 이쿠노쿠와 같이 제주도 출신자가 60-70%를 차지하는 경우는, 제주도의 생활 문화가 지역 공간에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당시의 제주말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어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러한 시점을 1세의 입장에서 조명해 본다면, 1세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 제주말이 많이 바뀌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하는 1세⁶⁾에게 실시한 인터뷰 내용에 담긴 제주말에 대한 1세의 경험이다.

1)

1세: 제주 가 집세 받으러.

6) 여성. 1928년 제주도 출신. 1945년 독일. 독일 후 현재까지 오사카시 이쿠노쿠 거주

필자: 아, 집세 받으러. 제주도에도 집을 사다 놓으셔서.

1세: うん, 겐, 그거 하나 떠본 집세 받으러 1년에一回(한 번)가지. 게멘, 말도, 모르고 조케네 집에 간, もう、ちんぷんかんぷん 무슨 말인지 잘 몰라)、조케들 막 わらうね(웃어).

게고 서울로 구경하느디, 서울로 もう、全部(전부)、돌았져. 뭐 みんな(전부)돌지. 돌고 부산으로 【중략】 골려사소, 골려사소, 골려사소 하는 말을나, 저 사람들 무슨 おどり(춤)를 하몽 저영 허염수? 막 おどりならな(춤추면서)、허난, あの人(저 사람들)은 なんであんな(왜 저렇게) 골려사소 골려사소, 저 사람들 햄수까 하난, 골령사레름 씨엔, 아이고 그말 못 알아 들언. 【중략】 아이고 もう、びっくりしたわ(정말 놀랐지)、ほんまに(정말)게난 골려 사례 허염져. 게멘, 난 뭐 저디 가도 みんな(전부) 제주도 이젠 서울말.

필자: そうですね(그렇네요).

1세: うん、もう(이제는)、제주말 ないわ(안써). としより(나이 든 사람)、막、막、としより(나이 든 사람)나 제주말 ちょっと(조금)씩영 알아 듣주만, 뭐 촌이 가도 みんな(전부) 뭐 서울말.

필자: おばあさんはソウルマルは分かりますか(할머니는 서울말을 할 줄 아세요)?

1세: 서울말?

필자: 예.

1세: 서울말, 서울말도 모르주게 이제.

[金美善·生越直樹編(2002) 『在日コリアン1世の自然談話文字化資料』 70-73쪽]

이와 같은 일본의 제주말의 보수성은, 재일 제주도인과 본국 제주도인의 언어적인 괴리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며, 이는 1세가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어야 하는 수많은 언어 장애 - 같은 조선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는 -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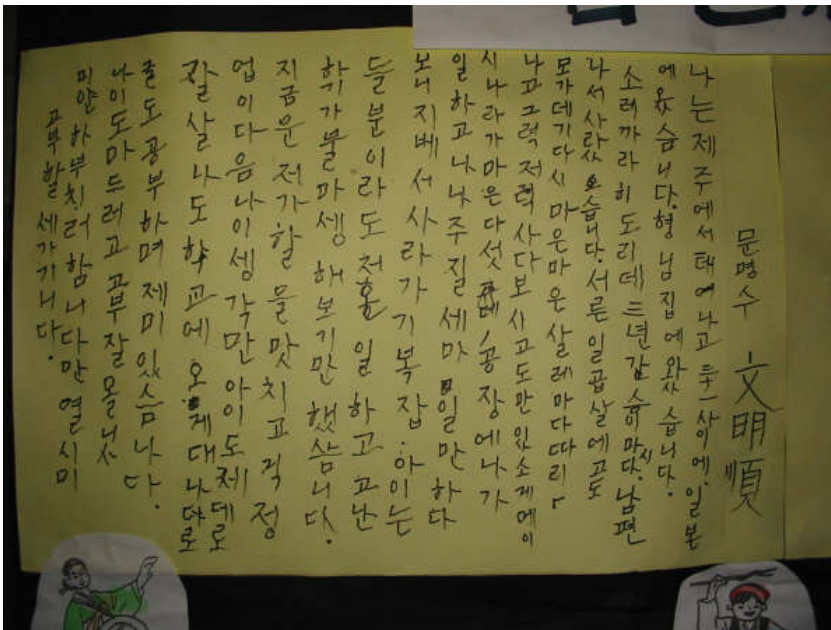
그 외에 1세가 겪어야 했던 언어 장애로는 배움의 기회를 접하지 못했던 탓으로 인한 정보의 양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함께,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우리말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이는 강한 획득 의식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고령으로 일에서 손을 놓게 된 많은 1세들이 야간 중학교⁷⁾에 모여 때늦은 우리말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말의 읽기 쓰기 학습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아래 사진 2,3은 야간 중학교의 수업 풍경과 제주도 출신 1세가 획득한 우리말 쓰기에 대한 성과이다. 야간 학교에 다니는 1세의 언어 의식에 대해서는 金美善(2008)을 참조 바란다.

7)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 중학교의 야간 학급. 2009년 현재 36개교에 2700여 명의 학생이 재적 중으로, 많은 재일 한국인 1세에게 배움의 장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 2] 야간 학교 수업 풍경



[사진 3] 야간학교 학생의 우리말 작문



4.2. 일본어

1세가 사용하는 일본어는 제2언어로, 모어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습득한 언어이다.

많은 1세에게 있어서, 일본어는 학습 기관을 통한 능동적 학습(learning)에 의한 것이 아니며, 먼저 일본에 건너와 생활하고 있는 선착자나 주위와의 접촉을 통한 수동적 습득(acquisition)에 의한 것이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본국에서 생활한 시간보다 3, 4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1세들이 사용하는 일본어에는 독특한 악센트의 음적 특징을 비롯해 문법 어휘 표현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특징이 관찰된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어중 무성음의 유성화, 어두 유성음의 무성화를 들 수 있으며, 장모음과 단모음의 과소 변별 등을 들 수가 있다. 그 외에 일본어 발음을 한국어의 음운 규칙에 대응시켜 발음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1세 이외에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나, 학습의 지속을 통해 오류를 고쳐가는 학습자와는 달리, 1세의 경우는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 모어의 간섭이 화석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金美善2001). 이러한 일본어 발음에 나타나는 1세의 특징은 ‘조선나마리(朝鮮なまり)로 조선인을 특징짓는 상징으로 차별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1세의 일본어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독자적인 습득 전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 중 하나로 한국어의 ‘하다’ 동사와 그 기능이 유사한 일본어 동사 ‘-する’의 기능 확장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하의 담화 내용과 같이 동사의 연용형을 명사화해 ‘-する’를 후접함으로 복잡한 일본어의 동사 활용을 간략화하는 내용이다.

- 2) 濟州島でお金決めして來たわけや、みんな。
(제주도에서 돈을 정하고 왔지, 모두가)
- 3) お父ちゃん、あんまり心配せんとして、考えますって、そだからほったらかすわけや。
(아버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을게요, 라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 4) なんて外行くの、こっちで働させ、言うから、ま一、しがたないな思って。
(왜 다른 곳에 가니, 여기에서 일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 5) 民団入って踊りするし、言葉も勉強するから嬉しいね。
(손자가) 민족 단체에서 민족 무용도 배우고 우리말도 배우니까 기쁘지)

위의 담화 내용은 일본어 동사의 활용 어미가 ‘-する동사’로 수렴되어 간략화된 현상으로, 담화 2)는 「決める→決めて」가 「きめ+して」로, 담화 3)는 「考える→考えます」가 「考え+します」로,

담화 4) 는 「働く→働け、働きなさい」가 「働き+せ」로, 담화 5) 는 「踊る→踊る」가 「踊り+するし」로 일본어의 5단 동사의 복잡한 활용 체계를 ‘する’를 통해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어 동사를 규칙적으로 전성 명사화하는 문법화 과정도 위의 담화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형식의 발생에는 ‘운동하다’, ‘삼푸하다’와 같이 한국어의 명사 성분에 ‘하다’를 후접시켜 용언화하는 모어의 통어 구조가 일본어의 습득 과정에 전이(transfer)된 것으로 1세들이 일본어를 자연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습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독자적인 문법의 간략화는 형용사의 문말 형식이나 다른 표현 형식에서도 발견된다.

5. 1세 언어의 재해석

5.1. 혼용 코드

또 다른 1세의 언어 특징 중의 하나로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혼용 현상을 들 수 있다. 두 개의 언어를 한 장면에서 사용하는 언어 행위를 코드 변환(Code-Switching) 또는 코드 믹싱(Code-Mixing)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나, 오사카시 이쿠노쿠 주변에서는 ‘짬뽕말’로 이와 같은 혼용 현상이 불리고 있다. 담화 1)의 내용을 보면 1세 한 사람의 담화 내용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용 형식은 두 언어(이상)를 구사하는 이(다)중 언어 화자에게는 그다지 언어적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어순을 비롯한 통어 구조의 유사점이 혼용 코드에 대한 언어적 위화감이 적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쿠노쿠에 장기간 거주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0명이 넘는 1세의 담화 자료를 채집해 왔다. 이들 중에서 혼용 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1세는 한 명도 없었으며 영유아기에 일본에 건너와 일본어가 우세한 1세의 경우에도 담화의 내용 중에 한국어를 혼용하는 예를 보여 주었다. 조사자인 필자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어적 이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1세들에게 혼용 코드를 사용하기 편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을 수도 있겠지만, 1세끼리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혼용 코드가 1세 개인의 개별적인 특징을 초월한 1세의 보편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1세의 혼용 코드는 어디까지나 1세 사이에서 또는 상대가 두 언어가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주변의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는 일본어 코드를,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한국어 코드를 능력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혼용 코드가 사용되는 상대와 장면이 의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하와 같이 1세의 언어 사용을 일본어 코드와 한국어 코드, 혼용 코드라는 세 개의 코드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고, 세 개의 코드는 서로 다른 영역에 사용되는 한정된 코드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1세 언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다. 1세에게 있어서 혼용 코드는 언어 환경이 같은 상대에게 사용되는 커뮤니티 코드이며, 본국과 일본의 사회와 문화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1세의 생활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코드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2] 각 코드의 상대 및 사용 영역

	상대	영역/장면
일본어 코드	한국어 이해 능력이 없는 일본어 화자	쇼핑, 병원 등
한국어 코드	일본어 이해 능력이 없는 한국어 화자	한국 방문 시, 일본 방문 친족
혼용 코드	양 언어의 이해 능력을 갖춘 화자	가족, 친족, 데이하우스

5.2. 혼용 코드의 구조적 특징

1세의 혼용 코드에 나타나는 문 형식은 한국어의 통어 구조에 일본어의 형식을 삽입한 한국어 베이스의 문 형식(담화6,7)과 일본어의 통어 구조에 한국어의 형식을 삽입한 일본어 베이스의 문 형식(담화 8,9)으로 대별할 수 있다.

- 6) ほんで(그래서), 여관 とまり(숙박)허멍 방 하나 빌어서 해방되도록 거기서 살다가, で, 대판 내려왔주게.
- 7) 그 いじわるな(심술맞은) 오학년짜리가,
- 8) だれか(누가)만들어した(만들었니)?
- 9) 近いところから, たまにあそびにおいてなげ(가까운 곳이니까, 가끔 놀러 오거라)

이러한 혼용 코드의 베이스(frame)와 삽입어(contents)는 장면과 담화 소재에 따라 즉흥적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담화 8)과 같이, 한국어 용언의 연용형 ‘-/-’에 한국어의 ‘-하다’와 그 기능을 동일시하는 일본어 동사 ‘-する’를 후접한 혼용 복합 용언으로 정형화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어가 베이스가 되는 문 산출에 곧바로 대입되지 않거나, 습득이 부족한 어휘를 한국어 용언으로 대응시켜 ‘-する’를 후접하는 것으로, ‘무쳐する’, ‘뉘벼する’, ‘비녀 찢러する’, ‘초상쳐する’ 등과 같이 용언의 어간 부분을 한국어가, 어미 부분을 일본어가 담당하는 독특한 혼용 복합 용언이다. 이러

한 형식은 일반 학습자에게는 관찰하기 힘든 1세들의 독특한 구조로, 2세 이후 세대에게 전달되어 사용되는 예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식습관의 하나인 ‘국에 밥을 말아 먹는 표현’에 대한 오사카시 이쿠노쿠 주변 제일 한국인의 사용 형식을 들 수 있다. 필자가 실시한 앙케트 조사⁸⁾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표현으로, チョマンする (조망する, 33%), マラする (말아する, 22%), モラする (몰아する, 10%) 가 65%에 달하는 결과가 나와, 1세의 혼용 형식이 가정 내에서 세대 간에 걸쳐 전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에는 제일 한국인의 식생활의 일면⁹⁾이 내포되어 있으며, 2세 이후 세대에 유지되고 있는 1세의 방언적 요소¹⁰⁾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조망(조마)’ 형이 33%를 차지하는 것은 제주도 출신자의 수적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제주도 1세만이 사용하는 혼용 코드가 존재한다. 담화 9)와 같은, 일본어 문말에 사용되는 제주도 방언의 문말사¹¹⁾ ‘-게’의 사용이다. 문 형식이 유사한 예로 이하의 용례를 추가할 수 있다.

10) それ食っても意味ないね。 (그 수도 별로 효과가 없어/없다니까?)

11) 아이고! なに言う、早く持って行きな。 (아이고, 무슨 말을 하는거야, 빨리 가져가라니까?)

12) そうや。 お前も見たやろ? (그렇지, 너도 봤지?)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도 방언 문말사 ‘-게’는, 1세들이 자주 모이는 공원에서의 장기 및 혼수 (담화10) 장면이나, 상대방에게 의뢰나 요구, 자신의 의견 등을 강하게 주장할 때와 같은 감정을 이입시키는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제주도 출신 1세들의 독특한 혼용 형식으로 다른 지역 출신자에게 이러한 형식의 사용은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혼용 코드를 사용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으나, 담화 자료에 나타난 1세의 혼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습득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이

8) 오사카 이쿠노쿠 주변의 2세 이후 세대 125명 대상

9) 일본의 식습관에는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이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10) ‘조망(조마)’은 제주도 출신자가, ‘말아’는 경상도 출신자가, ‘몰아’는 전라도 출신자가 쓰는 형식이라 볼 수 있으며, 일부 제주도 출신자 중에는 ‘조망(조마)’ 이외에 ‘몰아’ 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11) 이승녕(1988)에 의하면 방언 어미 ‘-게’가 권유와 명령의 재촉, 실행의 강조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서술의 강조, 확인 요구 등 보다 넓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어의 종조사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에 힌트를 얻어 ‘문말사’라는 명칭을 잠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화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습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습득의 형식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 두 언어 중에서 검색이 빠른 어휘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한편, 어느 쪽에 적절한 대응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적인 내용에도 혼용 형식이 사용되기 쉽다. 문화적인 내용에 한국어가 혼용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 간에 계승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지역적으로 전파되는 경우도 많다. 식문화에 사용되는 한국어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그 외에 전달의 강화나 일시적으로 감정이 자극되었을 때 사용되는 심적 요인에 의한 혼용을 들 수 있다. 제주도 문말사 ‘-게’의 사용이나, ‘아이고’와 같은 감탄사의 사용을 들 수 있겠다. 심적 요인에 의한 혼용은 의미 전달 기능보다는 표현 기능을 목적으로 한 심리적 요인에 관계되는 회화 전략으로, 이해에 지장이 없는 대상과의 사이에 양 언어의 형식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섬세하고도 풍부한 감정 표현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6. 맺음말

언어 조사를 위해 1세에게 인터뷰를 의뢰할 경우, 대부분의 1세는 의아해하며 되물어 본다. ‘이런 말 알아서 뱉하게, 일본어도 한국어도 반쪽 말에 짬뽕말이라’고 자신의 언어를 비하한다. 이러한 자기 평가에는 서로 다른 언어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접촉했을 시에 나타나는 모어의 간섭(interference), 모어와의 동일시화(identification), 코드의 혼용(Code-Mixing, Code-Switching) 등, 사람들이 이동함에 따라 생성되는 극히 자연스러운 언어 접촉 현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저변에는 ‘중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표준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우리들의 언어 규범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반사적으로 일러 준다.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2세 이후 세대에게 있어서 1세의 언어는 부자연스럽고 충분하지 않으며 숨기고 싶은 언어이기도 하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다민족, 다언어 사회였음을 인정하기를 꺼리며 단일민족 단일언어 사회임을 주장,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들에게 언어적 동화를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요해 왔다. 마찬가지로 표준적 언어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아직도 언어, 민족, 국가를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하려는 한국의 언어관¹²⁾도 1세 언어의 부정적인 시각에 많은 작용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재일 한국인들의 언어가 일본에서도 긴 시간 학술적인 관심에서 외면되어 왔으며¹³⁾ 1세의 사용

12) 많은 재일 한국인들이 고국을 방문하며 겪는 고초는, 공항 입국 심사에서부터 시작되어 고향, 친족 들에까지 계속되는 ‘한국인이 왜 한국어를 못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한다. 또한, 외국인의 언어, 특히 중국 조선족의 우리말이 코미디의 소재가 되어 일부 방언적인 억양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점 등도 한국의 언어관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부분이다.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기초 자료 확보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도 우리들의 언어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알게 해 준다.

글로벌화가 가속되는 현재, 약 700만의 한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한반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이다.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가 당 거주 지역의 언어와 한국어와의 이중 언어 및 언어 접촉의 풍부한 이민 언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 한국어는 현상적으로 여러 언어와의 이중 언어 및 언어 접촉에 관한 언어학적 자료와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본국주의, 규범이라는 잣대로 풍부한 언어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구미의 영어, 아시아의 영어가 서로 다르듯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가 조금씩 다른 특색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될 수 있는 언어 의식의 잣대를 모색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植田晃次 (2001) 「『總連朝鮮語』の基礎的研究-そのイデオロギーと實態の重層性」野呂香代子 他編 『「正しさ」への問い-批判的社會言語學の試み』三元社
- 金徳龍 (1991) 「在日朝鮮子女のバイリンガリズム」ジョン·C·マーハー他編 『日本のバイリンガリズム』研究社出版
- 金美善·生越直樹編 『在日コリアン一世の自然談話文字化資料』文部科學省特定領域研究環太平洋の「消滅に瀕した言語」に關する緊急調査研究 「環太平洋の言語」理論·情報處理班
- 金美善 (2003) 「混じりあう言葉-在日コリアン一世の混用コードについて」 『月刊言語』2003年6月号、大修館書店
- 金美善 (2005) 「在日韓國·朝鮮人の言語使用」眞田信治·庄司博史編 『事典 日本の多言語社會』岩波書店
- 金美善 (2006) 「在日コリアン一世女性のホスト社會への適応過程展示に表現された生活史から」庄司博史·金美善編 『多民族日本のみせかた-特別展「多みんぞくニホン」をめぐって』國立民族學博物館
- 김미선(2007) 「코리언 뉴커머의 경제 활동으로 본 신주쿠의 언어 경관」 코리안뉴커머의經濟活動からみた新宿の言語景觀) 『在日コリアンの言語』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

13) 제일 한국인의 언어 문제가 학술적으로 대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고시(1983), 구마타니(1983)의 선구적인 연구에 의해서이다

-
- 「移民コミュニティの社会言語学的研究」研究成果報告書、生越直樹編
- 金美善(2008) 「移民女性と識字問題について一夜間学校に学ぶ在日コリアン一世の識字戦略」 『ことばと社会』11号 移民と言語①』 定松文編 三元社
- 金美善 (2009a) 「新宿の移民言語－韓国系移民の経済活動を中心に－」 2009年 『日本語学』 2009. 5臨時増刊号、明治書院
- 金美善 (2009b) 「朝鮮總連系民族学校のバイリンガル教育」 2009年 『移民とともに変わる地域と国家』 庄司博史編 (SER国立民族学博物館調査報告) 国立民族学博物館
- 金富子 (2005) 『植民時期朝鮮の教育とジェンダー 就学・不就学をめぐる権力関係』 世織書房
- 熊谷明泰(1983) 「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南北朝鮮の言語政策との関連において－」 『在日朝鮮人史研究』 12、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会
- 熊谷明泰(1992) 「日本語彙税 <하디> 用言化에 관한 法的制約」 『國語研究百年史Ⅲ』 一潮閣
- 眞田眞治他編 (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和泉書院 玄善允(2002) 『「在日」の言葉』 同時代社
- 宮脇弘幸 (1993) 「在日朝鮮学校子女の言語生態・民族意識に関する調査」 『人文社会科学論集』 2 宮城学院女子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
- 読み書き能力調査委員会編 (1951) 『日本人の読み書き能力』 東京大学出版部 月刊イオ編集部 「ここがへんだよ 「在日朝鮮語」 」 『月刊イオ』 2000年4月号
- 森田芳夫(1996) 『数字が語る在日韓国人・朝鮮人の歴史』 明石書店
- 安田敏朗 (1999) 『「言語」の構築－小倉進平と植民地朝鮮』 三元社
- 金静子 (2002) 『재일 한국인 1세의 혼용실태에 대한 연구』 태학사
- 李崇寧(1985) 『濟州方言의 形態論的研究』 塔出版社
- Azuma, S. (1993a) “The frame-content hypothesis in speech production: evidence from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Linguistics* ,31 pp.1071-1093
- Weinreich, U.(1953) *Languages in Contact*. The Hague: Mouton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재일 한국인 사회의 언어 변화 -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

강 정 희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재일 한국인 사회의 언어 변화 - 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

강 정 희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이민의 역사는 줄잡아 1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민의 유형도 다양하다. 우리는 해외로 이민 가서 같은 민족끼리 형성한 공동 사회를 ‘이민 사회’라고 한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 사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해외동포 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이 ‘이민 사회’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재일 한국인 사회는 자의에 의한 ‘이민’으로 형성된 해외동포 사회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희생물로 이루어진, 자의 반 타의 반인 ‘이주’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초기 이주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과 4·3 사태 이후, 60년대 밀항으로 일본 사회로 불법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이룬 초기 재일 한국인 사회는 다시 1950~53년의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사상적으로 양분이 되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립되어 왔었다. 이와 같은 재일 한국인 사회의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재일교포’)로 지칭되던 이 초기 이주자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왔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일 한국인 사회는 현재 정치, 언어, 문화, 사회학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 분야인 언어학, 즉 한국어 사용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이익섭(2000: 301)은 “일본의 교포들은 한국어를 거의 다 잃

1) ‘교포’라는 이 용어는 조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에 대한 사상적, 경제적인 부정적 편견이 작용되던 시기(현선운 2002, 149-50)의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교포’가 ‘동포’로 바뀐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어버린 상태”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초기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가 급격하게 소멸의 길을 걷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한국전쟁 이후 우리 정부는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모국어 교육 정책의 부재가 오늘날 재일 한국인 1세~2세 사회의 한국어 소멸 속도와 시기를 촉진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이다.

그 외 일본의 소수 민족의 동화 정책으로 재일 한국인들은 목표 대상인 일본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일본어를 빠른 시기 안에 습득하게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처해 있는 일본의 사회 구조와 한국 현대사의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그림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재일 이주 1세 한국인 사회의 심층 깊은 곳에 있는 민족적인 열등감이라는 집단적 무의식도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또한 현실적으로 1960년대 이후 이주한 1세들의 일부는 불법 체류자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거나 외부 사회와의 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양면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치, 사회, 역사적 이유들이 외모로 일본인과 변별할 수 없는 일본 사회 안의 이주 1세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모국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 세계화 정책과 더불어 또 하나의 과제인 민족 생활어 보존이라는 시각에서 해외 이민 사회의 모국어 보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강정희(2002a, 2004b)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01. 9. ~ 2002. 5월까지 재일 한국인 중 제주 출신 1세 ~ 3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회의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한국어 사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1) 한국어 선택 태도, 2) 재일 제주 방언 사회의 제주 방언 변화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 한국어 선택 태도²⁾

예부터 일본과의 민간 교류가 가장 활발한 제주도에서는 “일본에서 한국말로 장사를 하려면 오사카에 있는 모모타니(桃谷)의 ‘조선시장’과 쓰르하시(鶴橋)의 ‘국제시장’으로 가라.”라는 말을 해왔

2) 이 글에서 제시하는 통계는 제주 방언 화자들인 제주 출신 재일 한국인 1세들을 중심으로 하되 그들의 자손인 2~3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을 밝힌다. 이 조사-질문에 응답한 인원은 109/150이다.

다. 이 말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 두 시장에는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주 방언 화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오사카의 이쿠노쿠(生野區)는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상업 지역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 인구 수는 13만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 8만 여명(2002년 이쿠노쿠 민단 서부 지부 제공)이 제주 출신 한국인이다.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일본 가는 것을 ‘대판(大阪) 간다’로 대치할 정도로 오사카는 제주도 사람들의 이주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제주 출신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은 이 지역의 상업 중심지인 모모타니(桃谷)의 ‘조선시장’과 쓰르하시(鶴橋)의 ‘국제시장’의 상인들 상거래 언어가 거의 2010년 현재부터 반세기 이전의 제주 방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확인될 수가 있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은 이 지역에서 적어도 재일 한국인 1세 집단에서는 제주 방언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졸고 2002a) 이와 같이 이 방언이 이 지역 한국인 사회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제주 방언 화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이 지역 제주 출신 한국인 1세, 2세들은 자신들이 재일 한국인 사회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방언에 대한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재일 한국인 1세들이 자신들의 방언에 대한 언어 태도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1) 방언에 대한 결속감, 정체성: ‘제주도 → 우리’,

‘다른 지역 → 육지, 바깥’

“나는 서울말 (표준어)은 몰라”

“제주 사람이니까 제주말을 써야 하는 것.”

(2) 방언에 대한 친근감: “제주말을 들으면 반갑다.”

위와 같이 제주 출신 재일 한국인 1세들의 제주 방언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 제주 방언을 보존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타 지역 방언 대 제주 방언의 정체성은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언어 선택으로 확대되게 되면 전혀 반대로 나타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세어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한국어를 대표하는 제주 방언

도 경쟁 대상이 일본어가 되면 곧바로 일본어로 코드를 전환해 버린다. 바로 이 점에서 재일 한국인들의 언어 선택에 있어서 목표 사회로의 ‘통합’과 ‘분리’ 의식이 경쟁 언어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곳 재일 한국인 1세들의 이중 언어 사용 장면은 1) 기반 언어를 한국어로 하는 경우 2) 기반 언어를 일본어로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1)의 경우 코드 전환(code switching)은 해당 한국어 표현을 잊어버렸거나 재일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일본어의 기본 표현으로 전환한다. 2)의 경우는 이 지역에서 조사될 수 있는 보편적인 담화 전략으로서 일본어 해당 어휘나 표현을 잘 모를 때 한국말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코드 전환은 청자의 신분, 친소 관계 그리고 일본어가 능숙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화자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외 1)의 화자와 2)의 화자가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대화하는 장면도 관찰할 수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재일 한국인 1세대 집단·고령자 집단이나 전후 이주 세대 집단에서는 일본어를 잘 구사하는 점에 자긍심을 가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에 열등감을 느끼는 현상도 관찰되기도 한다.

2.1. 언어 선택 태도 조사

다음은 필자가 이러한 일본에서의 한국어(제주 방언)의 사용 실태를 1세 ~ 3세 집단 101명을 대상으로 2001. 9월 ~ 2002. 5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의 초점은 ‘일본에서 한국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익섭(2000:301)의 지적에 대한 검증에 있는 데 있었다. 조사 결과는 재일 한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 선택 태도 및 민족 정체성(민족적 열등감과 연관성) 등과 같은 문제가 작용하였음을 알려 주었다. 다음에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2.1.1.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한국어를 모르는 2, 3세들을 고려하여 일본어와 한국어로 13문항으로 질문 내용을 작성한 질문지를 제보자들에게 의뢰하여 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지법을 채택했다. 질문지는 본 조사자가 교회의 청년부, 중등부, 초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제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거나 여성부 책임자에게 의뢰하여 수거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를 해독할 줄 모르는 고령자 1세대들은 본 조사자가 직접 개별 및 집단 면담식으로 조사하여 제보자들이 구술한 것을 질문지에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2.1.2. 질문지 회수 결과

질문지 조사 결과 회수율이 101/130로서 81%로 적극적인 응답을 보여 주었다. 1세가 25명, 2세가 37명, 3세가 39명으로서 각 세대가 균형 잡힌 분포를 보여 주었다. 이들을 다시 나이별로 집계해 보면 40~50대가 각각 13, 28명으로 41명, 10~20대가 각각 22, 16명으로 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와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표 1] 언어 선택 태도 조사 응답자 수

나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응답자 수
80-89	1			1
70-79	3	5		8
60-69	3	7		10
50-59	10	17	1	28
40-49	8	5		13
30-39		1	2	3
20-29		2	14	16
10-19			22	22
응답자 수	25	37	39	101

2.1.3.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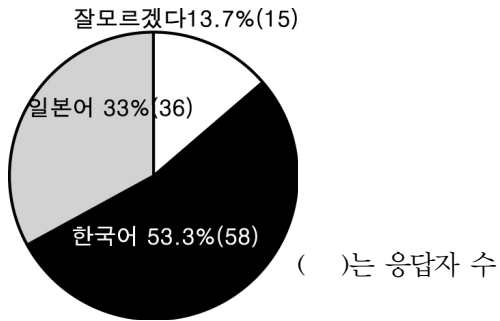
이 조사의 내용은 1.에서 언급된 이익섭(2000: 301)에 지적한 사실을 가설로 설정한 후 이에 대한 테스트로 1) - 3)의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언어 선택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조사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 1) 일상생활에서의 한일어 사용의 편의도 - 1세 집단을 대상으로 함
- 2)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 실태 - 1~3세 제보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함
- 3)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 2~3세 집단을 대상으로 함
- 4)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
- 5) 언어 선택 태도의 사회적 요인
- 7) 모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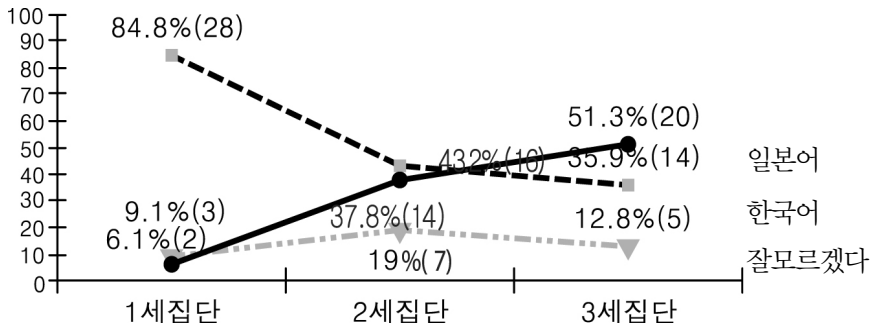
2.1.4. 조사 결과

1)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 결여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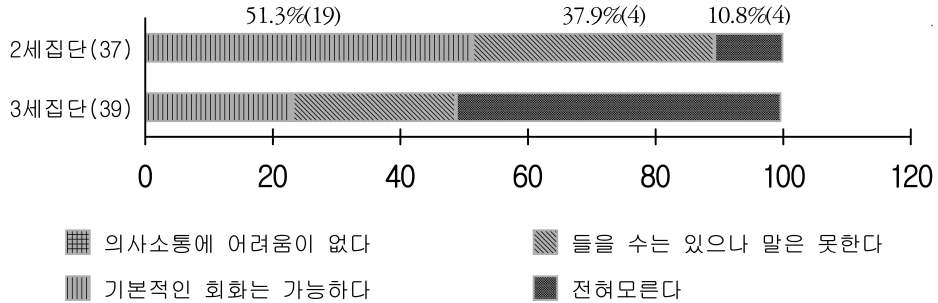
이를 다시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 세대별 응답률

2) 한국어 구사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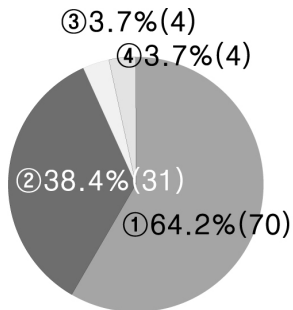
<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 응답자 수



[그림 2] 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가정에서 가족끼리 의사소통 언어

<가정에서 가족끼리 대화는 어떤 말로 합니까?> ()은 응답자 수



- ① 일본어로만 한다
- ② 한국어를 가끔 쓴다
- ③ 한국어로만 한다
- ④ 일본어를 가끔 쓴다

[그림 3] 가정에서의 한국어(제주 방언)사용 실태

4) 가정 외의 장소에서 의사소통 언어

<오사카 시내나 전철 안에서 한국인끼리 대화할 때 어느 말로 말합니까?>

- ① 일본말로 한다 - 87명
- ② 일본말을 더 많이 한다 - 13명

- ③ 한국말을 더 많이 한다 - 9명
- ④ 한국말로 한다 - 0명

<‘조선시장’이나 쓰르하시 ‘국제시장’에서 물건 살 때 어떤 말을 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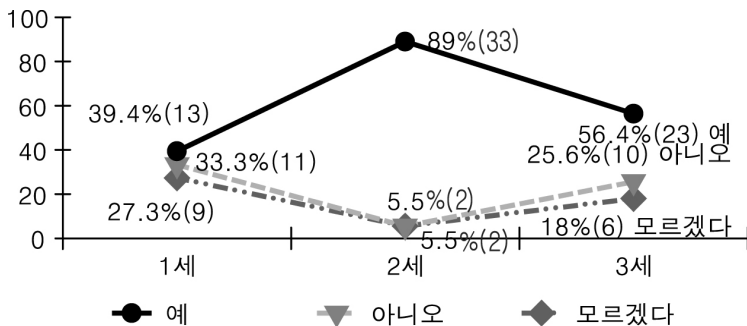
- ① 일본말만 쓴다 - 48명
- ② 일본말을 더 많이 쓴다 - 41명
- ③ 한국말을 더 많이 쓴다 - 15명
- ④ 한국말로 한다 - 5명

5) 한국어 교육에 대한 태도

모국어 교육에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일 한국인 사회의 1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배워야 한다는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초기 이주자인 고령자 1세 집단의 경우는 당시의 열악한 상황이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에 관심을 둘 수 없었고 일본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들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통합 심리가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통합 심리는 후기 이주자 집단인 부모들에게까지 작용하고 있음이 관찰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대등해진 현재도 이들에게 민족적 열등감이 한국어 사용 및 교육에 작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았다.

<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



[그림 4]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그림 4] 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제일 한국인 집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2세들로서 33/37명(89%)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 밑에는 제일 한국인 중년층 2세들의 경우 자신들과 나이가 같은 1세대들끼리 한국어(제주 방언)로 대화할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동년배인 2세들 자신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동년배인 후기 이주자들인 중년층 1세들과 동질감을 느끼고자 하는 동질감 및 결속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다소 의아스러운 점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 않은 1세들이 11명(33.3%)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인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현재 일본어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편한 응답자들로서 오히려 일본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이주 시기가 비교적 짧은 40~50대의 1세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³⁾

그러나 3세 집단의 총 39명 가운데에서 23명이 ‘예’에 응답하고 있어서 응답률이 59%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우려고 하는 응답자, 즉 3세의 10~20대들은 그들의 부모인 2세들로부터 모국어와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세대다. 그래서 자신들을 일본인으로 알고 있고 일본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서가 아니라 배우기 쉬운 제2외국어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만일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게 되면 일본 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유리할 것이라는 언어 선택 후의 부가 가치성에 대한 기대심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에 작용한다고 하겠다.

3. 제일 제주 방언 사회의 제주 방언 변화

3.1. 제일 제주 방언 사회의 아래 ‘·’ 음의 변화

제주 방언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언어 변수는 아래 ‘·’의 발음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 방언에서

3) 이들과 같이 1980년 이후에 일본으로 이주하는 소수민족들을 일본에서는 ‘뉴커머’라고 부른다. 한국인의 경우는 유학생 출신, 기술자, 상사의 일본 파견 근무 등으로 일본에 장기간 거주하는 젊은 세대 집단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60년대 말까지 비자 없이 밀항으로 일본에 불법 입국한 ‘밀항 세대’(현선운 2002,141-431)들이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앞의 그룹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다소 낮아서 정규 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어도 아직 일본어 구사 능력보다 한국어가 능숙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이들 간에 새로운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게 되고 이 집단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일본에서 태어난 동년배 2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동년배 2세들은 이들 집단에 통합하려는 욕구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980년대 이후 유학생 및 기술자로서 이주한 ‘새 이주자(NEW COMER)’ 1세들이 일본 사회 속에서 한국어 선택과 교육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제일 한국인들의 한국어 선택의 견인차 그룹이 될 것이다.

는 어두음의 아래 ‘·’의 옛 발음을 들어보기가 어려워졌다. 이 발음은 제주도 안에서도 리 단위에 거주하는 70~80세 이상의 방언 화자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멸해가고 있어서 2010년대 현재 어두에서의 ‘·’는 ‘· > ㄱ/가/거’로 변화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발음이다.

그러나 오사카 거주 제주 출신 제일 한국인 1세 집단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두 음절의 ‘·’음의 변화 과정과 속도는 현재 제주 방언의 변화 단계보다는 적어도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1.1.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집단 선정 -표본 집단 선정 과정

본 조사의 내용이 제주 방언의 보수형의 보존 확인이므로 제보자들은 예비 답사 기간 동안에 파악된 방언 화자들 중에서 제주 방언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고령자에서 중년층에 이르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선정된 제보자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과 모집단 사이에는 방언 구사력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표본 집단의 방언 보수형의 유지량이 많은 쪽으로 나타날 것(+대립 가설⁴⁾)을 전제하기로 하였다.

2) 제보자 접촉 방법 -소개 및 직접 접촉

개인, 민단, 종교 단체(개신교, 가톨릭 교회, 불교, 무속), 사회 복지 시설, 야간 중학교, 친목, 동우회, 공원(남성 집단), 시장

3) 제보자 선정 기준

- ㄱ) 본 조사 내용과 목적이 보수형의 유지와 접촉 현상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행하여야 하므로 제주 방언 구사가 능숙한 1세대.
- ㄴ) 1세를 기준으로 하되 10세 이하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왔으나 제주 방언을 ㄱ)의 정도로 구사하고 있는 1.5세.
- ㄷ) 1세지만 본 조사자와의 대화에서 일본어를 주로 말하거나 발음상 일본어의 간섭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람은 접촉 현상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본 조사 항목인 음가 ‘·’의 제보자에서는 제외하였다.

4) 통계학에서 자료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론으로 영의 가설(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 마이너스 가설(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표본 집단이 모집단보다 못하다.) 중의 하나다.

- ㄹ) 최근 10년 내에 제주도나 서울, 부산 등에서 1~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ㄻ)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대 전인 1970년대까지 이주한 1세.

3)의 제보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제주 출신 1세(33명)의 집단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제보자 집단 표

이주 시기	1920	1930	1940	1950	1960
인원 수 (33명)	2	4	10	12	5
나이 분포	95-82	81-80	80-74	89-58	62-52
이주 당시 평균 나이	14	14	19	20	21
이주 당시 나이 분포(차이)	07-20 (13)	10-15 (05)	15-25 (10)	12-43 (31)	19-25 (06)
현재 생업	무	무	무	가내 수공업(1)	향토 음식점(1) 가내 수공업(1) 식품 가게(2)
학 력	무	무	무	초중퇴(1), 초졸(1)	중 졸(2)
출신 지역	한림	대정, 조천, 삼양, 신촌	신산, 고성, 서귀, 김녕(2), 법환, 강정, 조천(2), 신촌	신촌, 평대(2), 법환, 대정(2), 제주, 오조, 시흥, 서귀, 하귀, 김녕	김녕(2), 제주, 애월, 화순

4) 조사 대상 어휘 항목(20개)

본 조사에서는 주로 음가 ‘·’의 18세기에 일어난 2단계 소실의 연장선에서 이 방언의 어두 음절의 ‘·’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어휘 항목을 3음절어 이상 8개, 2음절어 7개, 1음절어 5개로 모두 20개로 선택했다.

‘·’의 음가 표시를 음성 기호 [ɔ]로 한 것은 훈민정음의 설명에 의거하였다.

내리다/nɔrida/, 무섭다/mɔsɔpda/, 가깝다/bɔdida/, 다르다/ttɔ-nada/, 결/jɔkkɔs/, 짧다/jɔrida/,
 같다/gottida/, 갈다/khɔttij-hɔda/, 한달/hɔn-dɔr/, 나물/nɔmɔr/, 사월/sɔwɔr/, 차차/chocho/,
 달다/dɔrda/, 바람/bɔrɔm/, 메밀/mɔmɔr/, 딸/ttɔr/, 쌀/ssɔr/, 닭/dɔk/, 얼굴/nɔs/, 흙/hɔk/

5) 음가 ‘·’의 음성 기호로는 [ɐ]로 표기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ɔ]를 채택하기로 한다.

5) 조사 방법

질문 방법은 해당 어휘 항목에 대응하는 일본어를 제시하고, 이 말을 제주 방언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번역식 질문법을 채택했다. 이 질문법은 조사자와 제보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상의 혼선-제주 방언과 일본어 섞어쓰기 현상-이 제거될 수 있어서 음가 ‘·’에 대한 어휘 항목 20개를 조사하는 데 1인당 평균 20여 분 정도면 충분히 조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

3.1.2. 조사 결과

1) 이주 시기에 따른 조사 항목의 변이형의 유형

다음의 표는 1950년대 이전에 이주한 70대 집단과 그 이후에 이주한 50~60대 집단에서 조사된 20개 어휘 항목에 대한 변이형들을 종합한 것이다.

〈표-2〉 이주 시기+나이 차에 의한 변이형의 유형

어휘 항목 \ 집단	고령자 집단(전전 1세)	비고령자 집단(전후 1세)
내리다	ㄴ리다, >내리다	내리다
무섭다	ㅁ습다, ㅁ습다, ㅁ섭다.	모습다, 무섭다
가깝다	ㄸ디다, ㅸ디다	뽀디다, ㅸ드다, 곱따다.(가깝다)
다르다	ㅌ나다	또나다, ㅌ나다, (다르다)
결	ㅈ꺏디, ㅈ꺏디 저꺏디, 요	조꺏디, 저꺏디, 율, 옆, 결
쫄다	ㅈ르다,>ㅈ르다, ㅈ르다	쪄르다, ㅈ르다,>쫄브다,
같다(如,同)	ㅈ뜨다, 곱뜨다, 곱뜨다,	곱뜨다, 곱뜨다, 거뜨다, 거뜨다, 가뜨다, (같다)
같다(同)	꺏똥허다, 꺏똥허다, 꺏똥허다, 꺏똥허다, 꺏똥허다	꺏똥허다, 똑곱뜨다 (같다(如)항과 동일)
한 달	흔들, 흔덜,	흔들, 흔덜, *흔달,(한달)
나물	ㄴ물, ㄴ멸, 노물, (ㄴ물꺏), (콩지름/콩노물/콩너물)	노물, 나물(콩노물/나물)(노물꺏/꺏)
사월	스월	소월, (사월)
차차	츠츠, 초처	초초, 차차, 점점
달다	들다	들다, (달다)
바람	브름, 브름	보름, (바람)
메밀	ㅁ밀, ㅁ멸, ㅁ물 (ㅁ멸츠베기), 모물	모물, 모물, 메밀, (모물초베기)
딸	똥	똥, (딸)
쌀	쌀, 곤쌀(白米), 곤쌀	쌀, 곤쌀, 곤쌀
닭	독, 독새기	독, 독새기, (닭), (달걀),
얼굴	ㄴ, ㄴ, 양지, 얼굴	ㄴ, 얼굴
흙	흑, 흑, 흑, 흑	흑, 흑

앞의 표-2의 변이형들은 현재 오사카 거주 70대 이상과 50대 집단의 방언 사용을 통해서 지금부터 50여년 이전의 제주 방언 화자인 20대 전후(이주 당시)와 30여년 이전의 20대 전후(이주 당시) 집단 사이의 방언 변화 단계 그대로 이 사회에 유지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2) 오사카 거주 제주 출신 1세 집단의 ‘·’음의 변화

〈표-3〉 어두 음절 ‘·’의 발화 빈도수와 변이형의 분포

이주 시기 (명) 변이형	1920 (2)	1930 (4)	1940 (10)	1950 (12)	1960 (5)	1970 (4)	합 37
ㄱ뜨다	2	4	7	4			17
ㄱ트다							0
고뜨다			2	4	2	1	9
고트다			1	4	2	2	9
가트다					1	1	2
같다							0
ㅁ습다	2	1	2	1			6
ㅁ습다		2	5	5			12
ㅁ섭다		1	1	3			5
모습다				3	3	1	7
모섭다						1	1
무섭다					2	2	4
느리다	2	4	8	9			23
내리다			2	3	5	4	14
혹	2	2	6	3			13
후				3	2	1	6
혁		1	1	2			4
후		1	3	4	3	3	14

위의 표-3은 1950년대 칸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두 집단의 어두 음절의 ‘·’의 발화 빈도수의 분포가 전혀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전전 1세 집단인 1940년대까지 이주한 집단에서는 그 변이형의 모습이 대체적으로 ‘·’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서 1960년대 이후 이주자인 9명의 제보자들에게 오면 ‘·’의 변이형 칸이 완전히 비어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변이형의 분포를 보면 1950년대

에 이주한 집단은 ‘·’를 유지하면서도 변이형의 분포가 1960년대 이주자들의 변이형으로 향하고 있는 이들 세 집단 가운데에서 가장 폭이 넓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에 이주한 제보자들의 나이 분포가 89~58세에 이른다는 표-4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시기에 이주한 제보자들 중 60대들의 보수형과 개신형의 방언 사용 실태, 즉 전전 1세 집단과 전후 1세 집단 사이의 과도기적인 단계의 방언 화자들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1950년대 이전 이주 집단인 70~95세인 고령자들 안에서도 이주 시기에 따라 그 변이형의 분포가 ‘·’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퍼져가고 있음도 지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이 시기에 이미 ‘·’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집단의 이러한 속도로의 변화 양상은 전후 1세 집단 안에서도 특히 1960년대 이주한 제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도 이 표로 알 수 있다.

〈표-4〉 오사카 거주 제주 출신 1세 집단의 ‘·’음의 변화

제주 방언 ‘·[ɔ]’의 실현			
이주 시기+ 나이	전전 1세 집단	전후 1세 집단	*신 1세 집단
이주 시기	1950 초기 이전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나이 분포	95세~67세	62세~52세	75세~48세
이주 당시 평균 나이	17세	20세	26세
어두 음절 ‘·’의 발화	①80-95세 [ɔ] ②67-79세 [ɔ]>([o])	[o]>([a],[ə])	[a]≥([o])
비어두 음절의 ‘·’의 발화	[ɔ, ‘·’][i,-], [ə, ɔ]	[i,-],[u,ɾ]	[i,-],[u,ɾ]

위 표에서 ‘나이 분포’를 보면 아래 ‘·’의 보수형의 발음 보존이 60대까지 내려와 있음이 현재 제주 방언에서 아래 ‘·’의 발음 가능 세대보다 20여 년 정도 훨씬 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나이의 분포는 이들이 반세기 전 어린 나이에 이주해 갔기 때문에 당시의 아래 ‘·’의 발음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또한 () 안의 발음형은 그 발화 빈도수가 낮았으나 이들 제보자들의 자유 대화에서 청취된 변이음이다. 이 변이음들의 출현은 곧 이 음가의 변화 움직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 방언의 내적 변화 연구에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아래 ‘·’의 보존 세대인 고령자 1세대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10여 년 후인 2010년대에는 이 사회에서도 아래 ‘·’의 원형 발음은 채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4. 나오는 말

이 조사 연구는 이민 사회의 목표 사회로의 통합 심리가 모국어 선택 태도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과, 민족·국가 정체성·결속력은 모국어의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이 조사 내용의 결과에 대한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한국어의 보존은 초기 이주자인 노년층 1세 집단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한국어보다는 일본어가 일상 회화에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노년층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중 언어 화자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2세 집단으로 오게 되면 일본어로의 언어 전환이 거의 이루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 집단 사회의 2~3세대의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의 결과 79.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집계된 사실과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항목에서 ‘일본어로만 한다’의 70%와 ‘한국말은 가끔 쓴다’의 23%를 합한 93%에 이르는 항목만으로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다.

둘째, 이 사회의 언어 전환을 견인하는 세대는 젊은 2~3세대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한국어를 모국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각에서이거나 또는 여러 언어들 가운데에서 가장 습득하기 쉬운 제2외국어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학습하고자 한다.

셋째, 제일 한국인 사회의 일본어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심리적 요인은 제일 한국인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과 결속력의 약화, 그리고 민족적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요인은 양국 간에 놓여 있는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제일 한국인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일본으로 통합하게 하고 있다.

넷째, 조사 대상 어휘 항목인 20개의 어두음 음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로 합류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어두 음절의 ‘·’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중 어떤 음으로 합류하는지 일반적인 규칙은 설정할 수 없지만 대략 ‘ㄱ’음 뒤의 이 음가는 ‘ㅓ’로 합류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헌 자료를 보면 18세기 중반 이후에 어두 음절에서 이 음가가 대부분 ‘ㅏ’로 합류되었다. 이와 대비해 볼 때, 이 방언에서는 ‘ㅓ’로 합류한 것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것은 당시의 방언 차에 의한 변이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후 1세 집단인 중년층이 사용하는 방언형은 현재 제주도 방언에서 볼 때 역시 상대적

인 보수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언어 형식들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방언형과 현재 제주도 방언의 개신형과 또 다른 방언 차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 집단의 방언 변화와 현지의 방언 변화의 대비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2010년 현지 구두 조사 결과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재일 한국인들의 모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들은 물론 재일 한국인 사회의 한국어 교육도 급속도로 성장,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재일 한국인 사회의 고령화 집단 안에 남아있는 반세기 이전의 지역 방언들은 채록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그것은 언어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과 같이 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죽으면 개인이 쓰던 언어도 죽는다. 앞으로 재일 한국인 사회의 고령화 화자들의 생존 기간은 매우 짧다. 이들이 생을 마치게 될 때 재일 한국인 사회에 남아있던 반세기 이전의 민족어도 소멸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족어 발굴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재일 한국인 사회의 한국어 보존 실태 조사는 물론 다른 지역 이민 사회의 한국어 사용 실태 및 보존 현황에 대한 조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정희(2002a), “언어 접촉과 언어 변화 -오사카 거주 제주 출신 1세 화자들의 제주 방언 보존에 관한 조사”, 「국어학」 42, 국어학회.
- 강정희(2004a, 공저), 「제주 여성 전승 문화」, 제주도.
- 강정희(2004b),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 태도 조사 - 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86, 한국어문화회.
-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 이익섭(2000). 사회언어학(개정판). 서울: 민음사.
- Ronald Wardhaugh(1992),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2nded.).Oxford UK: Blackwell.
- 金美善(1998), <在日コリアン一世の日本語—大阪市生野區に居住する一世の事例—> 「日本學報」 17, 大阪大學文學部日本學研究室.
- 金容權(1986), <オンマの日本語>, 「言語生活」 第418號, 筑摩書房.
- 任榮哲(1992), “二言語併用社會の言語學的研究 -在日・在米韓國人の實態調査結果から-” 日本語學, VOL.11, 明治書院
- 玄善允(2002), 「在日の言葉」, 同時代社, 東京.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민족어(국어)를 중심으로

송 재 목 |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민족어(국어)¹⁾를 중심으로

송재목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1. 머리말

일본에는 해방 이후 여러 형태의 민족학교들이 존재해 왔다. 이 글에서는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학교에서의 교과 내용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에서는 해방 후 재일동포 사회의 역사 속에서 민족학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별로 살펴보겠다. (3)에서는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의 변천을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시기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결성 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4)에서는 민족학교에서의 교과 내용 변천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논의하겠다.

2. 재일동포 사회와 민족학교

2.1. 재일동포 사회의 전후사²⁾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 일본 전국에 ‘국어강습소’ 개설

1945년 10월 15일: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결성³⁾

1) 여기에서의 민족어란 재일동포 사회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을 지칭한다.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우리말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용하는 집단의 성격이나 사용하는 장면에 따라 다르다: 민족어, 국어, 우리말, 모국어, 한국어, 조선어, 한국조선어, 코리아어, 한글, 한글어, 총련조선어 등. 이 글에서 한국어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는 대한민국의 언어라는 의미와 외국어와 구별되는 남북의 언어를 포함하는 총칭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2) 김덕룡 2002, 신창수 2005 등 참조

- 1946년 4월: 국어강습소를 규합하여 초, 중, 상 3년제의 초등학교원으로 개편⁴⁾
- 1946년 8월: 오사카조선사범학교(조련오사카본부 부속 오사카조선사범학교) 설립⁵⁾
- 1946년 10월: 도쿄조선중학교 창립을 계기로 중등학교원 창설
-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민단) 결성⁶⁾
- 1947년 12월: 중앙조련사범학교(도쿄) 창설
- 1948년 1월: 일본 문부성 조선인학교 폐쇄령 통고⁷⁾, 조련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 발족
- 1948년 1-5월: 4.24 교육 투쟁(한신교육투쟁)⁸⁾
- 1948년 5월 5일: 일본 문부성과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각서 교환⁹⁾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 1948년 10월 4일: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결성
- 1949년 9월 8일: 조련 강제 해산
- 1949년 10월 13일: 제2차 조선인학교 폐쇄령 발령
- 1951년 1월 9일: 재일본 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결성, 민족교육 사업을 이어받아 주도¹⁰⁾
- 1955년 5월 25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결성
- 1956년 4월 10일: 조선대학교 창립¹¹⁾
- 1957년 4월 8일: 평양으로부터 제1차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지원¹²⁾
-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

- 3) 조련의 교육 이념: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공헌할 수 있는 조선의 국민을 양성한다.(신창수 2005:274)
- 4) 1946년 9월에 초등학교원을 6년제의 정규 학교로 발전시킴
- 5) 1948년 3월 일본 당국에 의해 폐쇄
- 6) 조련의 제2회 임시 전국 대회(1946년 2월26~27일)에서 평양을 지지하는 정치 노선을 명확히 함
- 7) 미군정(GHQ)이 조련을 좌익 단체로 규정하고 규제, 탄압 정책으로 전환
- 8) 오사카부청 앞에서 2만 명의 동포들이 시위 투쟁. 일본 무장 경찰대의 습격으로 김태일 소년 사살
- 9)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의 요구 조건: i)교육 용어는 조선어로 한다, ii)교과서는 조선인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한다, iii) 학교의 경영 관리는 학교 단위로 조직된 학교 관리조합에서 한다, iv) 일본어는 정과로 가르친다.
- 10) 민전의 교육관: 재일 조선인 자제를 조선의 아들과 딸로 교육한다.
- 11) 창립 당시에는 2년제 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58년 4년제로 개편. 1968년 4월 17일 각종학교로서 인가. 1975년 1월 상영조선초중급학교가 학교 법인을 취득함으로써 모든 조선학교가 학교 법인 인가 취득. 2007년 현재 8개의 학부를 가진 종합대학으로 졸업생 14,000명
- 12) 1차 교육 원조비: 10만 파운드(1억 2천만엔), 156차 교육 원조비(2010년 4월): 1억 8403엔, 44년간 도합 약 466억엔 원조

2.2. 민족학교의 종류

일본에서 민족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학교에는 크게 총련의 통제를 받는 조선학교와 한국계 학교들로 나눌 수 있다.

- (1) 조선학교¹³⁾ : 2010년 8월 현재 99교 - 초급학교(55), 중급학교(33), 고급학교(10), 대학교(1)
조선학교 수의 변화

	1996	2000년	2007년 12월	2010년 8월
초급	76	66	62	55
중급	52	43	36	33
고급	12	12	11	10
대학	1	1	1	1
계	141	122	110(70교)	99(69교)

- (2) 한국계 학교(5)¹⁴⁾: 백두학원(건국학교 유소중고등학교, 1946), 금강학원(유소중고등학교, 1946), 교토국제학원(국제중학교·고등학교, 1947), 도쿄한국학교(초등부·중고등부, 1954), 코리아국제학원(중등부·고등부, 2008)

3. 민족학교의 교과서 개편

민족학교 중에서 한국계 학교는 대부분 일본의 학교 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한 ‘1조학교’로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인정하는 검정 교과서를 사용한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 이들 학교와 일본의 다른 학교 사이의 차이점은 한국계 학교에서는 ‘국어(한국어)’와 ‘국사(한국사)’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과목에 대한 독자적인 학습 지도 요령이나 교과서가 존

13) 2007년 12월 현재, 조선학교 학생 수 1만 2000명, 고급학교 졸업생 11만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국적은 ‘조선’이 70%, 한국이 30%(박삼석 2008:103). 조선학교의 학교 인가 형식은 일본의 ‘학교 교육법 83조’에 따른 각종학교(各種學校)에 속한다. 각종학교란 ‘학교 교육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학교 이외의 것으로 학교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이행하는 교육 시설’(학교 교육법 제83조)이다. 1조교의 인가를 받으면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쳐야 한다. 일본 국기 게양, 일본 국가 제창 등의 의무를 지기도 한다. 반면 각종학교는 일본 문부성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14) 건국학교와 금강학원, 교토국제학원은 1조교이고 도쿄한국학교는 각종학교이다. 2008년 4월 개교한 코리아국제학원은 아직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각종학교 신청 예정이다.

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학교에서의 교과 내용 변천이란 곧 일본 학교에서의 교과 내용 변천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교재를 편찬해 왔던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시기의 민족학교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된 후 새롭게 정비된 ‘조선학교’에서의 교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겠다.

3.1. 조련 시기의 교과서 편찬

1945년 해방이 되자 재일동포들은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국에 국어강습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1945년 10월에 결성된 재일동포들의 전국적인 조직인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은 곧 국어강습소들을 규합하여 ‘초등학교’로 개편하고 이어서 ‘중등학교’도 만들기 시작한다. ‘조련’ 결성 이후에서 ‘총련’ 결성 이전까지의 교과 내용 변천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¹⁵⁾

(1) 1945년 10월(조련 결성) - 1946년 2월(조련 제2회 임시 전국 대회):

- 재일 조선인 귀국 준비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조선어와 조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학습 활동 필요
- 계몽적인 성격을 가지는 교재를 서둘러 편찬/보급
- 잠재적, 계몽적 성격을 가지는 최소한의 교재를 등사 인쇄, 출판해서 조련의 지방 본부에 보내 보급

(2) 1946년 2월 - 1947년 1월(조련 제9회 중앙위원회):

- 조련이 전조직의 힘을 동원해 교재 작성에 임함
- 국어강습소의 통폐합에 의해 설립된 초등학교 교재 대책 필요
- 교재 편찬 활동을 한층 정규적인 것으로 조직화
- 초등학교의 교재를 초급, 중급, 상급의 세 등급으로 편성하여 편찬

(3) 1947년 1월 - 1947년 10월:

- 조련의 교재 편찬과 보급 활동이 가장 충실했던 시기
- 학년제 도입에 따라 초등학교 교재의 학년별 작성

15) 김덕룡 2004(35-53), Urihappkyo(2001:135) 참조

- 중학교 설치와 관련해 중등 교육 교재의 편찬
- 청년/주부 교육의 교재 작성

(4) 1947년 11월(조련 제4회 전국 대회) - 1949년 9월(조련 해산):

- GHQ와 일본 정부에 의한 민족교육의 방해와 탄압. 이에 대한 동포 사회의 반대 운동
- 조선학교의 교육을 교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하기로 한 규율을 실질적으로 확립
- 교과서 부족과 지방 본부 활동의 미비로 인한 교과서 사용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과서의 통일적 사용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
- 교재 편찬의 문제점: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와 미점령군육군부(USOF)에 의한 이중 검열, 남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섬에 따른 교포 사회의 분열
- 1948년 10월까지 조련이 편찬, 출판한 각종 교재: 93종류, 120만여 부, 그 외에 24종류, 30만부에 달한다.

(5) 1949년 10월 - 1955년 5월(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결성):

- 조선인학교 폐쇄령 이후 민족학교 괴멸적인 타격을 입음
- 조선인학교가 폐쇄되거나 공립화되어 교육 체계가 분산됨. 교재편찬위원회의 기능 약화
- 교육 현장에서 조선어 교과서를 사용하기 어려워짐
- 공립화된 학교에서는 수업은 물론 자치회 등의 운영도 일본어로 진행하도록 강요되고 민족 과목은 과외로만 인정되어 학생들의 모국어 능력이 저하되었다.

3.2. 총련 결성 이후의 교과서 개편 사업

‘조련’이 해산되고 민족학교들이 폐쇄되면서 재일동포들의 민족 교육은 구심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결성되면서 민족학교들은 ‘조선학교’라는 형태로 다시 재건되기 시작한다. ‘조선학교’의 교과서는 ‘총련’ 결성 이후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개편되어 왔다.¹⁶⁾

16) 조선학교의 교과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하고 총련의 산하기관인 ‘학우서방’에서 발행

(1) 1차(1955-57):

- 민족 교육을 공화국 교육의 일환으로 위치 매기고 그 방침에 따라 교육의 목적, 방법, 운동을 찾아 나감. 즉 공화국의 해외 공민으로서 ‘귀국’을 전제로 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내용을 체계화(김덕룡 2004:161, ウリハッキョ 2001:135).
- 중급부에서 한자를 삭제하고 민족성을 키우는 기본 과목으로서의 국어 시간 수를 늘림. 조선어 문법 교육 강화(김덕룡 2004:163)

(2) 2차(1963-64):

- 공화국의 교과서와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 참고로 해서 교과서 개편(조선신보 2003.1.14.)
- 공화국의 해외 공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전면에 내세움(조선신보 2003.1.14.)
- 전국의 조선학교에서 통일된 교과 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기 시작(Ryang 1997:55)
- 일본의 ‘국어’ 교과서를 일본어 교과서로 그대로 사용(朴校熙 2002)

(3) 3차(1974-77):

- 공화국의 교과서를 입수하여 제일 조선학교의 실정에 맞추어서 재편집함. 재편성 과정에서 재일동포의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단원들을 더함
- 1960년대 후반부터 공화국을 석권한 주체사상에 의한 유일사상 체계화에 따라 교과서도 사상 교육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대부분의 사회과학 과목의 내용은 획일적으로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들의 역사와 사상을 반복해서 다룸. 일본어나 영어 교과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다룸(ウリハッキョ 2001:136).
-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를 폭넓게 도입. 김일성과 관련된 과목들이 도입: 김일성 주석의 유년기(초등학교), 김일성 주석의 혁명 활동(중학교),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역사(고등학교). 김일성 교시를 암송하는 것이 조선어와 조선 역사의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Ryang 1997:55)
- 일본어도 총련에서 출판한 교재를 사용. ‘국어(우리말)’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 교과서 표기에 있어서는 우리말을 제1언어로 설정하여, 지시어, 연습 문제 등을 우리말로 표현(박교회 2002). 일본어 수업에서는 ‘공화국 해외 공민, 혁명, 지도자, 사회주의 건설, 착취, 노동 계급, 계급의 적’ 등과 같이 일본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어휘들을 통해 공화국과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침.
- 국어 교과서에는 재일동포 작가의 해방 전의 현대 작품 등을 폭넓게 도입(조선신보 2003.1.14)

(4) 4차(1983-1985):

- [조선어는 모어이고 일본어가 제2언어]라는 전제에 기초한 이전의 교과서 내용을 고쳐 [조선어가 제2언어]라는 현실을 전제로 함(김 이리나 1994:186).
- 종래 귀국을 전제로 한 ‘사상 교육’에서 일본의 실정과 재일동포 자녀의 생활에 기반한 ‘민족어 교육’으로 방침 전환을 시도
- 공화국 교과서를 그대로 모방하여 편찬, 출판해 온 것을 재점검. 초·중고에서 반복되던 지도자들의 역사를 일원화하고,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에 대한 상식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 국어: 모국어 능력과 민족적 정서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문예 작품이나 생활에 뿌리를 둔 교재로 교과서를 편찬. 초급부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어와 표현을 효율적으로 습득해 조선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실생활을 반영한 문장과 관용구, 문형 학습에 중점을 둬. 중고 과정에서는 남북 작가들의 작품, 재일동포 작가의 작품, 해방 전의 작품, 고전문학, 역사상의 인물이나 일화, 신화와 문물의 소개, 시조 등을 다룸(우리ハッキョ 2001:137).
- 일본어: 일본어 수업 시간을 대폭 늘림. 교과서도 60-85%를 일본인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움. 조선어로 가르치던 일본어 수업을 교사가 수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본어로 가르침(우리ハッキョ 2001:137, 박교회 2002).
- 영어 과목도 조선어의 번역이 아니라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만듦(우리ハッキョ : 137).

(5) 5차(1993-95)

- 교과서 편찬 사업이 그 구상에서 집필까지 전부 재일동포 교육자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짐. 전체적으로 일본어와 일본 역사에 대한 교육과 일본어의 사용이 크게 증가(Ryang 1997:51, 우리ハッキョ 2001:139).
- 조선학교의 교과서 내용은 민족 과목을 제외하면 일본 학교의 교육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박석삼 1997: 194).
- [김일성 주석의 유년 시절, 김일성 주석의 혁명 역사] 등과 같이 사상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과목들이 폐지되고 다른 과목들에서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줄어들(Ryang 1997:51).
- 국어: 구어체 교육 강조. 이전의 국어 교재에서는 ‘-이다, -한다’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에요, -야, -해요, -해’로 대체됨. 학년에 따라 이솝 이야기 등 세계의 명작을 다루어 국어 교육을 통해 세계 문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들

이 포함됨(Ryang 1997:57, 박석삼 1997:198, 신창수 2005:282).

- 조선에서 살고 있다는 가정을 버리고 재일교포들의 일상생활을 교과서에서 다루기 시작함. 조직 밖에서의 생활에서도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Ryang 1997:53-54).
- 일본어: 재일동포의 필요성에 따라 일본어 교육에 힘을 기울임. 하이쿠, 단가, 소설, 고전 등에서 저명한 일본인 작가의 작품을 다수 게재. 일본어 교육 시간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전과 비교해 120시간 늘리고 초·중고의 전 과정에서 작문과 표현력을 기르도록 지도. 교재도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동화와 소설을 다루고 있다(박석삼 1997:199).
- 역사: 반일적인 기술이나 한국에 대한 비난이 줄고 중립적 기술. 한국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음(Ryang 1997:54).
- 한자: 일본학교에 맞추어서 초등학교에서 1006자의 교육한자, 중/고등학교에서는 상용한자 1945자를 다룸(박석삼 1997:199).
- 사회: 초3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에 도입. 일본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조선신보 2003.1.23).

(6) 6차(2003-06):¹⁷⁾

- 일본학교의 주5일제 도입에 따라 조선학교도 부분적으로 주5일제 도입. 토요일 중 한 달에 한번 휴일, 나머지 토요일은 과외 활동이나 과외 수업. 수업 시간이 초/중급부는 주 2시간, 고급부는 주 3시간 줄어듦.
-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 지도 요령보다 도달 목표를 높게 유지: 일본 소학교(1-6년)의 연간 총 수업 수는 869시간이지만 조선학교 초급부는 1011시간.
- 국어: 구어 교육(듣기, 말하기)을 강화, 초·중고 전체를 통해서 수업 내용의 30-40%를 구어 교육에 할애. 초급부에서는 주변의 생활 장면을 취한 스토리성이 있는 기초적인 회화 중심. 중급부에서는 ‘자기소개, 전화 걸기’ 등의 응용편, 고급부에서는 연령에 맞는 장면의 전개로부터 말하기·듣기 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함. 초·중고를 통해 풍부한 민족성을 키울 수 있는 교재를 많이 도입. 전 학년을 통해 녹음, 녹화 교재를 포함.
- 역사: 남북과 해외동포들도 공유할 수 있는 통일 교과서 지향.
- 사회: 남북 사회와 통일 문제를 취급.

17) 조선신보 2003.1.23. 참조

(조선신보 2003년 1월 24일)

제1차 1955-1957	사회주의 조국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어 교육과 애국주의를 강화 [사상적으로는 고상한 국제주의적 애국사상으로 무장하고 생활 면에 있어서는 자각적 자율과 민주적 도덕을 확립하며 학식 면에서는 독(讀), 서(書), 산(算)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 학력을 향상시킨다.] ¹⁸⁾
제2차 1963-1964	공화국의 해외 공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전면에, 공화국의 교과서와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 참고로 해서 교과서 개편 [조선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조국의 건설과 미래를 깊이지고 세상 사람들과 우호를 도모하는 조선인으로 키운다.]
제3차 1974-1977	조선과 연대해 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동포 자녀들의 실정을 한층 고려. 총련 애국 사업에 패턴을 둔 교과서 개편. 또한 고급부 이수과(理數科) 교과서를 사회과학계반, 자연과학계반으로 나누어서 편성 [국어 교과서에서는 아동생도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제일동포 작가의 해방 전의 현대 작품 등을 폭넓게 도입하였다.]
제4차 1983-1985	민족 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사회 일본어 교육을 강화 [민족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민족적 자주성이 확립되어 조국과 일본 또는 국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겸비한 조선인이다. 민족 교육의 현행 커리큘럼은 이러한 이상적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5차 1993-1995	21세기를 전망하여 조선학교 아동생도의 보호자들의 필요성에 맞춘 내용으로 개편.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제일동포상을 염두에 두고 122점에 달하는 교과서를 일신 [과목의 배열과 내용 편성에 있어서 민족적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제일 조선인 자녀의 실정에 맞추어서 개편했다.] ¹⁹⁾
제6차 2003-2006	민족성을 갖추고 21세기 동포 사회를 계승,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인재, 북남 조선과 일본, 국제 사회에서 특색 있는 활약을 할 수 있는 높은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교과서 개편

18) 1955년 5월의 총련 결성 대회에서 채택된 활동 지침에서

19) 1993년 9월, 「民族教育だより」

3.3. 5차와 6차 국어 초급 교과서의 비교

1993년도에 개편한 5차 교과서와 2003년도에 개편한 6차 교과서 중에서 초급 국어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 (1) 각 학년에서 단원의 전체 수가 줄어들었다: 초급1(67>53), 초급2(28>24), 초급3(28>22)
- (2) 개별 단원에서의 학습량이 많아졌다.
- (3) 초급 1(상)의 그림 교재에서는 1993년도 교과서에서는 1-6과까지 단원 주제가 없이 한글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3년도 교과서에서는 모든 과에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주제를 두고 있다.
- (4) 초급1(상)의 2003년도 교과서에서는 1-9과까지 각 과별로 보호자용의 ‘말지도’ 항목을 두어 가정에서도 국어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5) 초급 1(하)부터 초급부 교과서 뒷부분에 아동극의 각본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 (6) 초급 2학년부터 교과서 제일 뒷부분에 신출 한자표를 두고 있다.
- (7) 초급 1학년에서는 한글과 단어, 문장 유형을 학습시키고 초급2에서는 본문과 연습/연습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연습 문제는 1993년도 판에서는 ‘잘 읽어보자(요), 잘 새겨보자(요)’를 중심으로 ‘말해보자(요), 글을 지어보자(요), 잘 들어보자(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도 판에서는 ‘읽어보자(요), 말을 늘이자(요)’가 중심이며 ‘생각해보자(요), 말해보자(요), 써보자’가 들어 있다. 1993년도 판에서는 ‘글을 지어보자(요)’가 초급2에서부터 들어 있으나 2003년도 판에서 ‘써보자’는 초급4부터 포함된다.
- (8) 1999년도 교과서의 초급1(상, 하) 교과서에는 차례가 없고 초급2부터 차례가 있으나 2003년도에는 초급1(상)부터 모든 교과서에 차례가 있다.
- (9) 1993년도 교과서에서는 초급1만이 큰 책판(18.2 x 25.8cm)이고 초급2부터는 작은 책판(15cm x 21cm)이지만 2003년도 교과서에서는 초급1에서 초급3까지 큰 책판을 쓰고 있고 초급4부터 작은 책판을 쓰고 있다.

4. 민족학교 교과서 개편의 방향성과 민족학교 교육의 의의

1945년 해방 직후에 설립된 ‘국어강습소’에서 시작된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은 지난 65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은 교육 이념과 교육을 위한 전제가 변함에 따라 많이 변했다. 우선 민족학교에서의 교육은 해방 후 70년대까지 ‘귀국을 전제로 한 교육’에서 그 후 일본

에서의 정주, 즉 일본 현지인으로서의 생활을 전제로 한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민족학교의 교육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에서 ‘재일동포 사회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주체사상) 교육’에서 ‘민족의식 교육’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교과서 작성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주로 공화국 교과서를 참조하다가 나중에 일본 학교의 교과 과정을 참조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현실에 맞는 교과서를 작성하게 되었다.²⁰⁾

지금까지 조선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친북적인 정치적 색채와 또 한국어와 다른 언어적인 특성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조선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성공적인 교육이었다. 조선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현재 주로 재일동포 제3 세대인 교사들이 제4, 제5 세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3 세대의 교사는 물론 제4, 제5 세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모어는 당연히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이다. 즉 외국어인 한국어를 조선학교에서 배워서 이를 다음 세대의 동포 자녀들에게 외국어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²¹⁾. 그리고 조선학교를 졸업하면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외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 대상자들에 대한 한국어의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학교는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경우이다. 조선학교는 일본어와 영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을 우리말로 교육하여 졸업생들이 상당 수준의 우리말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다. 이는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하나의 모델적인 사례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교육 과정과 교과 내용을 보다 깊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재일동포 민족학교에서의 교과 내용 변천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한 민족학교는 해방 직후에 설립된 ‘국어강습소’를 뿌리로 한 조련 시기의 민족학교와 총련 결성 후 총련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민족학교는 현지 정부의 간섭

20) 공화국 교과서의 특징: 1)김일성의 항일 투쟁기의 신화화, 2)반일 사상, 3)반미 사상, 4)반한 사상, 5)공산주의의 이상화, 6)유일사상과 주체사상의 강화(김동규 1981). 조선학교에서 현재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에서는 공화국 교과서의 특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21) 조선학교에서 한국어(조선어)는 결코 외국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어가 학생들에게 모어는 당연히 아니다. 조선학교의 생도들에게 모어는 일본어지만 그렇다고 한국어(조선어)를 외국어라고 다루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러한 재일동포들의 언어 상황을 구별하기 위해 田中克彦(1981)에서는 모어와 모국어를 구별하여, 재일동포들의 모어는 일본어지만 모국어는 조선어(한국어)라고 하고 있다.

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해 온 유일한 교육 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한국학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민족학교의 교과 내용은 비록 평양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하에서 편찬되어 오고 있지만 평양의 교과서와도 다르고 한국의 교과서도와도 다르고 일본의 교과서와도 다르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여 재일동포 사회의 뼈대를 형성해 왔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한다.

조선학교는 현재 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이 정치적으로 표면화되면서 조선학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차별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교 학비 무상화 정책’에서 일본 학교는 물론 국제학교와 같은 다른 각종학교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조선학교는 아직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²²⁾ 조선학교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개별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서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별과 정치적인 편견을 극복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선학교에서 배운 한국어가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한류와 같은 문화적인 영향력의 확대로 인해 일본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조선학교에서 배운 한국어가 조선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조선학교는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학교가 될 것이며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1993) 『국어 초급1(상)』, 『국어 초급1(하)』, 『국어 초급2』, 『국어 초급3』, 학우서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2003) 『국어 초급1(상)』, 『국어 초급1(하)』, 『국어 초급2』, 『국어 초급3』, 학우서방.

김송이(1993) 재일 자녀를 위한 총련의 민족교육 현장에서 -오사카 조선고급학교에서의 <국어>수

22)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동포들의 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교 학비 무상화와 관련해서도 ‘민단’은 조선학교에 대해 학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2010년 10월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조선학교 생도의 30%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외 국민이다.

- 업과 <세계문학>수업을 두고, 이중언어학회지 제10호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215-231.
- RYANG, Sonia (1997) *North Koreans in Japan*, Westview Press.
- 高贊侑 (1996) 『國際化時代の民族教育』、東方出版。
- 金德龍 (1994) 在日朝鮮人子女のバイリンガリズム、『日本のバイリンガリズム』(ジョン・マーハ/八代京子編)、研究社、125-148.
- 金德龍 (2004) 『朝鮮學校の戦後史 1945-1972 [増補改訂版]』 社會評論社。
- 金東圭 (1981) 南北韓の教育發展過程における異質化現象の比較研究-南北韓の思想教育と國語教育の分析評価-, 早稻田大學文學研究科、文學博士學位論文。
- キム、イリーナ (1994) 朝鮮總聯の朝鮮語教育、『新しい日本觀・世界觀に向って』(ジョン・マーハ/本名信編)、182-199.
- 田中克彦 (1981) 『ことばと國家』、岩波新書175. 岩波書店。
- 前田眞彦 (2005) 韓國系民族學校の事例、『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眞田伸治/外編)、227-269.
- マーハ、ジョン他 (1994) 日本におけるコリアン維持情況、『新しい日本觀・世界觀に向って』(ジョン・マーハ・本名信編)、國際書院。
- 朴校熙 (2002) 在日朝鮮初級學校の「日本語」教科書についての考察、『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發表要旨集』102、66-69.
- 朴三石 (1997) 『日本のなかの朝鮮學校』、朝鮮青年社。
- 朴三石 (2008) 『外國人學校：インターナショナル・スクールから民族學校まで』、中央公論新社。
- 眞田伸治/外編 (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大阪：和泉書院。
- 申昌洙 (2005) 民族教育の歴史と朝鮮學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眞田伸治/外編)、271-297.
- 生越直樹 (1997) 朝鮮語の社會言語學的研究、『日本語と朝鮮語 上卷 と展望編』(國立國語研究所)、51-64、くろしお出版。
- ウリハッキョをつづる會 (2001) 『朝鮮學校ってどんなところ?』、社會評論社。
- 植田晃次 (2001) 『總聯朝鮮語』の基礎的研究-そのイデオロギーと實際の重層性、『「正しき」への問い-批判的社會言語學の試み』(野呂香代子/山下仁編)、111-147、三元社

1993년도와 2003년도 초급학교(1-3) 국어 교과서의 과별 제목

	1993년도	2003년도
초급1 (상)	1-6, 7 고기, 8 누나, 9 구두, 10 거리, 11 도마도, 12 바다, 13 소나무, 14 어머니, 15 아버지, 16 산, 17 우리 동무, 18 줄당기기, 19 그림을 그려요, 20 북을 울려라, 21 집으로 가자, 22 춤을 추자요, 23 키, 24 토요일, 25 편지, 26 할아버지, 27 조국	1 이름이 뭐니, 2 안녕하십니까, 3 이견 뭐라고 해요, 4 여기가 어디니, 5 공부시간이에요, 6 쉬는 시간이야, 7 점심 먹자, 8 깨끗이 해요, 9 내가 할래, 10 아이, 11 고기, 12 누나, 13 구두, 14 거리, 15 어머니, 16 바다, 17 수도, 18 아버지, 19 산, 20 우리 동무, 21 바줄을 당겨라, 22 그림을 그리자, 23 북을 울려라, 24 잡지를 봅시다, 25 춤을 추자요, 26 누가 더 크니, 27 오늘은 토요일이야, 28 어디 아프니, 29 할아버지, (가가표), (말꼬리잇기놀이)를 하자요
초급1 (하)	28 만경대, 29 제비, 30 계산공부, 31 외할머니가 오십니다, 32 풍풍 튀어라, 33 의사놀이, 34 생일선물 받아요, 35 색동옷, 36 낮잠을 자요, 37 나는 무엇일까, 38 통일열차 달린다, 39 고구마밭, 40 백두산, 41 제일 좋아요, 42 꽃을 꽃아요, 43 청소를 합니다, 44 푹푹푹 알려줍니다, 45 어느것이 빠를까요, 46 곱게곱게 쓰지요, 47 신호등, 48 짹자궁, 49 개미와 매미, 50 한주일, 51 새끼돼지 삼형제, 52 웬일까요, 53 똑바로 앉자요, 54 설인사, 55 우리 학교 운동장, 56 많고많아요, 57 우리 나라, 58 나는나는 윌터이다, 59 다람쥐와 너구리, 60 시를 읊어요, 61 재미나는 수수께끼, 62 돌맞이날, 63 옷차림, 64 봄, 65 여름, 66 가을, 67 겨울	30 조국으로 가자, 31 세배를 드려요, 32 외할머니가 오십니다, 33 풍풍 튀어라, 34 의사놀이, 35 생일선물 받아요, 36 색동옷, 37 답이 맞아, 38 몇살이니, 39 통일열차 달린다, 40 고구마밭, 41 백두산은 높은 산, 42 제일 좋아요, 43 꽃을 꽃아요, 44 깨끗이 닦자, 45 시계는 푹푹, 46 어느것이 빠를까요, 47 곱게곱게 쓰자요, 48 신호등이 켜졌어요, 49 짹자궁, 50 개미와 매미, 51 동물원구경, 52 많고많아요, 53 똑바로 앉아서 책을 읽자요, (부록) 함정에 빠진 호랑이
초급2	1 인사, 2 봄비, 3 식구, 4 2학년생, 5 식사, 6 욕심많은 개, 7 세수, 8 어깨동무, 9 꽃밭, 10 의 좋은 형제, 11 그림일기, 12 누구의 그림일기, 13 계의 다리, 14 동물원구경, 15 경로의 날, 16 총맞은 거리기, 17 거리, 18 조그만 화분, 19 책 읽기, 20 부지런한 닭, 21 하루일과, 22 몸을 깨끗이, 23 줄넘기, 24 돌배 판 이야기, 25 청소, 26 청개구리, 27 무엇일까요, 28 빨간 구두	1 2학년생, 2 무엇일까, 3 봄비, 4 돌잔치, 5 새끼돼지 삼형제, (돌반침의 읽기), 6 줄넘기, 7 그림일기, 8 우리가 당변이야, 9 욕심많은 개, 10 경로의 날, 11 계의 다리, 12 어깨동무, 13 거리에서, 14 부지런한 닭, 15 의좋은 형제, 16 빨간 구두, 17 총맞은 거리기, 18 년하장쓰기, (물어보는 말), 19 함께 놀자, 20 조그만 화분, 21 밥먹을래요, 22 청개구리, (대답하는 말), 23 좀 도와줘, 24 사계절이 다 좋구나, (부록) 돌배 판 이야기, (신출한자표)

초급3	<p>1 백두산, 2 날씨, 3 사자와 쥐, 4 줄뛰기노래, 5 인형놀이, 6 제비, 7 두 친구, 8 동서남북, 9 온돌집, 10 위생검사, 11 살구이야기, 12 독서카드, 13 무얼 잡았나, 14 뽕틀운동, 15 우리 음식, 16 놀고먹던 꿀꿀이, 17 문익점, 18 나무, 19 지혜 있는 까마귀, 20 년하장, 21 원죽, 22 수건돌리기, 23 농부와 얼룩이, 24 전화, 25 금도끼와 은도끼, 26 솜박곡질, 27 령리한 아이, 28 친한 동무</p>	<p>1 우리가 잘해야지, 2 백두산, 3 사자와 쥐, 4 별맞이야, 5 개미, 6 친한 동무, 7 금도끼와 은도끼, (<아니>를 나타내는 말), 8 비를 긋자, 9 일기, 10 들놀이, 11 위생검사, 12 놀고먹던 꿀꿀이, (줄어든 말), 13 여보세요, 14 말잇기노래, 15 령리한 아이, 16 반가운 엽서, 17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18 뽕틀운동, 19 솜박곡질, 20 온돌집, 21 옷을 입히자, 22 농부와 얼룩이, (문장부호), (부록) 양념마을의 이야기, (신출한자표)</p>
-----	--	---

초급학교(1-3) 국어 교과서

국어 초급1(상) (1993년도)	국어 초급1(상) (2003년도)
1	1 이름이 뭐니
-	입학축하
	<p>말지도: ◦동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는 말을 배웁니다. ◦자기의 이름과 나이를 대답하는 말을 배웁니다. ◦바로 앉자요 라는 말을 듣고 행동합니다. ◦연필을 바로 쥐는 법을 배웁니다.</p>

국어 초급1(상) (1993년도)	국어 초급1(상) (2003년도)
24 토요일	27 오늘은 토요일이야
<p>ㅌ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튜 트 티</p> <p>오늘은 기다리던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들놀이를 갑니다.</p>	<p>ㅌ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튜 트 티</p> <p>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오늘은 토요일이야. 어디로 가니? 차를 타고 들놀이를 간단다.</p>
<p>탁구 탁구공 통줄임 봉투 턱 털모자 톱</p>	<p>턱 봉투 탁구를 친다 먼지를 툴다</p>

국어 초급1(하) (1993년도)	국어 초급1(하) (2003년도)
40 백두산	41 백두산은 높은 산
표 피읍 백두산은 우리 나라 산입니다. 백두산은 높은 산입니다. 천지는 깊고 푸릅니다. 백두산은 가고싶고 보고싶은 산입니다.	표 피읍 백두산은 우리 나라 산입니다. 백두산은 높은 산입니다. 천지는 깊고 푸릅니다. 백두산은 보고싶고 가고싶은 산입니다.
숲 나뭇잎 무릎 높은 산 깊은 바다 나는 앞에서 걸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걸어요. 높이를 잽니다. 깊이를 잽니다.	산이 참 높구나. 바다가 참 깊구나. 높이를 재요. 깊이를 재요. 나뭇잎이 푸르다. 무릎을 편다. 나는 앞에서 걸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걸어요.

국어 초급2 (1993년도)	국어 초급2 (2003년도)
제2과 봄비	제3과 봄비
보슬보슬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평양에서 보낸 꽃씨 파릇파릇 싹터요. 너도나도 모여서 정성담아 심은 꽃 울긋불긋 피라고 보슬보슬 내려요. 곱게 피운 꽃소식 조국으로 보내자 속삭이며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보슬보슬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조국에서 보낸 꽃씨 파릇파릇 싹터요. 너도나도 모여서 정성담아 심은 꽃 울긋불긋 피라고 보슬보슬 내려요. 곱게 피운 꽃소식 조국으로 보내자 속삭이며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p style="text-align: center;">연 습</p> <p>잘 읽어보지요</p> <p>1. 발음을 익히지요. 봄비, 곱게, 꽃소식, 속삭이며</p> <p>2. 바로 읽어보지요. 곱게 피운 꽃 소식 속삭이며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p> <p>잘 새겨보지요</p> <p>1. 《꽃》과 《비》가 들어가는 말을 2개씩 만들어 보지요. 꽃밭(꽃+밭), 장미꽃(장미+꽃) 봄비(봄+비), 비방울(비+방울)</p> <p> ○ 꽃 __, 꽃 __, __꽃, __꽃</p> <p> ○ 비 __, 비 __, __비, __비</p> <p>2. 알맞은 말에 선을 그어보지요. 봄비가 울긋불긋하게 피여요. 싹이 보슬보슬 내려요. 꽃이 파릇파릇 움터요.</p> <p>3.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지요. ○ 속삭이며 ____, 속삭이며 ____. ○ ____ 내려요, ____ 내려요.</p> <p>4. 봄비는 어떻게 좋습니까?</p>	<p>읽어보지요</p> <p>1 발음을 익히지요. 보슬보슬, 파릇파릇, 울긋불긋</p> <p>2 바로 읽어보지요. 보슬보슬 내려요 봄비가 내려요 조국에서 보낸 꽃씨 파릇파릇 싹터요</p> <p>말을 늘이지요</p> <p>그림을 보면서 …에 알맞은 말을 찾아보지요. 비가 … 내려요. 꽃씨가 … 싹터요. 꽃이 … 피여요.</p> <p>생각해 보지요</p> <p>1 무엇을 노래했는가요? 2 봄비가 내리면 어떻게 좋은가요? 3 동무들과 함께 이 과를 외워보지요.</p>
---	---

국어 초급3 (1993년도)	국어 초급3 (2003년도)
<p>제10과 위생검사</p> <p>영실이는 교복이 단정하구나</p> <p>-이제부터 위생검사를 하자. 영실이는 교복이 단정하구나. -봉숙이는 손톱이 기니? -아니, 짧아. -봉숙이는 손이 깨끗하다야.</p> <p>-성철이는 옷차림이 어떻니? -성철이는 단추가 떨어졌어. -저것 봐. -성철이는 얼굴이 빨개졌구나.</p>	<p>제11과 위생검사</p> <p>어떤 말로 위생검사를 해요?</p> <p>오늘은 위생검사날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위생검사를 받습니다. 当番인 강혁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위생검사를 하겠습니다.》 동무들은 저저마다 손수건이랑 휴지랑 꺼내고 옷차림도 살펴보며 술렁거렸습니다.</p> <p>강혁: 봉숙이부터 보자. 손을 내밀어. 손톱이 길지 않니? 봉숙: 아니, 짧아. 난 손톱깎개로 손톱을 깎았어. 강혁: 그런데 깎은 것 같지 않구나. 손톱은 바투 깎아야 해. 봉숙: 다시 깎을래. 강혁: 응. 형주, 오늘 아침에 이를 닦았니? 형주: 난 아침저녁 꼭꼭 이닦기를 하는데 뭐. 강혁: 응, 좋아. 다음은 영실이 보자. 영실: 난 손수건도 휴지도 다 있어. 손도 봐. 강혁: 넌 언제 봐도 모범생이야. 다음은 성철이 보자. 아 니, 성철아, 넌 옷차림이 왜 그래? 단추도 떨어졌 구나. 허리띠도 매지 않구. 성철: 학교로 오는 길에 떨어졌어. 허리띠를 매는 것도 잊었어. 강혁: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지. 동무들, 앞으로도 몸을 깨끗이 거듭시다.</p> <p>위생검사를 마친 동무들은 모두 수업준비를 하였습니다.</p>
<p>알아두기</p> <p>성철이는 눈이 밝대./성철이는 신이 낫단다./성철이는 마 음이 좋답니다. 단추를 달았다./단추가 떨어졌다. 머리카락이 길다./머리카락이 짧다.</p>	<p>알아두기</p> <p>난 손수건도 있어. (다른 것도 함께) 난 손수건만 있어. (다른 것은 없이)</p> <p>단추를 채우자./단추를 벗기자.</p>

<p>키가 크다./키가 작다.</p>	<p>양말을 신겠어./양말을 벗겠어. 옷을 입을래./옷을 벗을래. 장갑을 끼렘./장갑을 벗으렘.</p>
<p style="text-align: center;">연습</p> <p>잘 읽어보지요</p> <p>1. 발음을 익히지요. 손톱이, 짹아, 깨끗하다, 빨강다, 영실이, 봉숙이, 성철 이</p> <p>2. 바로 읽어보지요. 성철이는 옷차림이 어떻니? 성철이는 단추가 떨어졌어. 성철이는 얼굴이 빨개졌구나.</p> <p>잘 새겨보지요</p> <p>1. 어느 말이 옳을까요? 손톱을 꿈습니다./손톱을 깎습니다. 자크를 단습니다./자크를 채웁니다. 단추를 달아요./단추를 붙여요.</p> <p>2.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지요. 위생검사를 한(?). 위생검사를 한(.)</p> <p>말해보지요</p> <p>()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해보지요. 봉숙이는 () 깨끗합니다.</p> <p>글을 지어보지요</p> <p>짓는 글: 누가무엇이어떠하다 례: 영남이는 키가 큼니다.</p>	<p>읽어보지요</p> <p>1 발음을 익히지요. 손톱깎개, 이닦기, 손수건, 같지 않구나</p> <p>2 바로 읽어보지요. 아니, 성철아, 넌 옷차림이 왜 그래? 단추도 떨어졌 구나. 허리띠도 매지 않구.</p> <p>말을 늘이지요</p> <p>1 《손》이 들어간 말을 5개 찾아보지요. 본보기: 손수건</p> <p>2 ()에 알맞은 말을 찾아보지요. (손톱을) 깎는다. () 깎는다. () 깎는다. (이를) 닦아. () 닦아. () 닦아.</p> <p>말해보지요</p> <p>1 몸을 깨끗이 거들데 대한 말을 해보지요.</p> <p>2. 《도, 만》을 넣어 말해보지요. 난 () 보았어. 동생은 () 가졌어.</p>

종합 토론



종합 토론

조남호: 지금부터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조남호입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에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과, 그 밖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정육자 선생님과 고영진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점검을 해보니까 과묵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재일동포 언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고 그렇게 관심 갖는 분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술대회라고 하면 발표를 많이 하는 방식이겠지만 오늘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토론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가량 토론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재일동포에 대한 연구가 많다고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보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름을 토론회라고 붙이긴 했지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남북 언어에 얽매인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또는 여기 현지에서 사시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오늘 토론한 것을 녹취를 해서 앞으로 자료집을 낼 때 같이 첨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는 얘기들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료집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 갖고 일할 사람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할 내용을 녹취해서 자료집을 만들 계획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발표하시는 동안에 일체 질의를 받지 않았는데 먼저 네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고, 이어서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한 세 가지 정도 주제를 놓고 간략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재일동포 언어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변해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언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 번째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김미선 선생님 발표하신 데에서도 나왔고 송재목 선생님

발표에서도 있었는데 어차피 여기도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 문제하고 재일동포 언어 문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계지어 놓고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하셨던 민현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 사십 분씩 드렸는데도 발표하신 분들이 시간에 쫓기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중간에 미처 마무리 못 하신 게 있거나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현식 선생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자로 오신 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다른 분들은 그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남북 언어 문제에 있어서 민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남북 간에 컴퓨터 자판 배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사전의 올림말 순서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자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중국에서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을 특허 비슷하게 한다는데 한국은 그게 지금 기업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문자 배치 방법이. 컴퓨터 자판이라든지 요즘 세상에서 거의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휴대폰의 문자 입력 방식이 우리는 회사마다 달라서 제가 엘지도 써보고 삼성도 써봤는데 기종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남북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몇 년도인지 기억 못하겠지만 컴퓨터 자판 문제로 한번 남북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층 더 나가서 휴대폰 문제도 국내에서 먼저 발생한 문제이지만 그게 된다면 국가에서 먼저 남북 간 문제에서 훨씬 효과적인, 구체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사전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 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민현식: 정보화 쪽은 홍윤표 교수님이라든가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이 분야를 깊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하신 것을 볼 적에 왜 국내 기업들끼리도 단일하게 표준화가 안 되는가. 기업들이 은비주의라 하는가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점하려는 의욕들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민간에서 통합이 안 되면 한 단계 높은 국가 표준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국가의 행정적인 통합 문제, 행정의 선진화라 할까요? 그런 조정력 같은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의 특허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고 소수 민족 대상

언어정책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표준화, 정보화 그런 게 아닌지.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소수 민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한글을 중국이 독점하거나 표준화하는 것 같고, 특허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열세로 느껴지고, 벌써 국가 간 국민 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하게 오해되는 측면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에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것이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을 할 것이냐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더욱 다가가게 되고 다지게 되는데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문규범이나 사전 편찬이나 어문학에서 보면 늘 관심을 가지고 해가 지날수록 앞으로 표준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내부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국내 연구 역량들이 시급하게 결집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목: 휴대전화나 컴퓨터 키보드 입력 등 자판 문제인 거 같은데,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한글 자판 입력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특허를 내면 전화기 한 대당 로열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엘지에서 입력하는 방법은 언어과학에서 만들어서 특허를 냈고, 삼성은 아마 회사 직원이 개발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엘지에서 언어과학에서 만든 방식을 채용했는데 삼성 같은 데서 그 방식을 채택해서 팔면 전화기 한 대당 돈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상당한 금액이 들겠죠. 특허 로열티하고 비용 관련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거 같고, 그걸 국가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남호: 중국의 '한글 공정'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다소 선정적으로 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자판 문제나 이런 것이 남북통일과 관계돼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맞춤법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바꾼다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어서 맞춤법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합의가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정희원: 민현식 선생님 발표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내용 같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22페이지 표에 보면 일반 영주권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특별 영주권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김미선 선생님 발표에 나온 뉴커머, 올드커머와 관련 있는 거 같은데 이 표가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혼란이 상당히 정리가 되

었다는 느낌입니다.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되는 다문화 사회, 재외 동포 사회까지 모두 아우를 때 통합만이 해법일까 과연 통합을 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통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문어 차원에서의 통합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각 현장마다 가진 각각의 특징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저로서는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과제로 표준 한국어의 정리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남과 북이 거래말큰사전을 통해서 규범을, 단일 규범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각각의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됐든 연방정부가 됐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결국은 실천력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가 문제인데 선생님께서 이런 문제 제기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표준 한국어를 위해서는 표준어의 개념과 내용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정제되어서 달라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현식: 22페이지는 아까 김미선 선생님도 발표하신 그 내용이죠? 보니까 재외 영주권자 수의 변화는 특별 영주권자로 조총련계나 민단계 동포들이 유지해 오셨던 건데 2000년 즉 10년 전만 해도 50만 되셨다가 그 다음부터 해마다 대규모로 1만명 이상씩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점점 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일반 영주권자는 새로 오셔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뉴커머인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표준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할 때 변론서를 써달라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좀 논리에 공색함을 느꼈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표준어, 방언이라는 것이 교육 과정에도 나와 있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도 방언과 표준어 관련된 것이 나오니까 선생님들도 '교양 있는 사람'이란 표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데 저희들도 과연 '교양 있는'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전국의 방언 사용자가 갖는 느낌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교양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고향이 수도권 지역이 아닌데 나는 그럼 교양 있는 말 안 쓰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히 어떤 심리적으로 위화감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방언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공감을 준다고 봅니다. 저도 현재 변론에서는 그 표현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 규정의 표현이 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앞으로는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준어 위헌 제청론자들의 주장에서는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조선어학회에서 사정한 30년대의 표준어 사정

작업이나 사전 편찬을 일제의 정책 산물인 것처럼 친일 논리로 이야기를 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30년대는 조선어학회의 '한글'지에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사전 편찬을 하면서도 그 '시골말 캐기'라 하여 방언 조사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 정책을 친일 논리로 오해함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표준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꾸 국어 교육의 전부인 것인 양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의 내용이 대부분 표기법 차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표준어 규정의 대부분이 표기법 차원인데 과도하게 정부가 강제로 무슨 표준말을 교과서에 넣고 국어 교육을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지난 60년 동안 한국에서는 표준어 발음 교육이라든가 이런 표준어 교육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오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표준어 규정이 표기법 수준, 초보적인 발음의 통일,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국가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표준어 연구가 조선어학회에서 30년대에 출발했던 것도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총독부의 1912년 보통학교 언문철자법 규정에서 경성어를 표준어로 한다고 한 것에 영향 받은 것으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물론 저도 1912년에 총독부의 보통학교 언문 철자법에 '경성어를 표준어로 함' 이런 게 나오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의 총독부 정책을 조선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수도를 교토에서도 도쿄로 옮긴지 불과 100여 년이니까 일본도 표준어 정책을 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일본 정책을 이식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조선어학회에서도 그런 일본의 표준어 정책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한 것이 또 우리 조선에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다 같은 민족으로서 나가려는 것을 하려다 보면, 그거는 일본 것이라기보다도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표준어 정책은 근대 시민국가로 출발을 하려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나치게 친일 논리까지 가면 곤란해요. 그때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오해들도 많고 상당히 표준어 규정에 교양 있는 사람이란 표현에 대한 저항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7대 2로 2인의 헌재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시민단체로선 작은 승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준어 규정에 대해 오해도 불식하고 방언 정책도 지역어, 생활어 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맞춤법 규범, 표준어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문규범도 한 20여 년 지나왔고 표준어 규정도 총론 부분에 이의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 여론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표준어 규정에 대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 용: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학회 와서 하나도 안 빠지고 듣기는 처음입니다. (웃음) 우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듣는 과정에서 오늘 주제가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재일동포 언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해서 '남북이 맞닥뜨릴 것이 있고 그러지 않고 세월을 지나가면서 세월의 추이를 좀 넘겨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북이 표기법 문제로 처음 시작을 한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쩌면 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회의에 저도 한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남북한 사이에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남북한 언어학자들끼리 만났을 때에 그쪽(북)에서 전체적으로 느끼는 통합에 대한 느낌, 또 남쪽에서의 느낌,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들이 대략적이라도 있는지. 또 아까 민현식 선생님께서 논의 과정을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데 보면은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올리는 순서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론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양쪽의 국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의 분위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일정 같은 것이 어떤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남호: 제가 대답할 문제 같습니다. 거레말큰사전은 지금 20차까지 남북이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분위기도 좋고 의지들이 강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남북 단일 규범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단일 어문규범에서 선을 긋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이지만 남북이 앞으로 따라야 되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전을 위한 거로 만든다는 전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신중해야 합니다. 권재일 원장님께서 단일 어문규범 관계로 계속 협의도 많이 하셨는데, 예컨대 'ㄹ 두음법칙' 문제, 이런 것들은 20차 회의를 거듭했음에도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데도 워낙 남북에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 용: 정국의 변화, 일본의 예를 들면 북한 쪽 분위기에서 남한 쪽으로 그니깐 한국어 쪽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그쪽의 반응.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밀리지 않나 하

는 분위기는 있는지요?

조남호: 만났을 때 그런 식의 얘기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만남을 통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거례를 위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13년에 거례말큰사전을 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 용: 사전 같으면 표기법뿐만 아니라 어휘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조남호: 네, 그래서 20차 동안 만나면서 둘씩 붙어 앉아서 단어를 각각 얘기하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놓고 단어 뜻이 괜찮냐, 문제 없으면 넘어가고, 문제가 걸리면 둘이 얘기하다가 안 되면 보류시키고,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현식: 제가 보충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전 편찬을 위한 규범 통일이다' 제한을 하더라도 그 과정은 남북한 학자끼리 만나니깐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뭐 차이점도 느끼고 그러니까 지속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이런 연구, 국어학 연구다 무슨 정보화, 자판 문제 이런 거 연구들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남쪽에서는 대학, 개인이 하다 보니까 연구들이 보편성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업출판사들이 사전을 내므로 상업주의에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편찬 사업이 지속이 안 되고. 요즘 금성 같은 데도 사전 출판이 완전히 문 닫았다는 식으로 보도되는데, 그러니깐 민간 출판사들이 사전 개발 능력을 갖긴 어려울 것 같고요. 북한은 상업주의에 연연해하지 않고 어떤 중앙 집체적인 연구 역량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만 집중하는 전문학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사회과학, 언어과학 총서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긴 시리즈를 내면서도 상당히 정립이 잘 되어있고. 그래서 보면 상호 보완 차원에서는 이런 남북 간의 규범 연구가 교류의 빌미가 되므로 규범 관련하여 남북 간 논의가 지속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91년도에 한글학회에서 우리말큰사전을 낼 적에 그때 언제 원로 교수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전이 1, 2, 3, 4권으로 하여 특히 4권 고어사전 같은 건 잘 나와서 저도 굉장히 활용을 잘 했는데 91년도에 어문각에서 이 네 권이 모두 나왔을 때, 이왕 나온 거 정부

규정이 88년도에 개정됐으니 이 한글학회 작업은 그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므로 정부의 88년 규정을 지켜서 하여야 했다고 봅니다. 갑자기 88년도에 어문 규정이 나와서 전국에 발표되고 하니깐 한글학회도 고민했을 거 같아요. 이거 일이 진행돼 왔는데 어떡하느냐. '노르웨이'로 하느냐 '놀웨이'로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그분 말씀이 정부 규정이 나왔으니 빨리 바뀌어서 반영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사전 나오고 아마 거의 보급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문각은 그런 사전 출판해 준 거는 의의가 큰데 그 뒤에 출판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겨레말큰사전이 2013년에 나온다면 그래 가지고 규범이 통일된다면 대번 생각되는 게 사전이 나오면 남쪽의 교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선 당장은 그게 궁금하더라도요. 인제 그런 것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좀 많이 추동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규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현재 위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남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김미선 선생님 발표에 대한 질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그러면 김미선 선생님 발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정희 선생님 발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목: 강정희 선생님, '송화아수' 말씀하셨는데. 51페이지 '송화아수' 이거는 언제 어디서 채집하신 건지요?

강정희: 2002년 조선시장에서 채집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써놨는데. 그 담에 인제 우리 외할머니께서 '송화수, 송화수' 하셨어요.

송재목: 제주도에서,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강정희: 예, 근데 여기 와서 들었어요.

김덕룡: 제주도 아니고, 거기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쓰는데. 송하수, 닝하수라고.

송재목: 근데 강정희 선생님은 제주도에 계신 외할머니께서 쓰셨다는데.

김덕룡: 우리도 자주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 경상도 사람 많 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만 조사하더라도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제주도 출신 분들 만 쓰는 특이한 말이 아닙니다. 쓰르하시에서 많이 씁니다.

조남호: 외할머니도 일본에 계셨던 건가요?

강정희: 그렇지 않아요. 일본 분들하고 왕래를 많이 했죠.

조남호: 그래도 '정월(正月)' 같은 말, 저도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쓰 션으면 모르겠는데 외할머니가 제주도에 계셨다고 하면 정월을 바꿀.....

강정희: 우리 외할머니는 일제 시대 때 세화읍에서 상점을 하셨었어요. 석유 배급을 한 다든가 그럴 때 일본인들하고 자주 왕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렸을 때 외할 어머니께서 '송화수'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김덕룡: 발성이 완전히 한국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안 느껴지죠, 제일 언어가 한국어 니까요. 그니깐 아무래도 문법, 일본어 체계가 그렇게 바뀐 거죠. 경상도이건 제주도이건 일본말을 발음했을 때.

강정희: 조선이치바 가면 잡화상 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분도 외할머니하고 같은 발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채록을 해서 왜 이렇게 발음을 하 실까 음운 분석을 해본 거죠.

김덕룡: 그게 여기도 재일교포 계시지만, 가령 예컨대 내가 제1언어가 한국어 아닙니 까? 그런데 일본말로 주고받기 시작하면 많이 어색하죠. 귀에 거슬린다는 거죠 일본말이. 그러니까 무한정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못 알아듣고 이런 것이 나 오는 겁니다. 그런 같은 걸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김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 가 이 음운 변이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일본어 'づ' 이런 발 음이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츄'로 하거나 '스'로 합니다. 김대중 대통

령도 일본어를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다 ‘つ’를 ‘스’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포 분들이 ‘つ’를 ‘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쇼가츠’가 우선 ‘츠’가 ‘수’로 되는 거는 하나 해결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쇼’가 ‘소’로 되는 것들도 옛날에 일제 때 가지고 오신 그 음소 목록에는 ‘샤, 슈, 쇼’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삼푸’를 ‘삼푸’로 하구요. ‘샤붕’을 ‘사붕’으로 합니다. ‘사붕’이란 말은 우리 한국 경상도 발음에서는 ‘사분’이라고도 하지요. 그니깐 ‘샤, 슈, 쇼’ 소리가 나지 않아서 ‘사, 수, 소’로 하는 거구요. 그 답에 ‘쇼-가츠’에 ‘가’를 비음화하는 건, 지금 일본말에 비음화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카가미’를 ‘강아미’하고 이 코에 걸어서 발음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가츠’를 ‘송화수’로 하는 거는 아주 이론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 분들의 특징적인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1920년대 30년대에 건너오신 분들의 음소 목록하고 지금 현재의 일본어하고의 차이로 이런 현상이 생긴 걸로 분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송재목: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정월을 ‘쇼가츠’가 ‘송화수’로 됐던 게 시기적으로 도대체 할머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어느 시기에 벌써 이게 송화수가 된 건지.

강정희: 그 시기를 추정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김미선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면서 들리는 대로 자기 음소 체계로 바뀌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겠죠. 음운사에서 어느 시기에 아래 ‘아’가 없어지고 한 것처럼 딱 끊어지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송화수’라는 말이 그 다음 전후 세대에 쓰는가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 쓴대요. 그니깐 1세대에 독특한 구어였던 거 같아요.

김덕룡: 간토 대지진이 있어 가지고 5000명 학살당했거든요. 그때 감별 방법이 있어서 헌병대들이 조선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나면 ‘주-고엔고짚센(じゅうごえんごじっせん)’. 이 말을 해서 일본 사람도, 도호쿠 사람도 발음 잘 못하면.....

강정희: 일본 사람도 그걸 발음 못하면 일본인들도 폭행당했던 얘기요.

김덕룡: 그래 유명한 얘긴데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아닌가 저런 게 아닌가 우리가 조사하지 않습니까? 테스트하죠. 테스트를 할 때 실증 가능한 테스트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제인데 제가 예전에 해 봤던 가라닝 테스트라던가.

조남호: 어떤 테스트요?

김덕룡: 칼라링(coloring)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붉은 색으로 '아오(あお:靑)'라고, 문자의 색채는 붉은 색인데 내용은 '아오'라고, 반대로 파란색으로 '붉음'을 쓰고. 이거는 쓰쿠바 대학 선생이 개발했는데 제가 조선학교 다니는 애들을 시켜봤는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 게 학회에서 발표된 바가 있는데 '종주가와'가 대체 일본말인가 조선말인가 하는 게 있고 질문지법도 있는데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큼니다. 그니깐 일본어하고 조선한국어에 대해서도 실태를 장악하는 수법적인 연구. 이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가능한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남호: 네, 그래서 실태가 어떤 거냐 밝혀내는 방법에 관해 외국엔 사례가 많은 거 같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 송재목 선생님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 받기에 앞서 김덕룡 선생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김덕룡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룡: 제가 원래는 오늘 내용을 잘 몰라서 일단은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가지고 왔는데 듣다 보니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도중에 복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일교포들의 민족 교육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국어 교육에 대한 파악이, 정확한 실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황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 개념으로서의 조선학교 교육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연구 대상으로서 조선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서로 서로가 불신 가지고 있었고. 그 학교는 실제로 수만 명 수십만 명 키워냈는데 그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적으로 봐도 그렇고 질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교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일본 재일교포의 민단계 학교하고 질·양적으로. 민단계에서 실시해 온 민족 교육을 가볍게 본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해 온 한인 교육, 국어 교육에 대한 정황을 역사 참여해 온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그건 빨갱이 교육이라고 하고. 여기 기민정치 실시해 가지고 다 무시해왔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간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연구자들하고 30대 40대 연구자들하고 토론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료도 제공하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선입견부터 좀 없애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1세 분들이 나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2세입니다. 1세분들이 키운 우리 2세대들, 60년대 세대가 지금 교편 잡고 있는 사람들을 키웠거든요, 3세대들. 이 분들이 4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5세까지 키우고 있지 않나 싶지 않은데. 그럼 하나의 역사적인 현황에 대해 시기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압축이 됩니다. 엑기스. 해외 나간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 민족어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짬막한 몇 십 년 안 됐는데 그 기간에 있는 걸 뽑아내가지고 뭐랄까. 지금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서 영어와 같이 한국어를 하려면, 그 엑기스가 거기 많이 들어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독후감도 없었거든요, 처음엔. 해방 직후엔. 도중에 분단돼 가지고 이북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그런 건 다 빼더라도 엑기스를 조금만 뽑아내 가지고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없겠는가. 일본어 바이링구얼 교육에서는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자유자재로 제1언어하고 제2언어하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조남호: 2세대들이요?

김덕룡: 예, 우리 2세 3세대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중 언어 사용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해야겠다. 실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라 해서 일본 국내에 하나의 국가를 만들 듯이 국가가 할 만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 해방 직후에 얼마 안 되는 교포들이 120만이라 그랬나, 동족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2세대들이 민족성이랄까, 폭발적인 민족성이랄까 그거 보면 사회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는 거죠. 자기가 아이를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키우겠는가. 글로벌 글로벌 할 때도 기본이 민족성 문제가 아닌가 한국어 부문에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연구자들이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책을 손에 들며) 이거 한국말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 제가 다 쓴 건데 소개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처음이죠. 이렇게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낸 건데 거기다 좀 손대 가지고 한국 식으로 해서 이거 작년에 서울에서 출판한 겁니다. 이거 보면 선입견으로 보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1세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가. 2세를 키운 거니까. 그거 한 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호: 책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추억'이라고 선인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민현식: 성공 요인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당시 일본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 어떤 결집력으로 읽히는 힘, 일본이 패자라서 좀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어떤 항일의식 같은 거. 거기서 뒤지지 않고 결집력이 있었고, 또 지식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정신의 요소가 좀 크지 않습니까?

김덕룡: 그렇습니다. 여기도 일본 책에서는 소개 안 했는데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인텔리 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그 당시. 2세분들이 잘 몰랐거든요.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잘 못 다니고. 그렇지만 인텔리 분들이 고향에 안 돌아가고 운동을 했죠. 그 분들 이끌고. 그러한 인재 부문에서 그 당시 영웅이죠. CEO들이 조직을 모아가지고. 물론 기초적인 민족성 문제죠.

송재묵: 그런데 조선학교들의 뿌리가 되는 것은 해방 후 생긴 국어강습소입니다. 국어강습소가 전국에 몇 개나 지정돼 있는데, 왜 그렇게 생겨났냐 하면 사실은 일제시대 조선 말살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죠. 일제시대 조선 말살 정책을 하지 않고 조선인들에 대해서 민족 언어와 문화를 어느 정도 가르쳤으면 사실은 국어강습소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조선인들에 대해서 문화와 언어, 역사에 대한 교육을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방되고 나서 반대급부로 국어강습소가 전국에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조선학교가 왜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가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본 사회 내에서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남북 학교의 정치적인 관련성도 있고. 일본 내에서 조선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낙인 같은 거죠. 근데 낙인은 사실 처음에 어렵죠. 처음에 찍을 때가 문제죠. 낙인을 찍을지 말지 망설일 때는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내가 생긴 게 똑같고 일본말도 똑같이 하는데 왜냐면 일본어가 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름을 이야기 하면, 김씨고 송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낙인이 되거든요.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애들이 태어났을 때 학교에 보내면, 집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애들이 일상적으로 우리말을 하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죠. 엄마라고 애들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면 거기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러면 재들은 조선인이구나. 근데 그게 참 심리적으로 힘든 겁니다. 학교에 갔을 때 자기 애들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망설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낙인을 찍을지 말지 망설이는 단계에서. 차라리 낙인을 찍어버리면 편하거든요. 그대로 집단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말 하는 게 그게 망설임이 되지 않고, 그룹 안에서는 전혀 일본인 학교의 비교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오

히려 편해지는 의식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조남호: 그러니깐 좀 이해가 되네요. 초기 단계에는 이해가 됐었는데 뒷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귀국을 전제로 교육을 하지만, 나중에 영주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일본인 학교로 보내는 게 일본인으로 성장시키는 거니까. 예컨대 재미동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교 보내면서 한국어를 하지 않고 영어를 하게끔, 그래서 빨리 미국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요구하는데, 그 동일한 양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왜 굳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민족학교 보내나 싶었거든요. 차별 문제라는 건가요? 그게.

송재목: 제일 큰 게 이름이나 그런 데서 생기는 언어에서 생기는 차별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름이 외국에서 온 거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전혀 차별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은 일본에서는 이름만 한 마디 들으면 아 애들은 우리 하고는 다른 집단이다. 그럼 바로 그냥 이렇게 상표가 붙어버리니까.

김덕룡: 그러니까 우리 딸도 조선학교 고등학교 딸 하나 있는데. 도쿄 네리마라는 지역에서 전철 타고 애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치마저고리.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촌스럽지만 좀 그랬죠. 돌아다니면 대포동 미사 일이다 뭐다 김정일이든가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칼질하거든요.

조남호: 네,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김덕룡: 애만 아니고. 길 가면서도 그렇고 그니깐 민족의상 입는 것 자체가 자기 몸을 해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입고 다녔거든요. 너무 하니까 의견 내 가지고 제1 교복하고 제2 교복을 만들었어요. 겨우 만들었어요. 역대 60년대 초반에 대 선배들부터 다 입고 다니면서 최근에 겨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제1하고 제2 나눠가지고 자율에 맡겨놨거든. 여기서 소개할 얘기가 있는데 한국육군사관학교 간부 어르신이 그 모습을 야마구치 선에서 전철 타고 보았답니다. 그 분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이념 교육이다. 이념, 사상 교육이랄까. 자기들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상 교육 해 봤는데 잘 안된다고 그래. (녹음 불량) 가들 한 번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치마저고리 입고 다니는 애들 한 번 그거 보이면 괜찮겠다는 소리를 농담 삼아 하셨는데 진담이라고. 그니깐 의식 교육이죠, 그죠? 물론 기초에는 의식이 좀 있는데 차별에 대해 반발한다는 의

식이 있는데 우리들이 조선 사람이다. 한민족이다. 말도 되고 물론 그렇게 하는데 지향, 무엇 무엇을 지향하는 의식. 의식 교육을 그만큼 해놨습니다.

조남호: 민족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김덕룡: 예, 그렇죠. 한반도, 조선 반도, 이것만입니다. 특별히 재일교포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다. 자꾸 의식교육을 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사전 문제가 나왔는데 북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남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한국어 글로벌하고 조선어 글로벌로 말을 바꿔도 되는건데. 그니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체사상 선전을 위한 하나의 언어적 수법이 조선어다 하는 관점이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지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이죠. 어느 시야에 있어 가지고 언어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조남호: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하신 거 같은데 올드커머하고 뉴커머 쪽에서 어떤 그 태도가 다르다고 얼핏 얘기하신 거 같은데.

강정희: 전 여기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논문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지금 저는 재일동포들의 모국어 그것이 조선어이든 한국어이든 언어사용 실태 조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어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국어 교육으로서 정부가 빨리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 교수님이나 김덕룡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도 그랬다고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조선어 교육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뉴커머들의 자녀들은 오히려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옛날 2세 3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과연 같은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김미선 선생님한테 여쭙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논문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에도 말씀 드렸지만 아마 일본인들이 한국인 자녀 5세 6세 4세 들에 대한 시선이. 그 아이들이 보는 시선이나 의식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돌이라든가 한류라든가 통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말 정리를 해야 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 별개로 앞으로 이 5세 6세, 뉴커머들의 3세 4세 5세들에게 우리가 모국어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길러주는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 시각하고 일본인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시각은 다르지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한류 아이들 카라, 소녀시대 이런 것처럼 예, 오히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과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남호: 예, 고맙습니다. 송재목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정욱자: 제가 한국에서 나온 제2언어 교육 관련 논문들을 읽을 때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강정희 선생님께서 모국어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모국어랑 모어는 똑같은 말로 쓰고, 외국어랑 제2언어를 똑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항상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재일교포 같은 경우는 모어와 모국어는 분명히 다르고 외국어와 제2언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국어와 모어를 분명히 구분을 하면서 정확히 쓰는 게 옳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언어를 습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심리적인 동기 부여라든가 그리고 재일교포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큰 요소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제2언어 습득에 통원적으로(?) 보이는 재일교포에 대한 그 조선학교의 경우도 가장 큰 성공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정희: 지금 제가 한국인이라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나의 모국어는 한국어고 나의 모어는 또 한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모국어와 모어를 섞어가면서 썼는데,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죠.

송재목: 일본 언어교육학계에서 모국어라는 용어는 사실은 최근에 안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국어라는 게 아주 민족주의적이고 내셔널리즘적인 의미를 풍기기 때문에 모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국어랑 모어를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가 또 제 참고 문헌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나카 선생님이 아마 재일교포 같은 경우들의 언어 상황을 좀 더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모어하고 모국어를 구별하자. 그래서 모어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운 거고 모국어는 재일교포 중에 국적이 한국이나 북쪽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모국어 한국이나 북쪽이기 때문에 모국어라 하면 우리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국어

하고 모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용어라는 게 참 정말 모국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우리말도 또 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말은 뭐가 우리말인가요? 이게 조선어가 우리말인가 한어가 우리말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용어 문제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최근 재일동포들의 교육을 다루는 데서는 모어하고 모국어하고 구별해서 쓰는 게 요즘 흐름이지요. 당연히 또 그렇게 구별해야 되고요.

조남호: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국 내에서 그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모국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모어로 고치면 이 말이 어렵다고 다시 또 모국어로 고칩니다. 아직은요. 그러니까 한국 상황은 아까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서 배운 말하고 자기 국가의 말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모국어하고 모어의 차이를 못 느껴요. 외국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는데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모국어라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해 가지고 엄밀하게 어떤 개념 정의보다 자꾸 모국어라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앞으로 한국에서 고쳐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 용: 정옥자 선생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국어, 한국말을 할 때의 느낌과 지금 한국말을 일본 사회 내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지? 본인 스스로 그런 걸 느끼니까?

정옥자: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20살 넘어서 가나다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예 못 하시고요. 가정에서 쓴 적이 없고 할아버님 할아버님 말씀 듣고 무서운 느낌만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사실 제가 정체성이라고 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본 사람에 속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친구들은 제가 일본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무살 넘어서 점점 역사나 뭐 민족성이고 강조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랑 어울려 가면서 이름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땐 숨어야 되는 제 치부였다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강정희: 지금은 어때요, 네?

정욱자: 근데 조심스운 거는 한국어 배우는 것도 저는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이 한 부분에서는 되돌려야겠다는 생각, 가져간 것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러나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심리적인 거부감을 여전히 가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조남호: 자연스럽게 주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게 재일동포 언어 현황이 어떠냐 이런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재일동포 언어가 어떨 것인가 하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박재영 선생님께 부탁을 미리 드려놨었거든요. 박재영 선생님 경험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관해 말씀을 부탁 드려놨습니다.

박재영: 제가 오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가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식 선생님께서 좋은 연구 발표를 해주셨고 송재목 선생님께서 조선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들을 잘 알게 된 것이 오늘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수필가로서 책도 내고 있습니다만 실은 3년 전까지는 심리학자로서 여성 상담소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아동 폭력 디비디, 그런 거를 상담소에서 많이 틀었는데, 특히 우리 동포 가족에게서는 거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적어서 일본 사람들 속에서는 좋지 않게 그냥 조선 사람들은 그렇다 하는 식으로 사례만을 연구했습니다. 그 내부에 대해서는 구로사와 요지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조선 가정에서, 재일교포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은가 하는 거를 중추적으로 역사적으로 발견해서, 경제적 문제로서 밝히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응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지만은 일본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은 초, 중, 일본 학교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조선학교로 도쿄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때 부모가 살고 계셨던 곳은 아오모리여서 기차로 1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등학교부터 가고 싶었지만 제가 막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셔서 빨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초등 1학년 때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서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우리말을 배워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조선말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만 우리 아이를 어느 학교로 보낼까 했을 때 실은 7:3, 3 정도는 일본 학교로 보내고 싶었습니

다. 근데 우리 남편이 100% 우리 학교 보내야겠다고 주장해서 조선학교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저하고 반대로 우리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서 조선학교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있습니다. 일본 학교에 있을 때 차별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자기 아이는 꼭 우리 학교 보내고 싶다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정도에 일본 사람과 결혼하는 것하고 지금 2010년도에 결혼하는 것은 다르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저 자신은 별로 큰 차별을 못 느꼈지만 일본 학교에 있었을 때 긴장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인원 수 문제라는 것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학급에서 자기만 민족이 다르다는 것은 별로 왕따 당하는 것이 없더라도 항상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 없이 자기 아이를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딸 둘 아들 하나 우리 학교로 보냈습니다. 좋았든가 나빴든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일교포의 말이 어색하다고 하니까 어색하단 말 반대의 어색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표준말이라면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한다면 틀리지 않은 말이 있다 그런 개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관서 지방에 와서 30년 됩니다. 시집살이 해 가지고. 그때 제일 놀랐던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동북 지방에서 50년 살았기 때문에 일본말이, 도호쿠 지방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정서도 도호쿠 지방 사람같이 암전하고 조용하시고. 근데 시가에 나와 보니깐 조선 사람 쓰는 말 관서 말이고 칼칼하고 그 정서까지 관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1세들이 1세인데도 완전히 사는 지역에 따라서 동북 사람도 되고 관서 사람도 되고 있다. 정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토지에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3세지요? 일본말 100프로. 제가 100프로 정도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선학교는 안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섭섭한 감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서 저는 아직 30년 됐는데 아직 간사이 말을 못 쓰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저와 아이들 사이 얘기할 때는 표준말 씁니다. 근데 아이하고 아빠가 얘기할 때는 나라의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딸한테 엄마하고 얘기할 때도 간사이 말 쓰고 아버지하고 표준어로 얘기해 보라 하니깐 스위치가 안 돌아가서 못 한다고 합니다. 엄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표준말을 쓰고 아빠를 보면 간사이 말을 쓰고. 아 저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항상 어떤 지경에 있어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선학교에 대한 글.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비를 안 낸다 하는데 대해서 실은 저와 친분이 있는 일본 시인들이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반대 앤솔로지란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사카도에 하시모토 씨가 그런 나

라가 운영하는 학교에 돈을 못 낸다. 그래 교과서 내용도 검열해서 따져서 굉장히 사상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표로 있는 가바코 지에라는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만 그 사람의 동기랄까 그런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이때까지 '꽃이 아름답다' '서로 사랑해야겠다' 그런 시만 써 온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시인으로서 말을 살리고 표현하는 게 자기 일인데 일본에 사는 조선 아이 한 명도 지키지 못한다면 뭐 때문에 자기들이 시인으로서 표현하는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해서 그가 책을 내고,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정부에 항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운동에 대해서 실은 민단에서 보도가 일본 정부에다가 조선학교에 돈을 내지 않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 그걸 듣고 놀랐고,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인생이고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보배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은 별말 안 하지만은 같은 조선 사람이면서도 그런 일을 해야 할까. 일본 사람들까지 부끄럽다 해서 일본 정부에다가 간섭하지 말라고 돈을 내라고 할 때에 조선학교를 없애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조를 해서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사는지 모르고 하니깐 3세들이 4세들이 5세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배우고 싶을 때 선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우리말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다. 우리말 배우고 조선 사람으로 한국 사람으로 되고 싶은데 그러한 교육을 받는 데가 없다. 그런 게 굉장히 제일 문제이지요. 가든 안 가든 그건 자기가 선택할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의 권리라 할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라 할까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호: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박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땐 올드커머, 뉴커머의 문제가 구분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뉴커머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보통 한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일단 재일동포 언어 문제에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영주하실 분들이 언어를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일본어가 제1언어가 되고 한국어가 제2언어가 점차 돼 가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선 선생님께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미선: 저는 한국인 친구도 많고 총련 친구도 많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연구자로서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학교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제가 이런 소수자의 언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할 때 굉장히 친화적으로 되기 쉽고 동정하게 되기 쉽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립국어원에서 이 속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오셨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언이 가능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선학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단 조선학교는 송재목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세계에 유례없는 이머전 교육, 바이링구얼 교육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이머전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이라는 데까진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까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많은 실패가 있었고요. 근데 이 조선학교를 보면 그 결과만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을 한 반면에 이 조선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리고 과연 조선학교는 민족이란 말을 정당하게 사용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학교가 배움의 장이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조선학교가 다른 민족을 또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배타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교육을 시켜 놓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언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규범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이 조선학교에서는 정체 모를 상상의 표준어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갈증을 준 것도 언어적인 갈증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일교포의 언어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을 도입하고 어떤 부분을 경계를 해야 할 것인가 조선학교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타적인 부분도 보였고 매우 성과적인 부분을 보인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학교의 무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단에서 반대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 이쪽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일본에는 공간적인 분단은 없었지만 사상적인 분단은 어쩌면 본국보다 더 심하지 않았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 서명운동도 하고 그런 사회단체에 있는 친구들과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 사실 조선학교에서는 어떤 아무런 반성도 없는가. 그러한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언어를 선택하고 교육을 선택하게 하는, 교육권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선학교가 여태까지 일본 사회에 폐쇄적으로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시모토 씨가

조선학교에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지금은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여태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안 보여줬는데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지금의 단순한 결론으로 모든 것을 다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제로 조선학교에 사회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런 대응을 충분히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단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동포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체를 너무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굉장히 성급한 태도를 제가 많이 접하는데요. 역시 오랫동안 면밀하게 관찰도 좀 하시고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피해의식만 강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면밀하게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고영진: 두 분 말씀 중에 관련된 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인데, 고등학교 수업료가 일본의 공립학교는 면제가 되는데 조선학교는 제외된 것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관련 자료를 오사카부 하시모토 정부에서 태스크 비슷하게 과제를 주어서 관련자들이 우리 조선학교의 교육 과정, 특히 조선학교의 국어, 역사 교과서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준비한다고 했던 거 같아요. 지금은 보고서 상태고 제가 알기로 11월 말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11월 말쯤 정도에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김종호: 일본에서 우리 한국어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은 먼저 명칭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왜 조선어라는 명칭을 지금 쓰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선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왕조에 불과합니다. 1896년도에 조선 왕조가 문을 닫고 대한제국으로 국명을 바꿉니다. 제가 옛그저께 아사히신문 간부들하고 또 일본 매스컴 관계자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예를 들어서 일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에도어라든가 그 헤이안고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인정하겠느냐 물었더니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국호가 1948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마찬가지로 45년도에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생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니 일본 내에서 우리가 한국어 명칭이 한국어, 조선어, 한글어 이게 각양각색으로 불리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말을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어를 쓰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일본 내에서 그 표준어라 하는 부분과 한국에서의 표준어라는 부분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해야 하는 것인가. 국어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조남호: 알겠습니다. 문화원장님 견해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여기서 원래 저희가 얘기하려 했던 것은 재일동포 언어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고, 실태와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얘기가 언어 교육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우선 교육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명균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전에 이미 한국어 교육에 관심 많이 가졌었고 또 여기 와 계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올드커머 문제건 뉴커머 문제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일본에서의 교육 방향, 언어 교육, 단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일본어 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그 둘은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명균: 제가 일본 뉴커머 중에서도 뉴, 뉴, 뉴커머인데, 일본 온 지 5년 됐습니다. 오기 전에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재외동포 교육을 15년 했습니다. 국제교육진흥원에 있을 당시에는 전 세계 재외동포 학생, 성인을 초청해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해외에 현지 지도로 나가 한글학교 선생님도 만나보고 교류도 하고 서로 교수 관계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와서 지금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니 실제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배우는 학생하고 그 사이에 교재, 이게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이 문젠데 각 대학에 선생님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일본인하고 한국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화롭게 잘된 학교예요. 그렇지 않은 대학, 예를 들어 일본 분만 계시거나 반대로 한국인 네이티브만 계신 대학도 있어요. 저는 대학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성상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본 선생님들 강의력을 봤는데 실제 한국인으로서 네이티브로서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문법 설명 같은 거는 일본 선생님을 못 따라가겠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일본어로 설명한다면

이제 5년 된 사람이 아무래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일본인에게 맞는 일본의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부터 배워왔던 적절한 문법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부족한 그런 면. 그런가 하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적인 것, 어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최신의 동향 같은 거는 일본인 선생보다 제가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학생들은 지금 4세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물론 조선학교 출신 학생들은 월등합니다. 그런데 수업에 보면 한국어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학생들이 가끔 듣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서울 말씨를 좀 배우고 싶다, 남쪽의 말씨를. 그거는 꼭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에서 온 학생들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억양의 차이인데 억양을 듣는 순간에 바로 이거다 저거다 판별이 납니다. 이제는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생들이 자기 이름 본명, 자기 본명으로서 떳떳하게 한국어 수업도 선택해서 듣고 취직할 때도 뭐 가능하면 일본 현지 한국 지사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가 한국어 또 한국에 대한 이해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갈망하기도 하고. 세 번째 교재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실제로 일본에서 나온 교재 반, 한국에서 출판한 교재 반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초급 과정은 가능한 한 일본에서 출판한 교재를 쓰고 있고 중급 이상의 클래스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책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정확한 앙케트 조사까지는 해보지 못했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교재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국제교육진흥원에 있을 때에도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서로 이야기 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해외에 내보내기도 하고 조금 수준이 높은 데는 국내 교과서를 그냥 보냈어요. 보내는데 예전에는 배로 보내니 6개월 후에 도착하고 그러면 교과서가 계절도 전혀 안 맞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육진흥원에 있을 때 경험인데 현지에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려면 우리한테 돈을 달라. 특히 미주 지역, 유럽 지역 같은 데서 그러면 더 좋은 교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지역상 한국하고 가깝고 그래서 아무래도 교재 같은 게 훨씬 더 활발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각 대학에서 출간하는 책들 보면 현지에서 일본 선생님하고 한국 선생님이 같이 해서 나오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통일되건 통일되지 않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양한 교재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교재는 틀렸든지 이 교재는 전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교재가 나와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취사선택해서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목: 우선 먼저 토론을 해야 될 게 재일동포 언어의 미래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정

형화된 재일동포 언어라는 게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런 정형화된 재일동포 언어가 있을 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언어 습득을 어떤 식으로 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재일동포 자제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어를 습득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형화된 재일동포 언어라는 것은 조선학교의 졸업생들, 조선학교 교원들과 졸업생들, 조선학교 학생들이 쓰는 언어 이외에 정형화된 재일동포 언어는 없습니다. 지금 조선학교에서 쓰는, 조선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이 쓰는 조선어라고요. 참고로 저희 학교에서는 원래는 조선어였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과목 이름이 한국어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어라는 게 만약 그게 좀 이상하다고 김미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언어를 총련 조선어라고 김덕룡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런데 정체불명의 언어라고.

김미선: 이상하다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총련 내부에서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재욱: 그게 대체적인 의견이죠. 문화어가 기본이고. 그랬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총련 자체 내에서 조선학교 자체 내에서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개편이 되면서 구어체가 강조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 바꾼 걸 보면 1993년도 하고 2003년도를 비교해 보면 구어체가 많이 강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보면 물론 여기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런 의식이 있고, 우리가 쓰는 우리말이 좀 어색하다 그런 시각이 있고 밖에서 보는 분들도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세상에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7년이나 살아봤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이 쓰는 영어, 파키스탄 사람이 쓰는 영어, 홍콩 사람이 쓰는 영어, 프랑스 사람이 쓰는 영어, 독일 사람이 쓰는 영어, 저는 몇 마디 들으면 압니다. 그렇지만 다 영어거든요. 인도 사람이 쓰는 영어, 영국 가서 예를 들어 유학을 몇 년씩 하고 돌아오면 영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사람이 쓰는 영어도 영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도도 FTA 돼서 인도에서 영어 선생들을 인제 한국으로 들여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어도 앞으로 다양성이 인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말이죠. 총련 조선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성된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인도 사람의 영어가 지금처럼 된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그 긴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호주 사람들이 쓰는 호주 영어가 왜 그런지 다 역

사적으로 형성이 된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총련 조선어라는 것도 그 긴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형성이 된 것이고 총련 조선어를 쓰는 분들이 우리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슨 형태로든지 바뀌 나가겠지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기 조선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스스로 우리 언어를 어떻게 바꾸어 가자 그랬을 때 그것은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데서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상한 우리말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학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무슨 정치학자라든가 언어학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언어학자·교육학자·국어학자들이라면 그런 판단을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교포 자녀들에게 우리말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교포 자녀들에게 우리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조선학교는 존속이 돼야 되고 그걸 어떻게든지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학교가 아닌 한국계 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쿄한국학원은 각종 학교고, 교육을 한국어하고 영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생긴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도 한국어하고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쿄한국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90%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도 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교포들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포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니까? 금강에서 교육을 합니까, 백두에서 교육을 합니까? 도쿄한국학교 국제학원에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교포들이 교포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 조선학교에 가는 것을 민단에서 싫어하면 민단에서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야 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조선학교에 지금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도 10%~20%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한테 고교 학비 무상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한다면 결국 한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 자녀들한테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민단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조남호: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보는 사람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발표를 해 주신 조의성 선생님께서 조선학교 언어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조선학교 교원이 대부분 조선학교를 나와서 또 교원이 된 분들이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어가 섞여 있는, 일본어투의 영향을 받은 말들이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한테 전수되고, 보통의 경우라면 아

까 고명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국에서 선생님이 와서 끊임없이 교정 작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조선학교 내에 특수한 언어 모습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 같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아까 민현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배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한국어란 개념하고 지역별로 있는 언어들은 각각으로서 한국어지만 예컨대 일본에서 쓰는 한국어, 또는 미국에서 쓰는 한국어라고 해서 각각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지금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한국 내에서 방언 문제랑도 같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방언 화자들이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쓰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똑같은 논리로 여기 재일동포 같은 경우도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한테 들은 말, 그걸 쓸 수 있는 권리 그런 거랑 연결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문제가 쉽게 결론날 것 같진 않고요.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의견만 낼 수 있으신 분, 더 말씀해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조선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88% 이상은 남한 출신자들이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조선학교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식민지 시기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나라 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김미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대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을 배운다는 것은, 말은 그냥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말을 쓰면서 정서랄까 호흡이라 할까, 자기 민족의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라 말을 몰라서 못 쓰는 것하고 알지만은 쓸 기회가 없다, 적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선학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학교가 없어지고 학생 수가 적어지고 하는 것. 너무나 이상적이지만은 한국에서도 돈을 좀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소원은 정치적으로 학생들이 사회주의 금지를 이어가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당당한 자기의 루트라 할까 사람으로서의 존엄이라 할까 그런 것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강정의 선

생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에서도 제주도 출신 분들이 고립 당했기 때문에 단결력이 강하고 경계심이 강하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서 일본말을 못 배웠다 할까, 언어라는 것은 제가 말하기가 거북합니다만 계급이라 할까, 그 사람들의 정도라 할까 교육 수준이라 할까, 젠더라 할까 그런 것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쓰는 일본말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재일교포 언어라고 할까, 한국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그런 재일동포들이 쓰는 일본말에 대한 연구라 할까, 저만 말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나만 예를 들고 얘기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언어 이론적인 말을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단어나 문장보다는 어조라 할까 소리 내는 법이라 할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민단계 부인들하고 사귀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인들 강좌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모델로 하나면, 일본의 로열패밀리. 그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크고 동경심이 크고 그러니깐 말을 할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조라 할까 일본 보통 사람들도 안 쓰는 일본말을 일부 교포 부인들이 쓰기 때문에 조금 우습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느낌도 가졌습니다.

허 용: 궁금한 게 있는데, 조선학교 교사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교사진.

김덕룡: 압도적으로 조선대학교 출신입니다. 일부 일본 학교 졸업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우리 조선학교 졸업생입니다.

송재목: 지금까지 조선학교 시스템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히 모든 게 자급 자족이 되니깐, 그러니까 입학해서 대학까지 나오고 교원이 되고 다시 재교육을 하고 다시 가르치는, 재생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김덕룡 선생님 말씀하시는 김에 조선학교 문제점도, 방금 김미선 선생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보시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덕룡: 한국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 마더텅이 아니고, 어머니한테 소리로 들어서 배운 말이 아니라 글자, 활자를 보고 배워요. 민족적인 차원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턴, 그때 처음으로 제2언어로서 배워요. 문제는 대체로 11살부터 12살. 대체로 안정기가 정설화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조선학교 가서 조선어권에 들어가 가지고 샤워를 맞으면 이중 언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후로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 배우면, 실험을 해봤는데, 1

학년부터 들어온 애들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조선학교 들어간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 언어 간섭이 보통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제로서는 교과서 언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네이티브, 어떤 자극을 많이 줘 가지고 네이티브 비슷하게 그 수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클래스는 변하지 않겠는가. 방법적으로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압도적으로 조선어 교육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1학년 들어갈 때, 커리큘럼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조금 조금 줄어든 하는데. 마더텅 원래 언어가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어쨌든 그런 자극을 많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교사들이 1세대이거든요. 60년대 교육받은 우리는 1세대들이 다 우리 조선학교 교원들이거든요. 지역에서든 가정에서도 좀 조선어를 썼고, 1세대들이 2세 키울 때는. 지역사회도 많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조선인 부락에서. 뭐 학교는 100% 우리말이죠. 안 하면은 선생님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거꾸로 그렇게 해가지고 1세대가 우리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죠 뭐. 지역사회에서도 압도적으로 일본어를 합니다. 도쿄 같은 데, 거긴 동포가 없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100% 일본말입니다. 그 유일하게 한국말 쓰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학교. 일반 사회도 마스크도 그렇고 모두 일본어니깐 그러한 공간을 언어권, 조선어권, 한국어권은 지금 조선학교 빼면 없습니다.

허 용: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총련 조선어. 그게 움직이려는 경향은 없습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김덕룡: 예 지금 이것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북한에 평양 문화어, 서울에 표준어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초기, 소련 시기만 제외하고 계속 그 이후로 북을 지지한다는 것을 천명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은 평양 문화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는 뭔가 하면 한글협회 있잖아요. 거기 총련계 장로님이 이사장하고 있는데, 그 분의 주장은 뭔가 하면 두 개 다 하라. 한국어식으로 표기도 하고 그것도 맞다는 겁니다. 평양 문화어식으로 하는 것도 맞다. 근데 한국 검정 관계는 다 대한민국 거 하나만 하고 있으니까. 이젠 조선학교 교육에서도 두 개 다 배워주자. 그러니깐 교재는 평양 문화어식으로 물론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서울에서 나온 책, 교과 교재 이걸 참조 많이 하자. 악센트, 억양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것도 그렇고 자부심을 어디서 가지냐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가져요, 내면적으로 보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웃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원을 만들어요. 그래 많이 돈 내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고 민단계 사람들 아니거든요. 민단계 분들은 모두 일본 사람 돼라 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100% 일본 사람 되라고. 그래서 민단계 사람들보고 우리 총련계 사람들이 화를 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조선 사람, 한국 사람 키우자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런 거 보면 문제 제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희: 선생님,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초등학교 과정 아이들, 10대 애들 언어 모방에서 이성문화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서울말도 아주 잘한다고도 하는데. 이전 세대들은 순환적으로 조선대학 나온 선생님들이 문화어 톤으로 수업을 했어요. 10대 또 초등학교 아이들은 계속 한국어의 말투라든가 서울말에 익숙해져서 애들은 막 변해가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묻고 싶어요. 근데 문화어 톤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이 과연 우리처럼 순수하게,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만은 제주도 가서 표준말로 한다고 해도 들어보면 그야말로 표준어 규정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 중심의 그런 순수한 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학교에서도 변해가는 상황에 교사들의 대처나 학교 당국에서 대처가 어떤가요? 유연하게 대처해 줄 때 화합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덕룡: 대체로 사범 교육이죠. 교원 양성 교육을 평양에다 보냅니다. 3개월이라든가 반년, 길게는 한 1년 계획적으로요. 지금 교육학부, 지금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남자들만이죠. 남자 교원을 다 데려다가 무료로 다 공부시킵니다. 무료로.

강정희: 아니 문화어 배우러 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변해가는 학생들의 말투에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서울말을 시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김덕룡: 그러니깐 그 이야기죠, 바이링구얼이죠. 나는 간사이 쪽이라서 원래 관서말을 하는데 도쿄에 오래 살아서 일본말 할 때 도쿄말 쓰죠. 그런데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니깐 경상도 사투리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언어라도 두 가지 사투리를 쓰는데 그러면 바이링구얼이죠. 애들이 일본에서 살아가지고 1년 정도 평양말 배워서 돌아오면 일본에서 문화어식으로, 북한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애들은 그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서울말에 관심 가집니다. 두 가지 말 배우는 교원들이 아이들 앞에서 쓸 때도 그런 말 쓰죠.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겹쳐 가지고. 서울말하고 겹쳐 가지고.

조남호: 양쪽 말을 둘 다 자유자재로 구사하긴 어려울 텐데요.

김덕룡: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긴 있습니다.

조남호: 아직은 그게 다 일반화는 아니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서울말도 알고 평양말도 알면서 양쪽으로 구사하는 교원들이 생긴다는 거죠?

김덕룡: 생기고 있습니다.

조남호: 관련된 것으로 중국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고민에 빠지는 게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 거기 분들은 사실 문화어 쪽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나는 문화어 배우기 싫다, 서울말 배우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요구를 해서 선생님들이 고민해 가지고 말을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서울에 와서 훈련 받고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아무래도 남한 쪽 문화를 더 쉽게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선생님 언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항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송재목: 중국 조선족하고 여기에 조선학교는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남호: 아니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미선: 그런데 사실 지금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한류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가 그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로요. 교사도 젊으니까 아무래도 그 한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닌 척 해야 된다는 것이.

강정희: 교육 현장에서 아닌 척 해야 된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김미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다가 굉장히 현실적인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

부터 조선학교에다가 우리말을 아이들에게 조금 가르쳐 보고 싶다고 자원봉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주세요. 제가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거기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김덕룡: 영어는 그렇지 않은데.

조남호: 그러니까 조선학교 출신 선생님이 중심이 된단 얘기지요.

강정희: 그 얘기를 제가 직접 하면 한국에서 온 사람이 뭘 알겠나 하실까 봐 우회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체 내에서 교사를 문화어와 한국어, 요즘의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훈련 과정이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솔직히 우리가 거래말큰사전을 편찬을 하는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한반도 안에서는 남한 학자들과 북한 학자들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단도 변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60년대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제 GNP가 500불인가 600불 똑같은 때는 서로 대치했기 때문에 힘에 의존했지만 이젠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을 때에는 왜 일본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제가 관찰자 시점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막 나가서 한류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무슨 언어의 서열화라는 말도 나오고 조선말을 하면 뭐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조선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심지어는 남한 출신의 서울말을 아름답고 또박또박하게 쓰는 선생님을 기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개방적으로 변해야만 한국 정부에서도 기꺼이 한국어 세계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김덕룡: 그 현장에 교장급도 그렇고 지방 교육부장급도 그렇고 중앙에 어느 급까지도 다 그래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할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이 조선학교에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덕룡: 93년도에 교과서 편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직접 담당했습니다. 집필자가 기본적

으로 다 조선대 교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은데 집필권, 편찬권. 그때 편찬권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그때 몰랐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편찬권이 어디 있었느냐? 질문을 했어요. 하니깐 뻔한 사실 아니냐고. 그래 93년도에 '현대 조선 혁명 역사'란 제목에서 우리가 그 혁명이란 말을 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잖아요, 일본 실정에. '현대 조선 역사'로 하면 안 되겠냐고. 아주 높은 급의 분들과 개별적으로 많이 논쟁했습니다. 자신도 교과서에 도조 히데키 사진 이상하게 내려왔는데 안 된다고. 다 있는 그대로 하라고. 도조 히데키도 그렇고 안 된다고. 자기는 그저 그때 400장인가 500장인가 사진 많이 검토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가 그때 주장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3년에 가서 결국 혁명이란 말이 빠졌어요. 결국 몇 년 전에. 그래서 하는 소리가 20년이 흘렀다 몇 십 년이 흘렀다 우리가 뒤에서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린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하는데, 10년이 흘렀다 20년이 흘렀다 그래도 정책 결정하고 결판내는 분들이 다.

민현식: 표준어란 말을 제가 꺼내가지고 이제 수습을 좀 해야겠다 싶은데요. 황적륜 교수님 말씀도 있는데 그 월드잉글리시라 하는 것이 결국 아메리칸 잉글리시만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별 언어, 영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준 한국어에 대해서 그냥 월드코리아, 세계 한국어거든요. 그러니깐 표준어란 말 썼었는데 남한 중심으로 하려는 건 결코 아니고 제가 표준어라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교민들이 구어에서는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일하는 거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문어로서의 한국어랄까요, 문어로서의 한국어를 그 표준어로 통일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법 얘기 뒤에 붙었던 것은 표준 문법 같은 것들이 대외적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지금 전 세계에 각 교포 교재들 보면 품사 용어 같은 것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거 많아요. 초창기 어학당들은 특정 문법 체계에 종속돼 가지고. 지난번에 하와이 가 보니까 60년대 이민 가신 분인데 완전히 옛날 문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전 대외적인 표준 문법, 문어로서의 표준 한국어 그걸 제시한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남북한의 학자들이 중심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서울말을 얘기하는 거는, 사업자들이나 출판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 같아요. 그건 논외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민단이나 이런 데는 일본 교포 사례가 특수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민단계 학교들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런 특수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련계 학교들이 한국어를 유지했던 측면들은 잘 계승이 돼서 동포 간에 협력,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아쉽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제가 결

국은 민족정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뉴커머도 자꾸 오고 그러는데.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사관학교 교수 요원으로 가 있는 젊은 한국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화교, 중국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갔답니다. 중국계 미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한국사람 사관학교 교수한테 아이를 낳으면 꼭 당신네 말을 가르쳐라, 한국어를 가르쳐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집에서 항상 한국어를 쓰고 나가서는 영어를 배워 들어오게 하지만 집에서 철저히 한국어를 쓰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애가 지금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요. 처음엔 영어가 좀 뒤지는 것 같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열심히 해서 추월해가지고 영어 능력도 뒤지지 않고 이중 언어를 잘 한다는 개인적인 얘길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다 흩어지다 보니까 뉴커머든 올드커머든 간에 결국은 한국인 부모로서나 동포 사회 부모로서나 간에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식들은 모어를 유지해줘야겠다는 의식들이 고취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좀 강화되었으면 싶습니다. 또 한상(韓商) 이런 것이 간접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저희 한민족이 단합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각 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송재욱: 조선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정치적인 실체로서의 조선학교는 총련의 산하 단체고, 총련이라는 것은 또 평양의 해외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평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하고 또 다른 조선학교가 한국어 교육기관 우리말 조선어 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그 의미, 중요성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 실적 그것들은 따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학교가 가지는 정치적인 실체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조선학교 자체를 전체를 부정하고 없애야 할, 없어져야 될 그런 조직이라고 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하면 재일교포 사회에 있어서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관은 앞으로 다시 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포들이 만든 것이고. 왜 그렇게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서 세종학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조선학교 같은 학교를 예를 들어 95개라고 했습니다만, 조선학교 같은 학교 10개를 세계에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들 것이며 그게 만들려고 한다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조남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점도 아마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점 지적을 해줬던 부분들, 조선학교의 문제점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조선학교 일반론으로 갈 것은 아니고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건 언어 교육 문제니까요. 그런 쪽에서 볼 때 어쨌든 아까 김 선생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어떤 폐쇄성 문제도 앞으로 많이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저희가 언어 문제에 들어갈 때에도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하고 비교도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뭐냐면 중국에서도 조선족 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거긴 오히려 바뀌는데, 물론 거기도 아직 규범 이런 건 떠나있지만은 거기는 오히려 쉽게 개방적이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 여기는 재일동포 사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념 대립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는 이념 대립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싶습니다.

송재목: 조선족은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고 지휘를 받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의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과서 편집권은 이제 93년도부터 넘어왔습니다만, 제 발표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는 봤습니다만. 그쪽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게 조선학교의 교과서 편찬 흐름은 북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몇 십 년 동안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조선학교는 정치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상부에 있는 조직은 평양이기 때문에 물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중국처럼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조남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하고 재일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올 때 태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어에 대한 태도 차이.

허 용: 지금 뭐 재일교포에 대해선 제가 다룬 바가 없고. 저는 계속 알고 싶은 게 재일교포들의 지금 젊은 친구들의 한국어, 전반적으로 재일교포들 지금 20대라든지 30대 좋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렸을 때와 지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근데 일본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것은 여기서 보면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데요. 일단 다 느끼시겠지만 가르치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옛날만큼 기죽고 지낼 이유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사이 소녀시대가 무슨 1등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춤을 흥내 내면서 그 가사를 부분적으로 외우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강해져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려는 의욕은 거의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이들을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호: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끝나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뵈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지금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15분만 연장하겠습니다. 45분에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여기서 15분만 더 진행하고 15분 내에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강정희: 허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재일동포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제가 한국어 학당을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유학 온 동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어 선택 조사에서 바로 여기 2세, 3세 학생들한테도 그걸 물었었습니다. 내가 한국어를 했을 때 이점이 많은가 실이 많은가, 그 다음에 회사에 면접할 때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밝힐 때 그게 불이익을 받느냐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제목이 달라서 이 얘긴 전부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재일교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마음을 잡고서는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배웠을 때 오는 득이 뭐냐면은 두 개 국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영어까지 돼서 세 개 국어 하니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게 된다고요. 그런 거 보면 친정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웃음)

허 용: 유럽이나 미주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선생님 말씀대로 정체성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기 부여가 되고 그리고 성공률도 높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 안 배운다 그랬는데 강제로 떠밀려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문제는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 부모 자체가 한국어 필요 없다 영어만 잘하면 돼. 그런 부모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은데 재일동포 사회는 어떤가.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김덕룡: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국적으로 조선족이고 조선국적, 한국 국적이든 국적이란 개념하고 그 답에 언어, 조선어이든 한국어이든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저항 개념이거든요. 저항, 차별하는 선진국에 대항하는 개념. 일본에 대해서 절대 안 지겠다고 먹히지 않겠다고 한반도를 향해

내가 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3세, 4세, 5세들은 안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도 세 가지 언어 합니다. 영어도 하고 학부에 따라서는 이학부라면 독일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세 가지를 하고. 일본말, 우리말 하고 영어 좀 하니깐. 나머지 대학에 가서 제1, 제2 하면 네 다섯 개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서 생활적이고 경제적인 것. 어느 의미에서는 우리 보기에는 뭔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생각하며 하는데. 우리는 뭔가 고집스럽게, 우리말 배워야겠다 그런 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까지는 대체로. 그런 세대적인 차가 있어요.

조남호: 과거는 저항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즐기는 거군요. 네, 김미선 선생님.

김미선: 저는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면 나중에 육을 먹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한국어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욕들이 더 강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철저하게 숨기고 더 한국적인 것을 차별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아이들이 그다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교포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픽업해 가지고 화제를 삼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은 거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어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면 선생님 저 사실은 한국인이예요. 그거를 뭐 한 3개월 있다가 고백하는 아이들, 1년 다 있다가 계속 해서 한국어하고 한국문화를 관찰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이 생겼을 때는 와 가지고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호: 저희 문화원에서는 학교 교육하고 관계없이 일반인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약 500명 정도 수강생이 있어요. 근데 90%는 일본 사람이고 10%가 교포입니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교포들도 젊으신 분들 20~30대 분들도 있고 50대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김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일본에서 정말 한국어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본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교포들도 굉장히 많아요.

송재목: 동포들이 지금은 사실은 한국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조선학교밖에 없으니깐. 그런데 조선학교에 다니는 퍼센티지가 10% 전체, 10%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조남호: 그러니까 어디에 10%인가요? 재일교포 전체 학생 중에서?

송재목: 전체 재일교포 학생 중에서 10%가 안 된답니다. 90%가 일본학교 다닌다는 것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 수업을 보게 돼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저도 제가 하는 한국어 수업에 교포 자제분들 몇 명 있는데 어떤 애는 물으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 동포라 그러면 내가 잘해주지(웃음). 어떤 애는 보면 이름이 철수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근데 10%도 안 되니깐, 그게 해방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국어강습소 다음에 조선학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거의 한 40%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일동포 자제분들 중에 40%가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김중호: 언어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게 뭐냐하면요. 저도 일본에서 공부할 때 제대로 된 사전이, 한일사전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잘 나온 책이 총련 쪽에서 만든 조선어사전이 제일 잘 나왔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평양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었대요. 일본에서 만든 건데, 내용이 우리말을 일본어답게 가장 잘 표현한 사전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일본 사회에서 지금 얘기가 그래요. 4세, 5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 사전에는 북한식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 책을 보면서 이건 이상한데 이런 표현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일동포 사회에서 정말 한국어가 한국 조선어가 또는 한국어가 됐든 좀 더 명확하게 표준적으로 돼 있는 사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남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희원 팀장님 말씀 좀 짧게.

정희원: 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무엇을 얻었을까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큰 정책 방향은 정하시겠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처음에 사실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정말 통합만이 방법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표준 한국어, 잘 정제된 어떤 것이 있기는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송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어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듯이 한국어도 전국에서 지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

서 오히려 그곳의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변종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의 독자적인 발전도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민현식 선생님 원고에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발음 교육을 '간장공장공장장'식으로 한다 그런 비판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 발음을 바꾸겠느냐. 근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발음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저도 민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발음을 교정시킬 것이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것인가. 발음이나 억양의 미세한 차이는, 지역적 차이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러나 한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송 선생님께서 언어학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변이형을 인정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른다고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국어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소위 다문화시대에 다양한 변이형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건데 그것을 어색하다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게끔 인식을 변화시키게 방향을 잡아주는 일. 통합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게끔 국어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재중동포들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는 게 남북 규범이 달라서 우리가 애를 먹는다. 만나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그 상황이 똑같은데 일본에서는 남북 언어 체계 문제가 별로 제기가 안 되거든요?

고영진: 규정이 하나니깐.

조남호: 아니 근데 또 하나는 조선학교가 워낙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북쪽 규범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는 거죠. 남쪽하고는.

고영진: 꼭 그렇진 않아요. 저희 대학교 입시 센터 시험은 한국에 맞춰서 한국 규범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남호: 근데 진짜 조선학교 출신 학생하고 민단학교 출신하고 말투가 다른가요? 한국어 발음이.

송재목: 말투가 다르죠. 민단학교에서 우리말을 잘 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학생들 외에는 거의 없어요.

박재영: 네, 조선말 잘 못 합니다. 민단 학교 학생들은.

조남호: 아 그럼 재일동포의 특이한 말투를 한다 싶으면 조선학교 출신이군요.

민현식: 궁금한 게 민단의 지도부랄까 수십 년간 해 오신 그분들은 자녀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시나요?

김종호: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현식: 그런 의식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하잖아요.

김종호: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호: 그건 나중에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네, 그래도 아직 더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그 얘기들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회 자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을 겸해서 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 보니까 하나 차이가 나는게, 당연한 사실인데 어제 새삼 느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삼십분 일찍 어두워집니다. (웃음) 그래서 어제 보니 다섯 시에 어두워지던데 이미 어둠이 내린 지 한 시간이 넘도록 오늘 하루 종일 진지하게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어를 보급한다 했을 때 그 대상은 들입니다. 민족어로서 한국어를 보급하는 일과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보급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동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목적과 활용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가르치는 쪽에서도 목적과 그리고 활용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일본에서 다를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민족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틀로서는 다양한 한국어를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일 것인가. 크게 말하면 과연 통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통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침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는 남과 북이고 그리고 재외동포들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묶어서 저희들이 몇 해째 국제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재일동포의 민족어 교육으로서 문화에 초점을 두고 많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직까지 합의 못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민족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그리고 보급, 그리고 남북 언어 통합 사업에 충분한 자료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어둠이 내리기까지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강정희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고명균 | 일본 간사이대학 외국어학부 교수

고영진 | 일본 도시샤대학 언어문화교육연구센터 교수

권재일 | 국립국어원 원장

김덕룡 | 전 일본조선대학교 교수

김미선 | 일본 민족학박물관 연구원

김종호 |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원장

민현식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박재영 | 수필가

송재목 |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교수

정욱자 | 동경대대학원 (한국조선문화연구실) 석사과정

정희원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조남호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허 용 | 한국 외국어대 교수, 일본 덴리대 방문교수

Collection of Theses from Academic Conference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Integration and the Language of Ethnic Koreans in Japan'

This report is a compilation of presented theses and discussions during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on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Integration, and the Language of Ethnic Koreans in Japan," which was hosted in Osaka, Japan in October 2010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following are the authors, titles, and main content of the four theses contained in the report.

(1) Min Hyun-si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and Future of Languag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Ethnic Koreans in Japan"

The study examined pending issues, including streamlining of language rules and the need for the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Korean language grammar with a focus on pending linguistic matters facing South and North Korea and ethnic Koreans in Japan. The work presented the goal of establishing standardized Korean language as a task for the Korean language community in the future.

(2) Kim Miseon (Researcher, Ethnology Museum of Japan) "Language Situation of Ethnic Koreans in Japan"

The study introduced the situation wherein ethnic Koreans in Japan use dual languages of Korean and Japanese by categorizing those people into different generational groups. The study examined the generational transition of the situation from an era when ethnic Koreans used primarily Korean language, to an era where they use Japanese as their primary tongue and Korean as a de facto foreign language it also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hierarchical plac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s in Japan's ethnic Korean society.

(3) Kang Jeonghui (Professor, Hannam University) "Linguistic Change of Ethnic Koreans in Japan" Centering on the Jeju Dialect

Through a survey of situations among users of the Jeju dialect, the study has discovered that the group which best preserves Korean language among Japan's ethnic Koreans is that of first-generation immigrants, while second- and third-generation ethnic Koreans perceive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s psychological elements of such change, they singled out the waning companionship and consolidation among ethnic Koreans in Japan, as well as a sense of nationalistic inferiority. The study predicted that due to an inflow of young immigrants from South Korea and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Korean pop culture) in Japan, the trend of Korean language usage in Japan's ethnic Korean society will become more positive.



(4) Song Jaemog (Professor,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Changes of Curricula at Korean National Schools in Japan"

The study examined changes of curricula at national schools in Japan that have offere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thnic Korean society. In the past, Korean national schools in Japan primarily educated its students about North Korea's Juche ideology (self sustenance and independence), but from 1983, they changed their curricula in a way to ensure that ethnic Koreans could adapt to Japanese society with the approach to Korean as a second language. Ethnic Korean educators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publication of textbooks, and reinforc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Keywords: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language, ethnic Koreans in Japan, standardized Korean language, Korean national schools

담당 연구원: 정희원(어문연구팀장), 위진(어문연구팀 학예연구사)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14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1년 3월 10일
발행일	2011년 3월 10일
인쇄	크리홍보주식회사
